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의견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것이며 통계청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310.12/
통14농
V.7-1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7-1)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과제

연구기관 : 한국인구학회

권태환 (서울대 교수)

구성열 (연세대 교수)

김두섭 (한양대 교수)

김익기 (동국대 교수)

박덕규 (한국교육개발원)

은기수 (정신문화연구원)

통 계 청

130023159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199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199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심층분석결과를 수록한 것으로서 조사기획,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자료집계 그리고 23권의 최종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방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은 물론, 여러 인구, 사회 및 경제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료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주택총조사가 전국의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 중 일부 항목은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표본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커 자료의 대표성과 유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광범위한 활용과 아울러 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구결과의 도출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센서스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에서 주요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통계청에서는 1995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처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적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개 주제에 걸친 연구결과를 각각 개별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주제별 보고서 중 1권에서는 그동안 우리 나라가 경험해 온 급속한 인구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성별 인구구조, 가구 및 가족, 노인, 교육, 노동력의 특성과 그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아울러 그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함축하는 사회정책적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권에서는 과거 30여년간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급격히 변모해 온 농촌사회 제반 변동의 실상과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농촌인구의 특성과 농촌생활의 본질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 인구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지역별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여성과 가족관계, 여성의 경제활동구조 등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권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주택수급과 주거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도시 주택 및 주거환경을 평가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 향후 주택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권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통근학 발생·도착량, 이용교통수단, 소요시간 등 통근학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부문의 장단기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권에서는 기존의 각종 가구추계기법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각 가구추계기법의 현실성, 타당성 및 기본가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실정에 적용가능한 가구추계기법을 선택하여 가구규모 및 유형별 장래 가구수의 추계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권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직업구조와 직업에 따른 사회계층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직업구조의 변화를 최근 우리 사회의 정보화 추세와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관련 분야별로 많은 연구자들과서 수고해 주셨으며,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내 주신 연구자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 및 경제부문에 걸친 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각종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서 널리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1995 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12월

통 계 청 장

김 병 일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남녀인구의 성비불균형:원인과 사회정책적 함의	7
제1절 머리말	7
제2절 성별 인구구성의 변화추세	8
제3절 성별 인구구성의 지역별 편차	12
제4절 성비불균형의 원인	21
1. 성선택출산	23
2. 남녀의 차별사망력	28
제5절 향후 인구전망과 성별 구성	33
제6절 사회 정책적 과제	35
참고문헌	40
제3장 가구와 가족의 변화	44
제1절 서론	44
제2절 1995년의 가구 및 가족구조	45
1. 한국인의 가구내에서의 지위	45
2. 가구구성과 가족구조	51
3. 1인가구의 특성	59
4. 핵가족의 특성	65
제3절 요약 및 결론	71
참고문헌	73
제4장 노인 인구의 특성과 주거 현황	74
제1절 서론	74
제2절 인구변천과 인구고령화	75
제3절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79
제4절 노인의 경제적 특성	86
제5절 노인의 주거현황	89
1. 세대구성	89
2. 노인의 주택형태	92
3. 노인의 주택 점유형태	94
4. 노인의 현주택 거주기간	96
제6절 결론	97

참고문헌	99
------------	----

제5장 교육부문의 변화..... 100

제1절 지역별·성별·학력별 인구비율.....	100
--------------------------	-----

1. 지역별·성별·학력별 인구비율.....	100
-------------------------	-----

제2절 학력변화.....	104
---------------	-----

1. 국민의 성별 학력구성비.....	104
----------------------	-----

2. 주요 외국과의 비교.....	105
--------------------	-----

3.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	106
---------------------	-----

제3절 학령인구변화.....	107
-----------------	-----

1. 학령인구의 변화.....	107
------------------	-----

2. 학교급별 취학인구변화 비율.....	108
------------------------	-----

3. 연령별·성별 불취학 인구비율.....	110
-------------------------	-----

4. 학교급별 진학률.....	110
------------------	-----

제4절 학생인구이동.....	111
-----------------	-----

제5절 지역별/성별/직업적 지위별 평균학력.....	115
------------------------------	-----

제6절 재학생의 통학 상황.....	118
---------------------	-----

1. 통학수단별 학생비율.....	118
--------------------	-----

2. 통학소요시간/지역별/성별 비율.....	119
--------------------------	-----

제7절 학력별 종교인구 비율.....	121
----------------------	-----

제8절 교육분야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대책.....	122
-----------------------------	-----

1. 성별 학력차의 균형유지를 위한 대책.....	122
-----------------------------	-----

2. 학력구성비의 선진국형화 추진.....	122
-------------------------	-----

3.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의 상향추진.....	123
---------------------------	-----

4. 학생인구 이동의 문제와 도서벽지의 공동화 해결.....	123
-----------------------------------	-----

5. 통학거리와 통학수단의 개선.....	123
------------------------	-----

6. 종교교육의 필요성.....	124
-------------------	-----

참고문헌	124
------------	-----

제6장 인구 및 학력구조의 변화와 노동력 수급전망..... 125

제1절 분석방법.....	127
---------------	-----

제2절 인구의 학력구조변화와 인적자본의 공급추이:1965-1995.....	129
---	-----

1. 추정방법과 자료.....	129
------------------	-----

2. 인구의 학력구조 변화추이.....	135
-----------------------	-----

3. 인적자본의 공급추이와 변동요인:1965-1995.....	138
------------------------------------	-----

4. 경제성장율과 인적자본의 수요 추이.....	143
----------------------------	-----

제3절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와 노동력 공급전망:1995-2020.....	145
--	-----

1.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 전망.....	145
--------------------------	-----

2. 경제활동률의 변동과 민간 경제활동인구 전망.....	145
---------------------------------	-----

3. 인적자본의 공급전망과 변동요인:1995-2020.....	146
------------------------------------	-----

4. $\varepsilon_{HY}(K,T)$ 의 가정에 따른 대안적 경제성장률 전망.....	149
---	-----

제4절 정책과제와 시사점.....	151
--------------------	-----

부 표	153
-----------	-----

참고문헌	159
------------	-----

표차례

<표 II-1> 남녀인구 및 성비의 변화추세.....	9
<표 II-2> 연령집단별 성비의 변화추세, 1960-1995.....	11
<표 II-3> 전체인구와 0-4세 인구의 지역별 성비의 변화추세, 1985-1995.....	14
<표 II-4> 4세 이하 인구의 지역별 성비, 1995.....	16
<표 II-5> 전체인구와 0-4세 인구의 지역별 성비, 1995.....	18
<표 II-6> 연령집단 및 지역별 성비, 1995.....	20
<표 II-7> 연령집단 및 성별 순국제이동인구, 1991-1995.....	22
<표 II-8> 출산순위별 출생성비의 추이, 1981-1995.....	24
<표 II-9> 지역별 및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1995.....	25
<표 II-10> 지역별 및 어머니의 연령별 출생성비, 1995.....	26
<표 II-11> 연령집단 및 성별 사망률과 사망률성비의 추이, 1986-1995.....	30
<표 II-12> 지역별 및 성별 0-4세 유아사망자의 수와 성비, 1985-1995.....	32
<표 II-13> 전체인구와 결혼적령인구의 추계규모와 성비 추이, 1970-2020.....	34
<표 III-1> 1995년 한국인의 가구내 지위.....	46
<표 III-2> 1995년 한국인의 혼인상태별 가구내 관계.....	49
<표 III-3> 성별, 지역별 가구형태.....	49
<표 III-4> 성별, 지역별 세대가구형태.....	50
<표 III-5> 한국의 가구구성, 1990, 1995.....	52
<표 III-6> 지역별 세대가구구성.....	54
<표 III-7> 지역별 가구구조.....	55
<표 III-8>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58
<표 III-9>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59
<표 III-10> 1인가구주의 특성.....	61
<표 III-11> 도시지역의 20대 1인가구주의 특성.....	62
<표 III-12> 60세이상 1인가구주의 특성.....	64
<표 III-13> 핵가족의 구성.....	66
<표 III-14> 부부가족의 특성.....	67
<표 III-15>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특성.....	70
<표 IV-1> 한국의 사망률 및 출생률의 변화추세, 1960-1990.....	77
<표 IV-2> 연령별 인구비율, 1966-2020.....	78
<표 IV-3> 60세 이상 노인의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1966-2020.....	79

<표 IV-4> 한국노인의 성비, 1966-1995.....	80
<표 IV-5> 60세이상 노인들의 유배우비율, 1966-1995.....	80
<표 IV-6> 노인의 도시화율 및 지역별 노인비율, 1966-1995.....	81
<표 IV-7>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82
<표 IV-8> 성, 연령, 거주지역별 노인의 분포.....	82
<표 IV-9> 종교별 인구분포.....	83
<표 IV-10> 가구주와의 관계.....	83
<표 IV-11> 성,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수준.....	84
<표 IV-12> 연령별 결혼상태.....	85
<표 IV-13> 성,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상태.....	86
<표 IV-14> 노인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	87
<표 IV-15> 성 및 연령에 따른 직업분포.....	88
<표 IV-16> 성과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88
<표 IV-17>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89
<표 IV-18> 성별 및 거주지역별 세대구성.....	90
<표 IV-19> 연령별 세대구성.....	90
<표 IV-20> 교육수준별 세대구성.....	91
<표 IV-21> 성별 거주 주택형태.....	92
<표 IV-22> 연령별 거주 주택형태.....	93
<표 IV-23> 교육수준별 거주 주택형태.....	93
<표 IV-24> 거주지역별 거주 주택형태.....	94
<표 IV-25> 성별 주택 점유형태.....	94
<표 IV-26>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95
<표 IV-27> 거주지역별 주택 점유형태.....	95
<표 IV-28> 연령별 현주택 거주기간.....	96
<표 IV-29> 거주지역별 현주택 거주기간.....	97
<표 V-1> 지역별·성별·학력별 인구비율.....	101
<표 V-2> 국민의 학력구성비.....	104
<표 V-3> 주요 외국과의 학력 구성비 비율 비교.....	105
<표 V-4>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	107
<표 V-5> 학령인구증가현황.....	108

<표 V-6> 학교급별 취학률.....	109
<표 V-7> 연령별·성별 불취학 인구비율.....	110
<표 V-8> 학교급별 진학률.....	111
<표 V-9> 재학생 전출·입 비율(초,중등학교).....	113
<표 V-10> 재학생 전출·입 비율(중학교).....	114
<표 V-11> 재학생 전출·입 비율(고등학교).....	115
<표 V-12> 학력별·지역별 직업적 지위.....	116
<표 V-13> 학력별 취업.....	117
<표 V-14> 재학생 통학수단별 학생비율.....	119
<표 V-15> 재학생의 지역별·성별 통학소요 시간별 비율.....	121
<표 VI-1> 연령계층별 인구의 학력구조(1995인구총조사2%표본).....	137
<표 VI-2> 우리나라 인적자본의 공급전망: 1995-2020.....	139
<표 VI-3> 경제성장률과 인적자본 탄력도 추이:1965-1995.....	143
<표 VI-4> 우리나라 인적자본의 공급전망:1995-2020.....	147
<표 VI-5> $\varepsilon_{HY}(K,T)$ 의 가정에 따른 대안적 경제성장률 전망.....	150
<부표1>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율.....	153
<부표2> 인구특성별 경제활동률의 학력간 격차(1995).....	154
<부표3> 인구특성별 실업률의 학력간 격차(1995).....	155
<부표4> 인적자본공급의 변동요인: 1965-1995.....	156
<부표5> 경제활동률 전망.....	157
<부표6> 인적자본공급의 변동요인: 1995-2020.....	158

그림 차례

<그림 VI-1> 인구특성별 시간당 임금률.....	130
<그림 VI-2> 인구특성별 시간당 임금률(여자).....	131
<그림 VI-3> 인구특성별 경제활동의 학력간 격차(1995).....	133
<그림 VI-4> 인구특성별 실업률의 학력간 격차(1995).....	134
<그림 VI-5> 연령계층별 인구의 학력구조(1995).....	140
<그림 VI-6> 인적자본스톡 변동요인과 인구특성별 구성분.....	142
<그림 VI-7> 경제성장률과 인적자본의 GNP 탄력도 추이(5년간).....	144
<그림 VI-8> 인적자본스톡 변동요인과 인구특성별 구성분전망.....	148
<그림 VI-9> 인적자본의 요인별 증가율 전망.....	149

제1장. 서론

1955-60년 사이 우리 나라의 인구성장률은 외국과의 인구이동이 거의 막힌 상태에서 연평균 2.9%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자연증가율은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당시 우리 사회는 이미 높은 인구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 나라의 경제는 피폐하였고, 사회는 혼란스러웠으며, 사람들의 생계는 매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높은 인구성장률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였다. 이에 정부는 1962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인구성장 억제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이후 20여년간 한국 사회에서의 인구에 대한 관심은 인구의 총수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출산력은 계속 떨어져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출산 재생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낮아졌다. 이러한 출산력 변천은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것으로 정책 및 가족계획 담당자는 물론 대부분의 인구연구자들까지도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구의 정책적 관심은 인구성장의 억제에서 인구 변천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 또는 인구의 질로 바뀌게 되었다.

사망력의 저하로 인한 빠른 인구성장과 뒤이은 출산력 감소에 따른 인한 인구성장의 둔화와 궁극적인 인구안정 또는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변천은 일차적으로 주어진 사회의 인구학적 구조에 영향을 준다. 인구의 연령구조는,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영아 및 아동인구의 규모가 크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인구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는 피라밋 형의 구조에서, 연령별 인구규모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고 나이가 많은 노인층에서 갑자기 그 규모가 축소되는 포탄형의 형태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인구의 평균 연령도 올라간다. 우리 나라 인구의 경우 1960년 20세이던 중위 연령은 1995년에는 29세로 올라갔다. 그리고 2020년에는 35세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우리 나라의 인구는 인구변천과 함께 소년인구에서 청년인구로 변해왔고 앞으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그것을 간단히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가지고 살펴보면 1960년 3.2%에 불과하던 60세 이상인구가 1995년에는 9.3%로 약 3배 증가하였고, 다시 2020년에는 20% 가량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령구조의 변화의 개략적인 모습은 남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모든 연령에서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의 사망률에 비해서 낮고 그 정도가 높은 연령층에서 더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여성에게 더 심각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정상적인 상태에서 계속적인 사

망력의 저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나라의 인구변천은 인구이동과 도시화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었다. 1925년 3%, 1960년 28%에 불과하던 도시인구는 1995년에 이르러서는 79%로 늘어났다. 그것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성장하였고, 농촌의 인구는 19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인구이동은 계속 연령별 선택성, 특히 혼인연령 이전의 경제활동 인구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 결과는 지역적으로 인구분포의 불균형 심화와 더불어 연령구조의 이질화 현상이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젊은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노령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반면 도시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젊은 인구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왔다.

도시화가 인구변천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인구변천이 도시화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거꾸로 도시화가 인구변천에 공헌한 바도 크며, 1960년 이후 우리 나라의 도시화와 출산력 변천은 총체적인 사회변동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경제발전, 산업화, 도시화, 인구변천, 사회제도의 변화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과거 인구성장 자체가 우리 사회의 주 인구관련 관심사였을 때에는, 우리 나라 인구 논의의 대부분은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인구변천은 일단락 되었다.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오랜 기간 지속 되겠지만, 그에 대한 예측도 상당한 정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구에 대한 관심사는 인구변천의 결과가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가에 두어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구변천이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할 것임을 뜻한다. 인구구조가 각종 사회조직과 제도의 중요한 구속요인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그렇다면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과 인구구조의 변화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현재 우리에게 매우 절박하게 요구되는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분석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우선 믿을만한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를 위해 가장 좋은 자료는 아마도 매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총조사 (또는 인구센서스) 자료일 것이다. 이 자료는 질도 우수하지만, 기본 인구항목에 대해서는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10%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있어 다른 자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계열 적인 변화의 파악

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총조사 자료는 비용과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조사항목에 제한이 큰 것이 흠이다. 여하간, 인구총조사 자료의 중요성과 인구변화의 사회적 의미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조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인구총조사 결과의 심층분석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나마 통계청에서는 총조사 보고서의 출간과 함께 제한적으로 결과 분석을 시도해 왔다. 이번 1995년도 인구총조사 분석 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 정책적 의미를 다루고 있는 본 연구도 그 일부로서 시행되었다.

인구구조는 흔히 인구학적 구조와 사회경제적 구조, 지역적 분포로 나뉜다. 인구구조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인구학적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령과 성이다. 혼인상태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한편 사회경제적인 요소는 그 수가 많다. 교육수준, 직업, 산업, 종교, 인종 등이 흔히 열거되나, 개별 요소의 중요성은 사회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우리 나라 인구구조의 포괄적인 고찰은 시도하고 있지 못하다. 구체적인 주제는 인구변천 또는 출산력 변천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요한 인구학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되었다. 우선 인구의 연령구조와 관련하여 노인인구와 노동력 인구를, 그리고 성별 구조와 연관해서는 성비불균형의 문제를 선택하였다. 이밖에 인구변천의 사회적 의미를 논의하는데 있어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가구와 가족구조, 그리고 인구의 질적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교육구조를 본 연구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각각의 주제가 특정 이론이나 방법론적 틀에 의해 묶여 있지도 않다. 한마디로 주제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이 연구의 성격이 심층분석이나 학술적 연구의 성격을 갖기 보다는, 개괄적인 현황 및 변화를 소개하고, 거기서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가 전공이 다른 연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분석과 논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간단히 소개해 보자.

과거 한국 출산력변천의 주요 쟁점의 하나는 성선호와 출산력사이의 연관성이었다. 출산력이 인구 재생산 수준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족계획 담당자들이나 정부의 인구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출산력이 강한 남아선호 때문에 재생산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출산력저하를 위한 남

아선호 가치의 불식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은 곧 밝혀졌고, 출산력 변천 이후에도 성선택은 한국인의 출산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재생산 이하의 출산 수준에서 성감별에 의한 남아출생의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곧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출생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이 가져올 사회문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성선택적인 인공유산 자체의 도덕성이 문제로 제기되어 이를 막기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또한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 여학생 짝을 갖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여학생과 짝을 못하는 남학생들의 안타까움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반드시 출생성비 때문은 아니지만, 농촌총각이 결혼을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아마도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가져올 혼인시장의 긴장은 우리의 가족과 혼인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서 이는 개개인의 삶의 모습과 모든 생활주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출생성비와 관련하여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지역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비의 변화,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출생성비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 정책적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김두섭 교수에 의해 수행된 본 연구의 첫 부분은 바로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로 구성되어있다.

인구변천과 함께 우리 사회는 192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혼인연령의 상승을 경험하였다. 출산력 변천 기간에도 혼인연령은 계속 올라갔다. 1960년 21.5세이던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는 25.2세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초혼연령의 변화는 피임법 보급, 인공유산과 함께 출산력변천의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였다. 한편 혼인과 출산은 가족형성과 가족형태 및 생활의 변화, 가족생활주기의 기본적인 결정요인이다.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시기를 연장시킨다. 결과적으로 인구변천과 혼인력의 변화는 가구와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족의 해체는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문제임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흔히 가족의 해체는 도시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 경우 대표적인 가족 해체의 형태인 1인가구의 증가는 농촌의 해체와 연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우리 나라 농촌의 모든 문제는 농촌가족과 가구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미혼 1인가구의 증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가구와 가족 구성의 모습과 변화 및 그 정책적 함의는 은기수 교수가 다

투었다.

인구변천 이후 오늘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령구성과 관련된 인구문제는 아마도 노령화와 노동력구조의 변화일 것이다. 이 두 주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인구 노령화의 진행은 60세 이상의 노년인구의 15세 미만의 소년인구에 대한 비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를 가지고 흔히 파악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6년 노령화 지수는 12에 불과하였다. 즉 노인 비경제활동연령층의 인구가 소년 비경제활동연령층의 인구의 1/8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5년 노령화지수는 40으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122로 올라가 경제활동은퇴 연령층의 인구의 규모가 아직 경제활동층에 들어가지 못한 인구를 능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간단한 수치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수치는 노인인구구성과 전망에 대한 보다 많은, 깊은, 그리고 지속적 정책적 관심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이와 같은 노령화의 추세, 노인인구의 특성과 문제는 김익기 교수가 분석, 논의하고 있다.

연령, 성으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구성을 통해 우리는 인구의 양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인구의 질적 특성은 주로 사회경제적 구성을 통해 살핀다. 그 가운데 인구 자질 파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이 교육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교육은 사회적 지위 상승과 성공의 일차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높은 교육의 열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실제 개개인이 얼마나 교육을 받는가는 그 사회의 생활 수준, 교육정책, 사회적 관념 및 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거꾸로 인구의 교육구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특성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교육의 불평등은 단순한 개인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결과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한 세대간의 간격이 뚜렷해져왔고, 제도적 불평등의 소산으로 교육기회의 성별 차이도 관찰된다. 이러한 교육구성의 변화와 그 사회적, 교육적 의미에 대한 분석은 박덕규 박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마지막 주제는 노동력이다. 인구변동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발전과 함께 진행된 인구변천은 1970년대 중반이후 노동력 공급 증가율을 둔화시켰다. 그리고 그 둔화의 과정은 앞으로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변천의 또다른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그것이 인구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구변천의 결과로 나타나는 노동력 공급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노동력의 질적 변화의 고려를 필요로 한다. 질적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교육수준을 사용할 수 있다. 구성될 교수는 이러한 새로운 분석틀을 가지고 노동력 구성 및 공급의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 그것이 경제성장에 대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¹⁾

제2장 남녀인구의 성비불균형:원인과 사회정책적 함의

제1절. 머리말

출산력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친 것으로 널리 인정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남녀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나라 전체인구의 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출생시의 성비, 남녀 사망력의 격차, 그리고 특정 성에 선택적인 인구이동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1955년 이후 인구의 크기와 증가추세가 국제이동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 폐쇄인구의 성격을 유지하여 왔다(Kwon et al., 1975; Kim, 1992). 따라서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성비는 출생성비와 남녀의 차별사망력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지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성비는 100.7로 집계되었다. 이를 단순히 해석하면, 남녀인구가 균형상태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0-4세 연령층만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16.1만명 더 많고, 성비는 113.4로 매우 높다(통계청, 1997c). 출생신고자료에 의하면, 1985년 출생시의 성비가 109.4를 기록한 이래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1993년에는 11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1996a). 극히 최근에 와서 출생성비가 약간 하강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1995년 현재 113.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1997a). 출생시의 성비불균형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출생시의 성비불균형 현상은 사회의 각 부문에 편재하는 여성차별과 강한 남아선호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선호의 강도가 강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출생시의 성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구상에는 자녀의 특정 성을 선호하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여아를 선호하거나 양성을 모두 선호하는 사회, 그리고 성에 대한 선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회도 존재한다(Lee, 1995, 1997; Wongboonsin and Ruffolo, 1995; Limanonda, 1997). 일반적으로 동양의 유교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Anderson and Silver, 1995). 특히, 한국과 중국은 남아선호의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두 나라에서 모두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성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인구의 성별구성은 출생성비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차별사망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성비, 즉 남자사망률대 여자사망률의 백분비는 지난 10년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70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남녀간 사망률의 격차가 좁혀지는 데 주로 기인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1995년 현재 사망률성비는 127.8로, 남자사망률이 여자사망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1997a).

이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성별 인구구성이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왜곡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추세와 지역적인 편차를 설명하고, 남녀의 차별사망력이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논문은 성별 인구구성이 왜곡되는 과정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우선 1960년 이후 성별 및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1995년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출생 및 사망신고자료를 토대로 출생성비의 최근 변화추세와 지역적인 편차, 그리고 남녀의 차별사망력에 설명의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성별구성 왜곡의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남녀인구의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인 방안들도 논의된다.

제2절. 성별 인구구성의 변화추세

우리 나라 인구는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치고 선진국형의 안정형태에 접근하게 된다(Kim, 1992; 김두섭, 1993). 특히 출산력은 모든 사람의 예측을 벗어난 매우 괄목할 만한 감소를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1986년에 1.6 수준까지 내려갔고 이 수준이 1990년까지 지속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20대 후반 및 30대 여성의 출산율 증가로 합계출산율이 약간 상승하여 1992년에 1.8을 기록하였고, 1995년 현재는 1.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통계청, 1997a). 그러나 이러한 소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출산력은 선진국의 낮은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며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 이하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인구변천을 마치고 안정상태로 진입한 1980년대 중반부터 남녀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1>은 1960-1995년 기간의 남녀인구 규모와 전체인구 및 0-4세 인구의 성비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전체인구의 성비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며 안정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의 남녀인구는 각각 1,255만 명과 1,246만 명으로서 성비는 100.7이었다. 전체인구의 성비는 1960년대에 약간씩 상승하여 1970년에는 102.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75년에 전체인구의 성비는 101.4로 집계되었으며, 1980년의 101.8을 기점으로 그후 점차 감소하여 1995년에는 100.7의 수준으로 저하하였다.

<표 11-1> 남녀인구 및 성비의 변화추세, 1960-1995

연 도	전체인구	남자인구	여자인구	성비(전체)	성비(0-4세)
1960	25,012,374	12,550,691	12,461,683	100.7	108.0
1965	28,704,674	14,452,831	14,251,843	101.4	107.6
1970	32,240,827	16,308,607	15,932,220	102.4	108.1
1975	35,280,725	17,765,828	17,514,897	101.4	109.5
1980	38,123,775	19,235,736	18,888,039	101.8	107.2
1985	40,805,744	20,575,600	20,230,144	101.7	107.8
1990	42,869,283	21,568,181	21,301,102	101.3	112.0
1995*	44,553,710	22,357,352	22,196,358	100.7	113.4

주: 1) 이 표에서 1960-1990년의 기간은 통계청(조사통계국)의 추계연앙인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연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집계결과임.

자료: 조사통계국(1988); 통계청(1991, 1997c).

일반적으로 전체인구의 성비는 후진국일수록 높고, 선진국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로 UN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전세계인구의 성비는 101.5이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진국의 성비는 94.4로 여자인구가 더 많고, 개발도상국의 성비는 103.4로 남자인구가 더 많다. 아시아국가들의 평균성비는 104.6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1997b). 몇몇 주요 국가들의 성비는 다음과 같다: 미국 95.1, 영국 95.3, 일본 96.7, 프랑스 94.9, 중국 106.0, 필리핀 102.9, 그리고 태국 98.3(김태헌 외, 1993).

<표 1>에는 또한 과거 5년간 출생시의 성비를 반영하는 0-4세 인구의 성비가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생성비는 전체인구의 성비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성비는 102-107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United Nations, 1993; Weeks, 1989). 그러나 전통적으로 남아선호관이 강한 우리 나라는 출생성비가 비교적 높아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108에 근접하는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출생성비는 1975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인 109.5로 집계된 바 있다.

그런데 출산력이 낮은 수준의 안정상태로 진입한 1980년대 후반기부터 여아에 비해 남아의 출생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1>에서 1990년과 1995년 0-4세 인구의 성비는 각각 112.0과 113.4로 나타나 1985년 이후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같은 연도의 전체인구성비에 비해서는 무려 10.7과 12.7 포인트가 더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 인구구성의 변화추세를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1960-1995년 기간중의 성비의 변화를 5세 간격의 연령집단별로 작성하였다. <표 2>를 보면,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0-4세 연령집단의 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가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출생성비는 높은 수준이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의 사망력이 여자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50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결정적으로 성별 사망력의 격차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성비가 급격히 낮아진다. 예를 들어, 1995년 현재 8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27.4에 불과하다.

<표 2>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1960년의 경우 25-39세의 성비가 두드러지게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하에서 세계2차대전을 겪으면서, 그리고 1950-1953년 한국전쟁의 기간동안 이들 연령층에서 남자의 사망력이 여자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한국전쟁의 기간중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피난민들의 상당 부분이 청장년층의 남자인구로 구성되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연령층의 성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징병과 징용으로 동원되었다 해방후에 국내로 귀환하지 않은 남자인구의 규모도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35-39세 연령층의 성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표 11-2> 연령집단별 성비의 변화추세, 1960-199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0-4	108.0	107.6	108.1	109.5	107.2	107.8	112.0	113.4
5-9	107.2	107.8	107.7	107.4	107.9	106.6	107.1	110.7
10-14	105.6	106.9	107.7	107.9	107.1	106.5	106.5	106.4
15-19	106.8	105.1	106.8	107.0	107.7	106.4	106.0	105.9
20-24	101.7	106.3	104.8	104.4	103.1	104.6	105.3	108.3
25-29	98.8	101.1	106.9	103.6	106.4	104.4	104.1	100.9
30-34	90.3	97.3	102.0	102.6	109.5	111.2	104.1	103.0
35-39	99.3	90.5	97.2	103.5	105.2	106.2	106.2	103.6
40-44	102.9	98.0	90.2	95.2	104.0	106.3	105.3	105.9
45-49	98.1	100.9	96.3	86.9	95.9	102.7	103.9	104.9
50-54	93.6	95.3	98.3	93.3	84.6	93.3	100.3	99.4
55-59	85.2	89.8	91.0	89.9	87.6	81.4	87.5	93.3
60-64	80.0	80.2	83.4	82.7	84.2	80.1	75.3	82.0
65-69	66.0*	75.9	71.6	72.2	73.1	74.2	72.5	67.5
70이상	-	60.1	68.8	50.4	51.0	52.4	52.7	53.1
전체인구	100.7	101.4	102.4	101.4	101.8	101.7	101.3	100.7

주: 1) 이 표에서 1960-1990년의 기간은 통계청(조사통계국)의 추계연앙인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연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성비임.

3)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집계결과임.

자료: 조사통계국(1988); 통계청(1991, 1997c).

<표 2>를 보면, 1960년 25-39세에 해당되는 연령층의 낮은 성비는 1965년 이후에도 5세씩 더해가면서 이어진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아래 연령층의 성비와의 편차도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남자의 사망력이 여자의 사망력보다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55-59세와 60-64세 연령집단의 성비는 각각 93.3과 82.0으로, 그 차이는 무려 11.3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30여년간 사망력의 수준이 꾸준히 저하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녀간 사망률의 절대적인 격차는 점차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986-1995년의 기간동안만을 보아도 남녀간 사망률의 격차는 31.6%나 감소하였다(통계청, 1997a: 11). <표 2>에서 남녀인구가 균형을 이루는 연령은 1960년에는 20대 중반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50대에 들어와서야 성비가 100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남녀간 사망률의 절대적인 격차가 점차 축소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전체인구의 성비는 앞으로 상승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성별 인구구성의 지역별 편차

출생성비와 남녀간 사망률의 격차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다. 또한 도시와 농촌, 또는 행정구역간에 특정 성에 선택적인 인구이동이 상당한 규모로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다면 성비는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게 될 것이다. <표 3>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85년, 1990년 및 199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인구와 0-4세 남녀인구의 지역별 성비를 작성한 것이다.

<표 3>에서 전체인구의 성비를 보면 1990년에 이르기까지는 읍·면부(邑·面部)가 동부(洞部)보다 약간 더 높았다. 이는 지난 30여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젊은 여자인구가 농촌에서 대거 빠져나가 도시로 이동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인구의 78.5%가 동부에 거주하게 된 1995년에는, 비록 그 편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동부의 성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부 인구의 성비는 1995년에 101.2로 1990년 대비 0.7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나, 읍·면부의 성비는 99.2로

1.9 포인트 감소하였다.

행정구역에 따른 전체인구의 성비를 보면, 대도시 중에서는 1995년 현재 대전의 성비가 102.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천의 성비도 102.0으로 높게 나타난다. 대전의 경우는 40대와 50대 연령층의 성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각종 공공시설의 대전 이전에 따라 40대와 50대 연령층의 남자들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이동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부산과 광주의 전체인구의 성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성비는 1995년에 100.9로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성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또한, 전국의 9개 도(道) 중에서는 1985년 104.3을 기록한 강원도의 성비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표 3>에서 전체인구의 성비는 1995년 현재 강원도가 102.1로 가장 높고, 다음은 경기도, 경상남도과 충청남도의 순서로 높다. 반면에 제주도는 97.2로 가장 낮은 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인구 성비의 이러한 편차들은 결국 지역에 따라 출생성비, 남녀간 차별사망력, 그리고 성(性) 선택적인 지역간 인구이동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1995년 현재	1995년 현재	1995년 현재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100.9	100.9	100.9	100.9	100.9	100.9
부산	97.2	97.2	97.2	97.2	97.2	97.2
광주	97.2	97.2	97.2	97.2	97.2	97.2
대전	102.2	102.2	102.2	102.2	102.2	102.2
인천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경기도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경상남도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충청남도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충청북도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강원도	104.3	104.3	104.3	104.3	104.3	104.3
제주도	97.2	97.2	97.2	97.2	97.2	97.2

<표 II - 3> 전체인구와 0-4세 인구의 지역별 성비의 변화추세, 1985-1995

지역	전체인구			0-4세인구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전국	100.2	100.7	100.7	108.0	111.2	113.4
동부	99.2	100.5	101.2	108.6	111.4	113.4
읍·면부	102.1	101.1	99.2	106.7	110.5	113.4
서울	99.0	100.7	100.9	108.9	110.2	111.7
부산	97.6	98.2	99.3	108.6	111.6	117.4
대구	98.1	99.8	101.5	112.3	125.2	122.8
인천	99.7	101.3	102.0	107.6	107.4	110.8
광주	-	100.6	99.4	-	108.0	109.9
대전	-	102.1	102.2	-	115.4	113.8
경기	101.0	101.4	102.0	106.5	108.0	110.7
강원	104.3	103.1	102.1	106.4	107.4	110.9
충북	103.3	100.6	100.5	107.0	111.1	114.2
충남	101.5	102.9	101.1	107.6	109.2	112.1
전북	100.0	99.1	98.3	106.8	106.6	109.3
전남	101.4	102.1	98.2	107.4	107.5	109.8
경북	101.0	100.0	99.6	109.0	121.7	121.3
경남	100.7	100.6	101.2	107.9	115.2	118.6
제주	96.2	97.7	97.2	107.3	111.0	110.6

주: 1) 해당 연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결과임.

2) 1985년 광주와 대전의 인구는 각각 전남과 충남의 인구에 포함되었음.

자료: 조사통계국(1987); 통계청(1992, 1997c).

우리는 <표 3>에서 0-4세 인구의 경우, 성비불균형의 심화현상이 동부에서만 아니라 읍·면부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1985년 읍·면부의 성비는 106.7로 동부보다 1.9 포인트가 낮았지만, 1995년에는 113.4로 상승하여 동부와 같은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표 3>을 보면 출생시의 성비불균형은 대구,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5년 0-4세 인구의 성비는 대구와 경상북도가 각각 122.8과 121.3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두 지역의 성비도 전국평균값보다 4 포인트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전라북도와 강원도의 0-4세 인구의 성비는 일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5년에는 각각 109.3과 110.9를 기록하였다. 또한 경기도,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출생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 중에서는 광주와 인천, 그리고 서울에서 0-4세 인구의 성비가 전국의 평균 성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4>는 최근의 출생성비 변화추세를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1995년 현재 4세 이하 인구의 성비를 지역별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심화현상은 1990년대 들어와서도 지속되다가, 대체로 1993-1994년을 기점으로 출생성비가 약간씩이나마 저하하기 시작하는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부와 읍·면부지역을 막론하고 1세 인구의 성비가 가장 높고, 0세 인구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성비를 나타낸다. 부산, 대구, 경상북도 등 지역에 따라서는 반전의 시점이 1년 더 빨라서 2세 인구의 성비가 가장 높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비가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리고 1990-1995년의 기간동안 출생성비의 상승이 동부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를 보면 동부에서 0세 인구의 성비는 4세 인구의 성비에 비해 2.2 포인트가 높은 수준이지만, 읍·면부지역에서 그 격차는 3.1 포인트에 이른다. 또한, 4세 인구의 성비는 동부가 111.6으로 읍·면부보다 0.5 포인트 정도 높으나, 2세 이하의 연령집단에서는 읍·면부의 성비가 동부보다 오히려 높다.

<표 II - 4> 4세 이하 인구의 지역별 성비, 1995

	0세	1세	2세	3세	4세	0-4세
전국	113.8	114.8	114.2	112.7	111.5	113.4
동부	113.8	114.8	114.0	112.8	111.6	113.4
읍·면부	114.2	115.0	114.7	112.3	111.1	113.4
서울	112.1	113.0	112.3	110.7	110.0	111.7
부산	117.8	118.5	118.9	116.4	115.4	117.4
대구	118.4	121.3	125.0	123.9	125.3	122.8
인천	113.0	113.0	111.4	107.7	109.0	110.8
광주	107.4	111.0	111.3	109.6	110.0	109.9
대전	113.5	117.0	114.7	112.3	111.7	113.8
경기	112.2	112.1	111.0	110.3	107.9	110.7
강원	112.4	113.2	111.8	108.6	108.7	110.9
충북	115.3	115.8	113.2	115.9	110.9	114.2
충남	113.7	114.5	112.0	111.4	109.1	112.1
전북	110.5	111.5	109.2	108.2	107.4	109.3
전남	111.1	111.3	109.6	108.4	108.8	109.8
경북	119.6	122.0	122.6	120.8	121.4	121.3
경남	118.9	120.2	120.1	119.0	114.8	118.6
제주	110.5	113.4	110.3	111.1	107.3	110.6

자료: 통계청(1997c).

<표 4>에서도 출생시의 성비불균형은 역시 대구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과 부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구의 2세와 4세 인구는 남자가 여자보다 무려 25% 이상이 더 많다. 경상북도의 1세와 2세 인구의 성비도 122를 상회한다. 반면, 서울과 전라남도의 0-4세 인구의 성비는 전국의 평균 성비보다 낮은 수준이고, 1990년대에 들어와 성비변화의 폭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영남지역의 출생성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대구,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지역이 출산력 수준이나 이상자녀수, 확대가족 구성비율, 가족계획 실천율등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뚜렷한 격차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이들 지역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더 많거나, 성감별을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더 많이 보급된 것도 아니다. 단지 이들 영남지역이 문화적으로 남녀간에 차별의식이나 남아선호관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지방에서는 지난 30여년간 가장 많은 남자 정치엘리트가 배출되었고, 소위 TK라 불리는 지역정서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도 이들 지역에서 남녀간의 차별의식이나 남아선호관이 강한 이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김두섭, 1994, 1997; 김한곤, 1994; Kim, 1995, 1997).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부산과 경상남도의 0-4세 인구의 성비가 최근에 와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경우에는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부터 추정된 0-4세 인구의 성비가 111.6으로 전국의 평균수준을 크게 웃돌지 않았다(김두섭, 1994; Kim, 1995). 그러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 0-4세 인구의 성비가 117.4로 집계되어, 성비의 불균형이 급격하게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과 경상남도를 정치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대통령이 1990년대 초에 집권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급격하게 많은 남자 정치엘리트들이 배출되고, 소위 PK라 불리는 지역정서가 강화되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아들을 가지고자 하는 보다 강한 동기가 형성되고 성선택 출산행위가 보다 많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Kim, 1997).

<표 5>는 성별 인구구성이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차이 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년 전체인구 및 0-4세 인구의 성비를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작성한 것이다. 이 표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의 중북부지역에서는 전체인구의 성비가 동부에서 읍·면부지역보

다 낮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등 남부지역에서는 반대로 동부의 성비가 읍·면부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한편, 0-4세 인구의 경우에는 동부와 읍·면부의 성비평균값이 모두 113.4로 집계되었다. <표 5>에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는 동부의 성비가 읍·면부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나 그 격차는 별로 크지 않다. 그리고 1995년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대구광역시에도 포함된 외곽지역의 성비가 12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위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간 편차의 규칙적인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와도 그 양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김두섭, 1994, 1997).

<표 II- 5> 전체인구와 0-4세 인구의 지역별 성비, 1995

	전체인구			0-4세인구		
	동부	읍·면부	합계	동부	읍·면부	합계
전국	101.2	99.2	100.7	113.4	11.4	113.4
서울	100.9	-	100.9	111.7	-	111.7
부산	99.4	96.3	99.3	117.4	114.7	117.4
대구	101.3	105.7	101.5	122.7	123.3	122.8
인천	102.2	96.1	102.0	110.7	111.6	110.8
광주	99.4	-	99.4	109.9	-	109.9
대전	102.2	-	102.2	113.8	-	113.8
경기	101.8	102.8	102.0	111.1	109.1	110.7
강원	101.2	103.2	102.1	110.6	111.3	110.9
충북	100.1	101.0	100.5	114.1	114.4	114.2
충남	100.1	101.5	101.1	111.0	112.7	112.1
전북	99.6	96.2	98.3	109.0	110.3	109.3
전남	102.0	95.9	98.2	110.2	109.3	109.8
경북	102.2	97.4	99.6	121.1	121.6	121.3
경남	103.8	96.7	101.2	118.7	118.5	118.6
제주	97.7	96.2	97.2	111.4	108.2	110.6

자료: 통계청(1997c).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도시의 규모에 따른 성비의 차이를 연령집단별로 분석하였다. <표 6>에서 0-4세 인구는 광역시의 성비가 115.5로 가장 높고, 서울이 111.7로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시의 0-4세 인구의 성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대구와 부산의 성비가 두드러지게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성별 인구구성의 문제점으로는 출생성비의 불균형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관찰되는 특정 연령층의 성비불균형을 들 수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청·장년층의 성비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노총각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해당 연령층 전체인구의 남녀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젊은 여자인구가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대량으로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초래된 결과이다(Kwon, 1990).

<표 6>은 20-24세의 연령집단에서 서울, 광역시, 그리고 동부의 성비가 낮고, 읍·면부지역의 성비가 높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특히, 읍·면부지역에서 20-24세 연령집단의 성비는 무려 152.5에 달하고 있다. 비록 그 편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양상은 20대 후반부터 40대 전반까지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표 II- 6> 연령집단 및 지역별 성비, 1995

	서울	광역시*	동부	읍·면부	합계
0-4	111.7	115.5	113.4	113.4	113.4
5-9	110.5	113.1	111.4	108.1	110.7
10-14	109.6	108.3	107.7	101.5	106.4
15-19	107.7	106.3	106.4	104.0	105.9
20-24	99.7	101.5	100.4	152.5	108.3
25-29	103.6	98.2	98.7	113.5	100.9
30-34	106.2	100.3	101.8	109.0	103.0
35-39	95.6	100.9	102.0	111.5	103.6
40-44	96.2	104.7	105.8	106.4	105.9
45-49	100.0	105.1	106.0	100.6	104.9
50-54	106.6	102.7	104.5	86.5	99.4
55-59	105.1	95.7	98.4	84.2	93.3
60-64	91.5	82.3	84.1	78.9	82.0
65-69	68.5	64.8	65.5	70.5	67.5
70이상	48.4	47.8	48.3	59.9	53.1
전체인구	100.9	100.7	101.2	99.2	100.7

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포함.

자료: 통계청(1997c).

그러나 <표 6>을 보면 45세에서 65세에 이르는 연령집단에서는 여자인구의 이동성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읍·면부지역의 성비는 급격히 떨어져, 도시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50대와 60대 전반의 연령집단에서 서울의 성비는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즉, 도시지역의 여성노동력 수요가 주로 젊은 연령층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40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여자인구의 도시집중이 남자에 비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읍·면부지역에서 도시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표 6>에서는 상세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그 편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노령인구의 경우, 남녀간의 차별사망력이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등 몇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제4절. 성비불균형의 원인

한 나라의 인구규모와 구조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의 세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1950년대 중반이후 인구의 국제이동이 대체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70년대 초반에는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으로 인하여 해외로 빠져나간 순이동인구가 한해에 4만명 정도에 육박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우리 나라의 인구규모나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해외이주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우리 나라의 인구는 폐쇄인구의 성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널리 인정된다(김두섭, 1988; 권태환과 김두섭, 1990).

<표 7>에는 1991-1995년 기간의 순국제이동인구가 성별 및 연령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1990년대 전반 5년의 기간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순이동인구는 14.8만명이다. 순이동인구는 유학 및 취업과 관련된 20대 연령층이 가장 많으며, 40대 중반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60대 중반부터는 역

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순국제이동인구의 성별구성을 보면, 남녀가 각각 39.9%와 60.1%로 여자가 월등히 많다. 순이동인구에 대한 여자인구의 비중은 10대 후반과 20대 및 30대 연령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특히 25-29세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여자인구가 남자의 2.4배에 이른다. 그러나 그 절대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이동이 우리 나라 인구의 성별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순이동인구의 규모가 미미한 다른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표 II - 7> 연령집단 및 성별 순국제이동인구, 1991-1995

	남자	여자	합계
0-4	-6,764	-8,623	-15,387
5-9	-4,399	-5,838	-10,237
10-14	-6,414	-7,957	-14,371
15-19	-4,215	-8,753	-12,968
20-24	-15,311	-18,863	-34,175
25-29	-4,691	-11,175	-15,866
30-34	-4,663	-8,534	-13,197
35-39	-5,383	-9,580	-14,964
40-44	-4,533	-5,458	-9,991
45-49	-2,123	-3,255	-5,377
50-54	-607	-1,425	-2,032
55-59	-585	-754	-1,339
60-64	105	-140	-35
65-69	-22	265	243
70이상	385	876	1,261
전체인구	-59,220	-89,214	-148,434

자료: 통계청(1996a: 33).

결국, 우리 나라 인구의 성별구성은 주로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결정지워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앞에서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생 및 사망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출생성비와 남녀 사망력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1. 성선택 출산

우선, <표 8>에는 출생성비의 변화추세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1981-1995년 기간의 출생성비가 출산순위별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 표에서도 출생성비가 1980년대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3년과 1994년에 정점인 115.5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113.4로 집계되었다. 출생신고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에 출생성비가 116.6으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1990년이 말띠 해였기 때문에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표 8>에서 1989년과 1991년의 출생성비는 과소추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지만, 1986년과 1988년에 출생성비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도 역시 여아의 출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범띠와 용띠의 해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두번째 이후 출산아들의 출생성비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8>을 보면, 출산순위가 뒤로 갈수록 출생성비가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그 절대수는 많지 않지만, 세번째와 네번째 출산아의 경우에는 1989년 이후 출생성비가 무려 200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첫번째 출산아의 출생성비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95년 첫번째 출산아의 출생성비는 지극히 정상적인 값인 105.9로 집계되었다.

<표 II - 8> 출산순위별 출생성비의 추이, 1981-1995

	첫번째 출산아	두번째 출산아	세번째 출산아	네번째 출산아	합계
1981	106.3	106.7	107.1	112.9	107.2
1982	105.4	106.0	109.2	113.6	106.8
1983	105.8	106.2	111.8	120.0	107.4
1984	106.1	107.2	116.9	128.1	108.3
1985	106.0	107.8	129.2	146.8	109.4
1986	107.3	111.2	138.6	149.9	111.7
1987	104.7	109.1	134.9	148.8	108.8
1988	107.2	113.3	165.4	183.3	113.3
1989	104.1	112.5	183.1	201.1	111.8
1990	108.6	117.2	190.8	214.1	116.6
1991	105.8	112.6	181.4	201.3	112.5
1992	106.3	112.6	194.1	220.1	113.8
1993	106.6	114.8	205.3	246.7	115.5
1994	106.1	114.3	205.9	237.7	115.5
1995	105.9	111.8	179.4	213.9	113.4

자료: 통계청(1996a: 31).

통계청(1997a)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의 출생아수는 72.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영아사망 미신고와 지연신고분을 추정하여 포함한 수치이다. <표 9>는 1995년에 출생신고된 출산아의 출산순위별 성비를 지역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도 역시 첫번째 출산아의 경우에는 성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광주,

충청남도, 제주도 등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산순위가 뒤로 갈수록 성비가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구, 부산, 경상남도과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성비의 상승추세가 특히 두드러져, 3번째 이후 출산아의 성비가 무려 220을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II - 9> 지역별 및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1995

지역	첫번째 출산아	두번째 출산아	세번째 출산아	네번째이후 출산아	합계
전 국	105.9	111.8	179.4	213.9	113.4
서 울	105.9	109.5	183.8	239.2	111.1
부 산	107.4	115.5	248.4	365.7	117.3
대 구	104.1	118.2	271.2	260.7	117.1
인 천	105.5	112.2	183.7	211.3	112.7
광 주	104.0	103.6	136.1	190.2	107.8
대 전	107.6	111.2	187.9	212.3	114.6
경 기	105.6	109.2	179.1	228.6	111.6
강 원	106.6	111.7	145.2	189.8	112.8
충 북	107.5	111.2	173.0	284.2	115.0
충 남	106.6	106.4	153.8	181.9	111.8
전 북	109.6	110.0	126.0	161.4	112.7
전 남	105.7	110.8	125.4	155.0	111.5
경 북	103.9	120.6	220.9	264.7	118.7
경 남	105.5	118.8	254.0	277.9	119.3
제 주	108.6	106.4	138.0	215.3	112.9

자료: 통계청(1996b).

출산순위가 뒤로 갈수록 성비가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출생성비를 계산해 보아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10>을 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2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출생성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든 지역에서 출생성비가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어머니의 연령이 20-24세의 경우 1995년 전국의 출생성비는 106.9였으나, 30-34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각각 122.4과 135.6으로 현저하게 높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부산, 대구,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30세가 넘어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10>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10-19세인 경우, 출생성비가 일부 지역에서 100의 수준에 못 미치거나, 반대로 광주, 강원도, 충청남도 등에서 다소간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례수가 별로 크지 않은 데 기인하는 현상이다.

<표 11- 10> 지역별 및 어머니의 연령별 출생성비, 1995

어머니의 연령

	10-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합계
전 국	105.7	106.9	111.1	122.4	135.6	127.5	113.4
서 울	108.5	105.2	108.8	117.2	127.5	133.7	111.1
부 산	109.4	110.2	113.5	129.9	140.0	150.5	117.3
대 구	95.5	107.3	115.2	126.3	158.1	126.2	117.1
인 천	98.9	105.4	110.9	121.2	141.8	112.3	112.7
광 주	118.0	101.7	105.5	114.9	138.3	-	107.8
대 전	86.3	106.5	113.9	124.3	120.8	-	114.6
경 기	108.1	106.0	109.4	119.6	133.1	109.5	111.6
강 원	117.8	105.7	112.1	118.5	130.5	116.7	112.8
충 북	93.7	106.4	113.8	129.7	139.1	-	115.0
충 남	116.7	106.3	107.6	124.4	141.3	141.1	111.8
전 북	107.8	107.8	111.8	117.4	134.6	123.9	112.7
전 남	100.0	111.0	109.7	115.3	123.8	135.0	111.5
경 북	108.5	107.8	116.4	138.1	136.6	124.7	118.7
경 남	101.7	111.0	114.6	139.1	164.4	137.3	119.3
제 주	-	102.0	112.8	119.4	126.0	-	112.9

주: 출산남아 또는 여아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성비를 계산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1996b).

이상 살펴본 사실들은 결국, 자녀를 이미 가지고 있는 30대 중반 이후 어머니들의 성선택 출산행위와 인공임신중절이 우리나라 출생성비의 상승추세와 지역별 격차를 주도해 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선택 출산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도 상당부분이 성선택 출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태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공임신중절은 1991년에 43만건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소규모 표본조사에 근거한 추정값으로 그 신뢰도가 높지 않다(보건사회부, 1994). 일부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1년에 약 70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데 비해서, 인공임신중절은 100만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한곤, 1994).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결국 성선택 출산행위에 의하여 초래되는 것이다. 김두섭(1997; Kim, 1997)은 성선택 출산행위가 네가지 요인, 즉 남아선호관, 기존자녀의 수와 성별구성, 희망하는 자녀수 및 의료기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틀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출생시의 성비불균형 현상은 사회의 각 부문에 편재하는 여성차별과 강한 남아선호관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가부장제와 유교적인 의식구조의 영향을 받아 아들을 갖지 못한 부인은 온갖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한다는 강한 집념이 형성되었다. 남아를 선호하는 의식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편재하고 있으며, 성선택 출산행위를 동기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아선호관의 강도는 한 나라 내에서도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대구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부산지역에서 출생시의 성비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도 결국은 이들 영남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남녀간에 차별의식과 남아선호관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Kim, 1995, 1997).

둘째로, 성선택 출산행위는 현재의 출산력수준, 즉 기존의 자녀수와 성별구성의 영향을 받는다. 딸만 있는 상황에서 남아선호가 강하면,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성선택 출산행위의 동기화는 강해질 것이다. 반대로, 한명이나 그 이상의 아들이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동기화의 강도는 약할 것이다.

셋째로, 성선택 출산행위는 희망하는 자녀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희망하

는 자녀수가 적으면 확률적으로 아들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선택 출산의 동기화는 강해지고, 성선택 출산행위가 출생성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기 마련이다. 대가족을 선호하던 과거에는 아들을 얻을 때까지 출산행위를 계속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출산수준을 높히는 역할을 하였을 뿐,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가족가치나 규범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무조건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자녀수를 많이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출산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강한 남아선호관은 출산수준을 오히려 낮추고 출생시의 성비를 높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김두섭은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밝힌바 있다(Kim, 1995).

마지막으로, 성선택 출산행위는 결국 의료기술과 시설에 의하여 조건지워 진다. 위에 언급된 세가지 요인들은 성선택 출산행위의 필요조건 일뿐,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태아의 성을 감별해내고 그 결과에 따라 성선택 인공임신중절(낙태)하는 의료기술이 가용하지 않으면, 성선택 출산행위의 동기가 강하다 하더라도 출생성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출생성비가 상승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은 태아의 성을 미리 감별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기술과 시설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최근에는 양수검사, 융모막검사등의 방법이 개발되어 임신초기(8-12주)에 태아의 성을 정확히 알 수 있다(Park and Cho, 1994).다.

현행 의료법상 태아의 성감별은 불법 진료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감별 및 성선택 인공임신중절에 수반되는 경제적 및 심리적 경비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태아의 성감별을 통하여 아들만을 선택출산하고, 만약 딸로 판정이 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 모든 사회계층에서 그러하며, 따라서 전국적으로 출생성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남녀의 차별사망력

인구의 성별구성은 남녀간 사망력의 격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는 인구의 성별구성을 각 연령집단별로 볼 때 특히 그러하다. 만약 남녀간 사망력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고, 장기간 지속되면 각 연령집단의 성별구성이 왜곡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미 살펴본 출생성비의 불균형현상과 아울러 남녀간

사망력의 격차가 우리 나라 인구의 성별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통계청(1977a)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의 사망자수는 2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1986년과 1990년에 비해서 각각 0.6%와 1.4%가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인구 천명당 연간 사망자의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1995년에 아주 낮은 수준인 5.4‰로 집계되었다.

<표 11>은 사망신고자료를 토대로 1986-1995년 기간 남녀의 사망률과 사망률성비를 연령집단별로 작성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연령별 사망률은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고연령층에 비해서 저연령층 사망률의 감소 정도가 다소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남자의 경우에는 1986-1995년의 기간동안 5-9세와 10-14세 연령집단에서 그 감소율이 각각 44.4%와 33.3%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는 5-9세, 10-14세, 35-39세, 그리고 40-44세 연령집단에서 감소율이 40% 이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70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남자보다 여자사망률의 상대적인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지난 30여년간 남녀간 사망률의 절대적인 격차는 꾸준히 축소되어 왔다.

<표 11-11> 연령집단 및 성별 사망률과 사망률성비의 추이, 1986-1995

	남자사망률(‰)			여자사망률(‰)			사망률성비		
	1986	1990	1995	1986	1990	1995	1986	1990	1995
0- 4	3.4	3.2	2.4	3.3	2.8	2.1	105.2	112.4	115.1
5- 9	0.9	0.7	0.5	0.8	0.5	0.3	118.3	128.6	137.8
10-14	0.6	0.5	0.4	0.5	0.4	0.3	129.3	138.5	157.9
15-19	1.5	1.2	1.1	0.8	0.5	0.5	180.7	225.4	216.0
20-24	1.7	1.5	1.2	0.9	0.7	0.6	191.7	200.1	202.8
25-29	2.3	1.9	1.6	1.1	0.8	0.7	214.8	220.8	240.1
30-34	2.7	2.5	1.9	1.3	1.0	0.8	214.5	252.0	257.8
35-39	4.1	3.7	2.9	1.8	1.4	1.0	227.9	267.6	280.9
40-44	6.5	5.4	4.6	2.7	2.0	1.6	243.3	264.5	288.7
45-49	10.0	9.0	6.8	3.7	3.4	2.3	266.9	264.6	288.2
50-54	13.7	12.3	10.3	5.5	4.7	3.6	249.2	262.8	282.0
55-59	19.7	17.1	15.1	8.1	6.9	5.6	241.9	248.9	272.2
60-64	30.5	26.6	22.7	12.3	11.1	9.0	247.8	240.5	252.2
65-69	47.8	40.6	35.6	21.6	18.5	15.8	220.8	219.9	225.5
70-74	72.0	64.0	56.1	36.4	32.9	29.5	197.6	194.4	190.4
75-79	116.3	96.2	87.1	62.0	56.0	52.9	187.6	171.9	164.6
80*	231.2	185.3	155.3	148.5	137.0	121.6	155.7	135.2	127.7
전 체 인 구	6.9	6.6	6.1	5.0	4.9	4.8	137.5	132.7	127.8

자료: 통계청(1996b: 20-23).

<표 11>에서 남자의 사망률은 1995년 현재 남자인구 천명당 6.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6년의 6.9명에 비해 11.6%가 감소한 수준이다. 남자사망률은 40대에 들어오면 천명당 거의 5명꼴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50대 전반에는 10명, 60대 전반에는 23명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진다. 한편, 여자의 사망률은 1995년에 천명당 4.8명으로 추정되었으며, 1986년에 비해 4.0%가 감소하였다. 1995년의 경우, 여자의 사망률은 50대 후반에 이르면 천명당 6명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60대 전반에 9명, 그리고 60대 후반에 16명의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진다.

남자사망률이 여자사망률보다 얼마나 더 높은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망률성비라는 지표가 널리 사용된다. 사망률성비는 남자사망률대 여자사망률의 비(ratio)를 취하여 100을 곱한 값으로 표시된다. <표 11>을 보면, 모든 연령집단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사망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사망률성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1995년의 사망률성비는 127.8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사망률성비의 감소추세는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7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남녀간 사망률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률성비를 연령집단별로 보면, 특히 15-69세의 연령층에서 남녀 사망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의 경우, 15-19세 연령집단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2배를 넘기 시작하여 40대에 이르면 2.9배 정도로 격차가 최고에 이른다. 그 후에는 연령의 상승과 함께 사망률성비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성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남자에 비해 여자사망률의 상대적인 감소폭이 더 컸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단지 7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남녀간 사망률의 격차가 좁혀져 사망률성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 분석에 있어서 특히 유아의 사망률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출생성비가 높아지면 유아사망자의 성비 역시 높아질 개연성을 지닌다. 더구나 유아의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뚜렷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유아사망자의 성비는 출생성비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남아선호의 정도가 강한 사회에서 여아의 사망률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관찰된다(Anderson and Liu, 1997; Anderson *et al.*, 1997). 여아에 대한 차별이 영양부실이나 각종 사고에의 노출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여아의 유기나 살해가 저질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강한 남아선호관으로 인한 출생성비의 상승이 여아의 사망률을 높이는 방향으

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는 1985-1995년 기간 0-4세 유아의 사망신고자료를 행정구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이 표에서 우리는 유아사망자수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995년 한해에 사망한 유아는 3,786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85년과 1990년에 비해 각각 52.5%와 18.6%가 감소한 규모이다.

<표 11-12> 지역별 및 성별 0-4세 유아사망자의 수와 성비, 1985-1995

	1985			1990			1995		
	남자	여자	성비	남자	여자	성비	남자	여자	성비
전 국	4,300	3,666	117.3	2,591	2,048	126.5	2,139	1,647	129.9
서 울	644	559	115.2	451	339	133.0	369	306	120.6
부 산	318	249	127.7	216	149	145.0	125	85	147.1
대 구	144	126	114.3	149	94	158.5	113	88	128.4
인 천	120	113	106.2	103	92	112.0	113	94	120.2
광 주	*	*	*	62	64	96.9	73	60	121.7
대 전	*	*	*	57	56	101.8	76	49	155.1
경 기	505	433	116.6	423	332	127.4	419	329	127.4
강 원	268	216	124.1	93	89	104.5	68	59	115.3
충 북	243	187	130.0	80	68	117.7	85	54	157.4
충 남	305	287	106.3	121	95	127.4	87	62	140.3
전 북	261	229	114.0	133	122	109.0	103	85	121.2
전 남	584	506	115.4	221	177	124.9	124	102	121.6
경 북	383	328	116.8	189	156	121.2	145	107	135.5
경 남	465	388	119.9	262	194	135.1	213	146	145.9
제 주	53	41	-	31	21	-	23	18	-

주: 1) * 1985년 광주와 대전의 유아사망자는 각각 전남과 충남의 유아사망자에 포함되었음.

2) - 남아 또는 여아사망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성비를 계산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1995, 1996b).

이 표에서 유아사망자의 성비를 보면, 1985년에 117.3이었으나, 1990년과 1995년에는 각각 126.5와 129.9로 현저하게 높아졌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유아사망자의 성비 역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부산,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서 1990년과 1995년 유아사망자의 성비가 1985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에는 1995년 유아사망자의 성비가 128.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1994년의 성비는 179.4로 집계되었다(김두섭, 1997). 한편, 행정구역중 유아사망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의 성비는 전국의 평균값에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망력에 관한 이상의 자료들은 우리 나라의 사망률이 선진국의 낮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남녀간 사망력의 격차가 전체인구나 각 연령층의 성별구성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킨다는 뚜렷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유아 연령층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절대수가 작기 때문에 성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남자의 사망률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여자보다 높기 때문에 연령의 상승과 함께 성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함께 남녀간 사망률의 절대적인 격차 역시 꾸준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각 연령층의 성비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로, 1960년에는 20대 중반이후 성비가 100 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1995년에는 그 연령이 50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제5절. 향후 인구전망과 성별 구성

최근 통계청(1996a)의 장래인구 중위추계에 의하면, 향후 우리 나라 인구는 2000년에 4,727.5만명에 이르고 2008년경에 5천만명 수준을 돌파하여, 2020년에 5,23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8년의 5,277.6만명을 정점으로 우리 나라 인구는 점차 감소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의 연앙인구(7월 1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과 2028년에 각각 16.1%와 17.0% 정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 추계작업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인구자료를 기초로 1990년 이후의 출생, 사망 및 국제이동에 관한 실적자료와 이의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이루어

졌다. 따라서 출산력은 1995년 현재의 합계출산율인 1.74의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지, 결혼연령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령별 출산율구조의 변화를 반영시켰다. 사망력의 전체적인 수준과 남녀간 사망률의 격차도 최근의 감소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국제인구이동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준인 3만명 정도가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하였다.

이 추계작업에서 출생성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높은 수준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출생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고조와 태아 성감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최근에 출생성비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2015년경에는 정상적인 출생성비인 107.0에 도달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추계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전체인구는 앞으로도 남녀균형을 그런대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수준의 출생성비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전체인구의 성비는 2010년대 중반까지 소폭 상승할 것이다. 그후에는 노령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성비가 점차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그 변화의 폭은 매우 작아 1995년의 101.4에서부터 0.4 포인트를 넘지 않는다.

<표 11-13> 전체인구와 결혼적령인구의 추계규모와 성비 추이, 1970-2020

연도	전체 인구(1,000명)			결혼적령인구(1,000명)		
	남자	여자	성비	남자	여자	성비
1970	16,309	15,932	102.4	1,207	1,254	96.2
1980	19,236	18,888	101.8	1,584	2,015	78.6
1985	20,576	20,230	101.7	2,093	2,089	100.2
1990	21,568	21,301	101.3	2,252	2,054	109.6
1995	22,705	22,388	101.4	2,173	2,172	100.0
2000	23,832	23,443	101.7	2,273	1,977	115.0
2005	24,778	24,345	101.8	1,963	1,915	102.5
2010	25,537	25,081	101.8	1,989	1,612	123.4
2020	26,384	25,974	101.6	1,778	1,630	109.0

주: 1985년까지는 남자 25-29세, 여자 20-24세를 결혼적령기로 보았으며, 1990년 이후에는 남자 26-30세, 여자 23-27세를 결혼적령기로 간주하였음.

자료: 통계청(1996a: 40, 47).

한편, 결혼적령인구의 성비추세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결혼적령기의 남녀인구는, 1980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균형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결혼적령기를 남자 26-30세, 여자 23-27세로 간주하였을 때, 1995년을 분수령으로 결혼적령인구의 성비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15.0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표 13>에서 2005년경에는 일시적으로 성비가 102.5의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 다시 성비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2010년에는 결혼적령기의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를 23.4%나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적령기 남녀인구규모의 불균형은 혼인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이런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과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고 미혼율을 높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10 여년간, 젊은 여자들이 대거 도시로 빠져나간 농촌지역에서 결혼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노총각이 많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가령 동부와 읍·면부의 평균초혼연령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남녀 공히 동부에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5년과 1990년에는 읍·면부지역의 남자 평균초혼연령이 동부에서 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권태환 외, 1996; 김두섭, 1997).

제6절. 사회 정책적 과제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남녀인구의 불균형은 결국 출생성비의 문제로 귀착된다. 물론, 인구의 성별 구성은 남녀간 사망력의 격차와 성 선택적인 인구이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사망력의 수준이 아주 낮아지면서 남녀간 사망률의 절대적인 격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의 성별구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또한, 국제이동을 통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으로 들어났으나, 그 격차의 절대규모가 작기 때문에 남녀인구의 균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단지, 지난 10여년간 농촌 여성들의 과도한 도시이동으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청장년 연령층의 남녀균형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현상과 사회의 각 부분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는 밀접한 관계를 지

난다. 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바뀌게 되면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사람은 성에 따라 사고나 행위형태가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거나 범주화할 때 성은 연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가부장제와 유교적 의식구조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특히 더 그러하다. 우리가 남녀인구의 균형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별 인구구조의 왜곡이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의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녀인구의 불균형이 초래하게 될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게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이들 세대의 성격형성과 사회화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을 지적할 수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남녀학생의 균형이 깨짐에 따라 동성이나 이성에 대해 비정상적인 생각과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자녀수의 감소와 아들편중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내에서도 성역할의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사회화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가족관계와 친족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여기서 만약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일수록 성선택출산을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가정하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은 더욱 낮아지고, 이는 계층별 출산수준의 차이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인구 및 계층구조의 불안정성과 아울러 인구자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녀인구의 불균형은 노동시장에도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인구의 성비가 깨지거나 큰 폭으로 변화하면 특정 성의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다시 사회의 각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에도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녀인구의 불균형은 혼인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여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고 미혼율을 높히게 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들어와 읍·면부에서 남자의 평균초혼연령 상승폭이 커진 것은 인구가동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서 결혼적령기 남녀인구의 균형이 깨어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현재의 높은 출생성비가 지속되면 앞으로 혼인력의 왜곡현상은 농촌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출생아 수의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남녀간 혼인연령의 격차가 현재보다 더 커진다면, 결혼적령기에 도달하는 남녀인구규모의 격차도 늘어나게 되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배우자선택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미혼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각종 범죄, 동성애, 약물중독, 자살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늘어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지난 30여년간 출산력 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인구변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나라는 1910년대에 들어와 사망력이 저하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출산력과 사망력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과거 서구 유럽국가들에서는 인구변천에 150-20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 나라는 70-80년의 짧은 기간에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친 셈이다.

인구변천이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그만큼 급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남녀인구 불균형의 문제 이외에도 신규 노동력의 공급부족, 노동력의 여성화 및 노령화, 노인인구 부양부담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에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발전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과잉인구로 인한 압박에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남녀인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으로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정책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성감별을 통한 남아의 선별출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고, 그후에도 행정처분을 계속 강화하는 방법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여 왔다(김태현, 1993).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남아의 선별출산과 여아의 인공임신중절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1990년대 중반에 접근하면서 출생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고조와 태아 성감별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단속으로 출생성비가 조금씩 낮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태아의 성감별과 성선택 출산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성선택출산과 관계 없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규제되어야 한다. 그 동안 가족계획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인공임신중절이 산아제한의 한 방편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김두섭, 1988). 또한, 젊은 미혼여성들의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태아의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나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인공임신중절을 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생명의 중시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의 차원에서도 인공임신중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

남녀인구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정책은 사회의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남녀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가족계획사업은 강한 남아선호를 출산력 저하의 장애요인으로 규정하고, 아들을 선호하는 태도, 규범 및 가치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비해,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나 평등한 대우, 여성 전문인력의 양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남녀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 교육기관, 가정에서는 물론, 언론기관과 각종 사회단체들의 의식전환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남녀간 사망력의 격차와 국제인구이동은 성별 인구구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단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자세한 논의를 요하지 않는다. 단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복지와 보건의 향상을 위해 사망력을 더욱 낮은 수준으로 저하시키고, 아울러 남녀간 사망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나 계층을 설정하여 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내실화시키는 것도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 해외이주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기본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동안 해외이주인구의 규모는 그리 크지않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국제이동인구의 성별구성을 보면, 여자의 비중이 남자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지만 그 절대수가 작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게다가 국외로의 이민자수는 1990년대에 들어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역이민자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인구이동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남북 관계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이나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북한에서 남한의 도시지역으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북한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숙련노동자의 경우에 그러할 것이다. 인구이동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파급효과를 지닌다. 만약, 인구이동의 속도와 규모를 적절한 수준 이내로 통제하지 못하면, 통일 후 남한과 북한지역 모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남북간의 인구이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농촌지역에서의 남녀 인구 불균형 역시 장기적인 사회정책의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인구가 줄어들고 농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 농촌의 젊은 여자들이 대거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보다 좋은 삶의 환경을 추구하여 이동하는 것이다. 농촌이 황폐해지고, 농업이 위축되면 우리 사회의 건실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시와 아울러 농촌도 균형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발전은 단순히 농업부문에의 투자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의 생활환경과 후생복지의 개선을 통하여 농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농업을 경시하는 가치관을 교정하고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전환이 필요하다. 농촌이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되고 농민이 생업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게 될 때, 비로소 과도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남녀인구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권태환 · 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 김태현, 김두섭, 전광희, 은기수. 1996. {한국의 출산력변천과 인구전망}, 통계청.
- 김두섭. 1988. "한국의 인구정책: 1960-1985," {인간과 경험} 제1권,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pp. 95-118.
- . 1993. "한반도의 인구변천, 1910-1990: 남북한의 비교," {통일문제연구} 제5권 4호, 통일원, pp. 202-235.
- . 1994. "한국인구의 성별구성의 최근 변화," {사회과학논총} 제13집, 한양대학교, pp. 273-296.
- . 1997.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지역별 격차," 권태환, 김태현, 김두섭, 전광희, 은기수(공저), {한국출산력변천의 이해} 일신사, pp. 132-160.
- 김태현. 1993.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제16권 2호, pp. 1-23.
- 김태현, 홍문식, 장영식. 1993.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1990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4-1), 통계청.
- 김한곤. 1994. "대구 · 경북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1994년 후기사학회대회 발표논문.
- 보건사회부. 1994. "결혼적령인구 성비변화 자료," 보건사회부 1994년 국회국정감사자료.
- 조사통계국. 1987. {1985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 1988. {1960-1985 추계인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통계청. 1991. {장래인구추계 (1990-2021)}, 통계청.
- . 1992.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 . 1995. {인구동태통계연보, 1994}, 통계청.
- . 1996a.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 1996b. {1995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 1997a. {1995년 인구동태통계결과}, 통계청.

----- . 1997b. {1995 인구주택총조사 최종 전수집계 결과}, 통계청.

----- . 1997c.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출산을 예측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간담회 자료.

Anderson, Barbara A., Doo-Sub Kim and John H. Romani. 1997. "Health
Personnel, Son Preference, and Infant Mortality in China," Population
Studies Center Research Report No. 97-401, University of Michigan.

Anderson, Barbara A. and Jinyun Liu. 1997. "Son Preference and Excess
Female Infant Mortality among Koreans and non-Koreans in Yanbian
Prefecture, Jilin Province, China with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For Koreans in Korea
and China*, eds. Doo-Sub Kim and Barbara A. Anderson, Seoul, Korea:
Hanyang University Press.

Anderson, Barbara A. and Silver, Brian D. 1995. "Ethnic Differences in
Fertility and Sex Ratios at Birth in China: Evidence from Xinjiang,"
Population Studies, 49.2(July): 211-226.

Kim, Doo-Sub. 1992.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In *Fertility Transitions, Family Structure, and
Policy: Studies in Honor of Sidney Goldstein*, ed. Calvin Goldscheider,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 1995. "Recent Uprising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Asia
Journal*, 2.1(June): 69-85.

----- . 1997. "Sex Preference of Koreans and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Sex Ratio at Birth: Evidence from Korea and Jilin Province, China,"

In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For Koreans in Korea and China*, eds. Doo-Sub Kim and Barbara A. Anderson, Seoul, Korea: Hanyang University Press.

Kwon, Tai-Hwan. 1990. "The Trends and Patterns of Urbanward Migration in Korea, 1960-1985," In *Urbanization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ed. Bui Dang Ha Doan, CICRED Inter-Center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Pusan, Korea: Survey Research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Kwon, Tai-Hwan, Lee, H.Y., Chang, Y. and Yu, E.Y. 1975. *The Population of Korea*, Seoul,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ung Yong. 1995. *The Effect of the Value of Children on Sex Preference: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maic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 1997. "Gender Preference,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Family System: The Cases of Korea and Jamaica," In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For Koreans in Korea and China*, eds. Doo-Sub Kim and Barbara A. Anderson, Seoul, Korea: Hanyang University Press.

Limanonda, Bhassorn. 1997. "Preference for Sex of Children,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The Case of Thailand," In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For Koreans in Korea and China*, eds. Doo-Sub Kim and Barbara A. Anderson, Seoul, Korea: Hanyang University Press.

Park, Chai Bin and Cho, Nam-Hoon. 1994. "Gender Preference and Sex Imbalance in the Population and Their Implications in Korea,"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7.1: 87-114.

United Nations. 1993.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the World Popul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Weeks, John R. 1989.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3rd Ed., Belmont, Cal.: Wadsworth Inc.

Wongboonsin, Kua and Ruffolo, Vipana Prachuabmoh. 1995. "Sex Preference
for Children in Thailand and Some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10.3: 43-62.

제3장. 가구와 가족의 변화

제1절. 서론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변화를 겪은 사회조직 중의 하나는 가족이다. 가족의 외형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성원들간의 관계도 한국 사회의 변동과 함께 변해왔다. 전통시대나 산업사회를 불문하고 대가족이 아니라 소가족이 주를 이루어 가족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빈번한 인구이동은 소규모의 가족을 둘 혹은 셋 이상의 가구로 분화시키곤 했다. 인구이동은 향도이동의 경향속에서 가족전체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화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동력의 조건에 부합하는 성과 연령층만 선택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한 가족이 다 가구로 분화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여기에 출산력이 빠른 속도로 대체수준까지 떨어져 가족 혹은 가구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1995년 현재 일반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3.4명수준으로까지 감소하였다.¹⁾

지난 30-40년간 산업화와 도시화로 특징지어지는 거대한 사회변동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가구에 관련된 몇가지 주요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농촌가족의 급격한 변동이다. 지난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속에서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해왔다.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가족을 단위로 도시로 이주하거나, 젊은 연령층이 도시나 공업지대의 노동력으로 흡수됨에 따라 농촌의 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촌의 인구규모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 못지 않게 인구구조자체가 급격히 변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대부분 젊은 층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대규모 이농후 농촌에는 장년이나 노년인구가 주로 남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농촌인구는 더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나이든 노부부만의 부부가구나 사별한 남자 혹은 여자의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농촌가족이 해체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농촌가족은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는 1인가구의 증가이다. 이미 1990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도 1인가구의 증

1.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인 수준에서 일반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3.4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3.45명, 읍부의 경우 3.37명, 면부의 경우 3.12명이다.

가가 가구 및 가족성격변화 흐름의 주요한 양상으로 지적되었었는데(권태환·박영진, 1995), 1990년 이후에도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농촌의 경우 젊은 층들이 이농하고 농촌에 남은 노부부 가운데 한 명이 죽고 남은 한 명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도시나 공장지대 등에서는 젊은이들에 의한 1인가구의 형성이 주된 경향이다. 또 이혼이나 직장이동 등으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도 있을 것이다. 1인가구의 증가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 및 가구변화의 주요 흐름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는 여성가구주와 노인가구주의 증가이다. 이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추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일어나는데 이 경우 여성가구주와 노인가구주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지금까지 간단히 언급한 가족과 가구변화의 주요흐름은 주로 인구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외에도 결혼연령의 상승, 자녀수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이혼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확대 등 한국 가족과 가구변화의 주요한 원인이자 그 자체가 가족과 가구변화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측면들이 있다. 본 연구는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의 2% 표본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의 가족, 더 정확하게는 가구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한국 가족 및 가구변화의 세가지 주요한 흐름을 1995년 센서스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1995년의 가구 및 가족구조

이 장에서는 199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표본자료를 통해 1995년 현재 가구 및 가족구조를 분석한다.²⁾

1. 한국인의 가구 내에서의 지위

한국의 가구 및 가족구조의 해명을 위해 먼저 한국인들의 가구 및 가족 내에서

2. 가구는 크게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가구는 다시 혈연가구, 비혈연가구, 그리고 1인가구로 나뉘어진다. 이하의 분석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일반가구로 한정된다.

의 지위와 한국인들이 속해 있는 가구의 형태에 관해 분석한다.

<표III-1> 1995년 한국인의 가구내 지위

(단위: %)

관 계	남 자				여 자			
	전국	동부	읍부	면부	전국	동부	읍부	면부
가구주	51.18	50.40	51.77	55.41	10.02	9.44	10.30	13.16
가구주의 배우자	0.25	0.27	0.16	0.20	43.37	42.90	44.30	45.50
자녀	42.18	43.21	41.50	36.51	35.52	37.35	33.44	26.32
자녀의 배우자	0.11	0.12	0.09	0.10	1.41	1.19	1.87	2.44
가구주의 부모	0.95	0.83	1.10	1.61	4.64	4.07	5.31	7.47
배우자의 부모	0.07	0.07	0.07	0.07	0.44	0.45	0.35	0.43
손자녀, 그 배우자	1.81	1.48	2.49	3.34	1.58	1.31	2.10	2.82
중손자녀, 배우자	0.02	0.01	0.02	0.04	0.02	0.02	0.02	0.02
조부모	0.01	0.01	0.01	0.02	0.14	0.13	0.17	0.17
형제자매, 배우자	1.57	1.73	1.02	0.94	1.38	1.59	0.70	0.55
형제자매의자녀 및 그 배우자	0.25	0.27	0.17	0.21	0.22	0.24	0.16	0.15
기타 친인척	0.53	0.58	0.38	0.30	0.49	0.54	0.31	0.28
기타 동거인	1.06	1.02	1.21	1.23	0.78	0.78	0.99	0.69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1>은 가구 내에서 한국인 전체 남자와 여자가 점하고 있는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경우 대부분 가구주(51%)이거나 아니면 자녀(42%)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가구주의 배우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가 43%이고 자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36%이다. 한편 전체 여자 중 10%가 가구주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남자가 가구주의 배우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0.25%이다. 호주제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자가 가구주인 비율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수록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부보다는 읍부에서, 읍부보다는 면부에서 여자가 가구주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면부의 경우 전체 여자의 13%가 가구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보다 농촌에서 남녀평등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여자가 가구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여성의 가구주 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다. 이는 현재 농촌가족의 특성상 부부가족의 형태로 존재하던 가구에서 남성가구주의 사망으로 여성이 가구주의 지위를 승

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가구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가구주의 부모로서 나타나는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가구주의 부모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약 1%이고 면부에서 가장 높아 1.6%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 전국적인 수준에서 약 5%가 가구주의 부모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면부의 경우 여자의 7.5%가 가구주의 부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자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도 가구주로 남는 비율이 압도적임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성인자식의 가족이 양친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평균수명도 길고, 남편과의 연령차이로 인해 노년에 혼자 남을 확률이 높는데, 혼자되는 경우 여성가구주의 지위도 점하지만, 자식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남자와 여자의 가구내 지위는 도시와 농촌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³⁾ 도시보다 농촌에서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비율이 높고 반면에 자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낮다. 또 가구주의 부모의 지위를 차지하는 비율도 도시보다 농촌에서 높다. 이는 농촌에서 젊은 층이 도시로 떠나간 후 대신 나이 든 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구주 및 배우자로 이루어지는 부부가족 및 편부나 편모를 모시고 사는 직계가족 형태가 농촌에 많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흥미로운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하나는 혼인상태이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유형이지만 혼인전에도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들은 미혼상태로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별이나 이혼 등의 혼인상태를 지닌 이들이 가구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새로운 관심거리이다. 다음 <표2>는 혼인상태별로 가구내 지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유배우상태인 사람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혼의 경우 결혼할 때까지 자녀의 지위를 차지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1995년 인구센서스에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73%가 자녀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의 가구내 지위는 지역별로 의미 있는 차이

3. 이 글에서 동부는 도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읍부와 면부는 농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나 농촌 모두 미혼인 경우 자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자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반면에 농촌에서 도시로 갈수록 미혼으로 가구주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면부에서는 미혼의 경우 7.6%만이 가구주로 나타나지만 동부의 경우 면부보다 거의 두배에 가까운 14%가 가구주로 나타나 있다. 미혼이 가구주인 경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미혼에 의한 1인가구가 농촌지역보다 많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혼인상태별 가구내 지위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혼한 사람들의 가구내 지위에서 발견된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혼인상태가 이혼인 사람들의 약 80%가 가구주이다. 남녀가 함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가구가 분화되면서 남자나 여자 모두 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혼한 사람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녀의 지위를 점하는 비율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11%이다. 그러나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구내 지위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된다. 도시지역에서 이혼한 사람들의 81%는 가구주로 살아가고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그러나 읍부나 면부의 농촌지역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자녀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비율은 도시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면부의 경우 이혼한 사람들이 가구주인 경우는 64%인 반면 자녀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4%에 달하고 있다.

<표Ⅲ-2> 1995년 한국인의 혼인상태별 가구내 관계

(단위: %)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자녀	가구주의 부모	기타
전국					
미혼	13.45	0.00	73.30	0.02	13.22
유배우	48.58	46.04	1.90	1.18	2.30
사별	55.43	0.00	0.50	36.97	7.10
이혼	79.24	0.00	11.25	1.90	7.61
동부					
미혼	14.40	0.00	72.04	0.02	13.54
유배우	48.87	46.28	1.67	1.19	1.99
사별	52.61	0.00	0.48	38.86	8.05
이혼	81.41	0.00	9.44	1.92	7.23
읍부					
미혼	10.65	0.00	76.80	0.04	12.51
유배우	48.10	45.70	2.33	1.34	2.53
사별	58.72	0.00	0.67	34.69	5.92
이혼	75.52	0.00	14.55	1.85	8.08
면부					
미혼	7.63	0.00	81.24	0.05	11.08
유배우	47.36	44.97	2.83	1.79	3.05
사별	61.31	0.00	0.50	33.07	5.12
이혼	63.94	0.00	23.91	1.79	10.36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1995년 센서스결과는 이혼한 사람들의 가구내 지위에 특히 동부와 면부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도시지역에서는 이혼한 후 1인가구를 구성하거나 혹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구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이혼한 후 본가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사는 경향이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한국인들이 어떤 형태의 가구에 얼마나 많은 비율로 속해있는지 분석한다. 다음 <표3>과 <표4>는 한국인들이 속한 가구 및 가족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3>을 통해 한국인들이 속해 있는 가구형태를 살펴보자.

<표Ⅲ-3> 성별, 지역별 가구형태

(단위: %)

가구형태	남 자				여 자			
	전국	동부	읍부	면부	전국	동부	읍부	면부
혈연가구	95.37	95.31	95.80	95.42	94.67	95.47	93.60	90.75
비혈연가구	1.33	1.29	1.38	1.55	0.94	0.93	1.13	0.86
1인가구	3.30	3.40	2.82	3.04	4.39	3.60	5.27	8.39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성에 관계없이 전 국민의 95%는 혈연가구에 살고 있다. 면부에서 살고 있는 여자의 경우 혈연가구에 속해 있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지만, 전체적으로 혈연가구에 속해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비혈연가구에 속해 있는 비율이 지역에 관계없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표3>에서 우리는 1인가구에 속하는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도로나 농촌을 불문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직장, 학업, 이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표3>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혼자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농촌의 여자들이 혼자 살아가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앞의 <표2>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주로 사별한 여성들에 의한 1인가구의 증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에 속한 경우를 제외한 세대별가구에 한국인들이 어떤 비율로 속해있는지 분석해본다. 다음 <표4>는 성별, 지역별로 일반 국민들이 세대가구에 속해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Ⅲ-4> 성별, 지역별 세대가구형태

(단위: %)

세대가구형태	남 자				여 자			
	전국	동부	읍부	면부	전국	동부	읍부	면부
1세대가구	8.62	6.99	10.11	17.39	8.61	7.07	10.00	16.94
2세대가구	76.12	79.35	72.03	59.38	73.86	77.13	69.55	56.91
3세대이상가구	15.26	13.66	17.86	23.23	17.53	15.80	20.45	26.15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주: 1인가구 및 비혈연가구에 속한 사람은 제외됨.

위의 <표4>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각 세대가구유형에 속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도시와 농촌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성에 관계없이 2세대가구에 속한 비율이 약 75%정도이고 그 다음 3세대이상가구에 15-17% 정도의 한국인이 속해있다. 그러나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부부가족이 위주인 1세대가구나 부부, 미혼자녀 및 부모로 구성되는 3세대가구보다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을 위주로 하는 2세대가구에 포함되어 있다. 2세대가구에 속해있는 사

람들의 비율을 동부와 면부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20%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세대가구에 속해 있는 비율은 도시지역보다 낮다. 대신 1세대가구나 3세대가구에 속한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다. 면부의 경우 부부가족이 위주인 1세대가구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태인 3세대이상의 가구에 속한 비율이 최대 43%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표4>에서 제외한 1인가구에 속한 사람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2세대가구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낮아질 것이다. 부부 및 미혼자녀를 위주로 하는 핵가족이 면부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에서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고, 핵가족대신 1인가구, 노부부가 주가 된 부부가족, 여기에 혼자 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이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구구성과 가족구조

여기서는 1995년 현재 한국의 가구와 가족의 구성이 어떠한지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가구구성의 변화

먼저 <표5>를 통해 지난 5년간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등의 가구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자.

<표Ⅲ-5> 한국의 가구구성, 1990, 1995.

	1990		1995		1990-1995 증감	
	가구수	%	가구수	%	증감가구수	증감율
전국						
일반가구	11,354,540	99.81	12,958,181	99.75	1,603,641	14.1
1인가구	1,021,481	8.98	1,642,406	12.64	620,925	60.8
비친족가구	166,224	1.46	182,990	1.41	16,766	10.1
집단가구	15,620	0.14	16,013	0.12	393	2.5
외국인가구	6,556	0.06	17,110	0.13	10,554	161.0
총가구	11,376,716	100.01	12,991,304	100.00	1,614,588	14.2
동부						
일반가구	8,462,417	99.79	10,031,978	99.75	1,569,561	18.5
1인가구	723,595	8.53	1,185,514	11.79	461,919	63.8
비친족가구	135,597	1.60	147,070	1.46	11,773	8.7
집단가구	11,632	0.14	11,114	0.11	△518	△4.5
외국인가구	6,051	0.07	14,373	0.14	8,322	137.5
총가구	8,480,100	100.00	10,057,465	100.00	1,577,365	18.6
읍면부						
일반가구	2,892,123	99.84	2,926,203	99.74	34,080	1.2
1인가구	297,886	10.28	456,892	15.57	159,006	53.4
비친족가구	30,927	1.07	35,920	1.22	4,993	16.1
집단가구	3,988	0.14	4,899	0.17	911	22.8
외국인가구	505	0.02	2,737	0.09	2,232	442.0
총가구	2,896,616	100.00	2,933,839	100.00	37,223	1.3

출처: 1995 인구주택 총조사 최종 전수집계 결과, 1997. 통계청

1995년 현재 전국의 가구수는 약 1300만가구로 1990년 이래 약 160만가구가 늘어났다. 이는 5년 사이에 가구수가 14% 정도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가구증가의 약 98%가 도시지역에서 일어나 도시지역의 가구의 증가가 전체가구수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가구나 외국인가구도 늘고 있지만 가구의 절대수나 전체 가구수에서의 상대적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표5>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실은 1인가구의 증가이다. 1990년부터 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1인가구는 약 62만가구가 증가했고, 5년동안 증가율은 61%에 이르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총가구의 증가량에서 1인가구의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1990년부터 1995년의 5년 사이에 총 158만가구가 증가했는데 1인가구는 46만가구가 증가했다. 도시지역에서 1990년부터 1995년까지 1인가구의 증가율이 약 64%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로 이루어졌지만, 도시지역에서 1인가구의 증가량이

전체가구 증가량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이다. 반면에 도시지역에서 혈연가구는 약 110만 가구가 증가하여 전체 가구증가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지역의 가구수 증가가 한국 전체 가구수의 증가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 지난 5년동안 1인가구수의 증가도 매우 높은 비율로 이루어졌지만 도시지역의 가구증가는 혈연가구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촌지역에서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5년동안 총 3만7천 가구가 증가했다. 농촌지역 가구의 증가량이 한국 전체 가구증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지난 5년동안 농촌지역에서도 가구수의 절대량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가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가구의 증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농촌지역에서 1990년부터 1995년까지 1인가구는 약 16만 가구가 증가하여 5년동안 약 53%의 증가율을 보여준다. 이는 도시지역에서의 1인가구의 증가율보다 약 10% 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지난 5년 사이에 약 13만의 혈연가구가 감소하였다. 만약 1인가구가 이정도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농촌지역의 절대가구수는 5년동안 감소현상을 나타냈을 것이다. 즉 지난 5년동안 다른 유형의 가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1인가구는 같은기간동안 무려 16만가구가 증가하여 농촌지역 전체적으로 5년동안 약 3만4천가구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혈연가구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가 서로 연관되지 않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촌지역에서 대부분의 혈연가구의 감소는 혈연가구의 해체를 의미하고, 해체된 혈연가구가 1인가구로 변형되어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직업이동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에 의한 1인가구의 생성이 활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의 1인가구의 증가는 교육이나 직업이동 등의 이유로 기존의 가구와 무관하게 새로 형성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겠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주로 부부가족이 해체되어 1인가구로 변형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표5>는 농촌가족 및 가구변화의 상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론에서 밝힌대로 농촌가족이 급속한 변동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1인가구 및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2) 세대별 가구구성

한국의 가구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가 다음의 <표6>과 <표7>이다. 먼저 <표6>을 통해 가구구성의 유형을 살펴보자.

<표III-6> 지역별 세대가구구성

(단위: %)

세대가구형태	전 국	동 부	읍· 부	면 부
1세대가구	13.10	10.82	15.34	23.66
2세대가구	62.90	66.82	58.79	44.91
3세대이상가구	9.82	9.10	11.12	12.85
기타 ¹⁾	14.18	13.26	14.75	18.58
합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주: 1) 기타는 1인가구 및 비친족가구임.

전국적인 수준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구형태는 2세대가구이다. 전체가구중 약 63%의 가구가 2세대가구이다. 그 다음은 주로 '기타'의 범주에 속하는 1인가구이고 뒤를 이어 부부가족으로 주로 이루어진 1세대가구이다. 부모가 성인자식과 함께 사는 3세대이상가구는 전체 가구중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구구성비를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2세대가구가 67%에 달하고 그 다음이 1인가구를 위주로 하는 '기타'의 범주에 속하는 가구형태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가구구성비는 도시지역과 다르다. 읍부나 면부에서도 주된 가구형태는 2세대가구이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형태는 1세대가구이다. 이는 면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2세대가구가 전체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훨씬 못미친 반면, 부부가족을 위주로 하는 1세대가구가 전체가구의 24%, 1인가구를 위주로 하는 '기타'범주의 가구가 19%, 그리고 3세대이상가구도 13%를 차지하고 있다.

<표6>에 나타난 세대가구별 가구구성을 좀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가 <표7>에 제시되어 있다.

<표Ⅲ-7> 지역별 가구구조

(단위: %)

가 구 형 태	전 국	동 부	읍 부	면 부
1세대가구	13.10	10.82	15.34	23.66
부부	11.26	8.63	14.51	23.04
기타	1.84	2.19	0.83	0.62
2세대가구	62.90	66.82	58.79	44.91
부부+미혼자녀	49.89	53.72	46.59	31.97
편부모+미혼자녀	7.56	7.97	6.78	5.86
부부+양친	0.18	0.13	0.22	0.39
부부+편부모	0.79	0.46	1.12	2.29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1.00	1.19	0.57	0.27
부부+미혼손자녀	0.28	0.19	0.53	0.62
기타	3.21	3.17	2.98	3.52
3세대이상가구	9.82	9.10	11.12	12.85
부부+미혼자녀+양친	1.34	1.14	1.64	2.24
부부+미혼자녀+편부모	5.34	5.01	5.81	6.79
기타 ¹⁾	3.14	2.95	3.67	3.82
기타²⁾	14.18	13.26	14.75	18.58
합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주: 1) 3세대가구의 기타와 4세대이상가구가 포함됨.

2)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임.

전국적인 수준에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형태의 가구가 전 가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부부가족이 11%이고 그 뒤를 이어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세가지 유형의 가족을 핵가족으로 본다면 전국적인 수준에서 핵가족이 약 70%로 가장 중심적인 가족, 가구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도 역시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핵가족이 지배적인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핵가족이 지배적인 가족유형이라고 말한다면 한국의 가족 및 가구구성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 같은 핵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부부가족과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그리고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유형사이에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실례로 동부와 면부의 핵가족을 비교해보자. 동부의 경우 핵가족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전체가족중 54%이고, 부부만의

부부가족이나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각각 9%와 8%로 나타난다. 그러나 면부의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이 전체가족 중 32%를 차지하고 있고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부부가족이 23%이다.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전체가족 중 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왜 동부에서는 부부가족보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이 월등하게 많고, 면부에서는 부부가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는 농촌지역의 핵가족이란 형태상으로 조작적 정의에 따른 핵가족이지 실질적으로는 젊은 자녀들이 모두 농촌을 떠나 나이는 부부만 남아 핵가족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세대가구별 분류를 떠나 부모 모두 혹은 한 쪽만이라도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따로 분류해보면 동부는 그런 가구가 전체가구중 약 10%이고 읍부는 약 12.5%인 반면, 면부는 약 16%에 달한다. 따라서 성인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의 형태는 아직 농촌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

(3) 가구주의 특성

이 절에서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해보자. <표8>은 한국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가구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부와 읍부의 경우 83-84%의 가구주가 남자이다. 반면에 면부에서는 약 80%의 가구주가 남성이고 여성가구주도 20%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전국적인 수준에서 30대가 약 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로 약 23%이다. 30대와 40대를 합하면 전체가구주의 반절이상이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10대와 20대 가구주는 약 12%이고 60대이상 가구주는 16%이다.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젊은 가구주의 비율이 높다. 30-40대의 가구주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20대 및 그 미만인 가구주는 10%, 60대이상 가구주는 약 10%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동부에서 읍부, 읍부에서 면부로 갈수록 가구주의 노령화현상이 두드러진다. 읍부의 경우에도 30-40대가 전체가구주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면부의 경우 불과 34%만이 30-40대 가구주이다. 특히 면부의 경우 50대 가구주가 전체의 23%, 60대이상 가구주가 37%에 달해 전체가구주의 60%가 50대이상 가구주로 가구주의 노령화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전체가구주의 약 37%가 고졸학력이고 대학교 및 그 이상의 학력도 21%에 달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가구주의 41%가 고졸의 학력을 지니고 있고 대학교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가구주도 25%이다. 무학이나 국교졸업 등의 저학력의 가구주는 도시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지않다. 그러나 농촌으로 갈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아진다. 읍부는 중학교 교육수준을 경계로 그보다 낮은 무학 혹은 국졸의 교육수준인 가구주의 전체가구주 중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가구주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면부의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동부나 읍부의 가구주의 교육수준보다 훨씬 낮다. 면부의 경우 가구주의 약 60%가 무학이나 국교졸업의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고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가구주는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가구주의 연령분포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농촌의 연로한 가구주들의 교육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 도시의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농촌지역보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도 지역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약 78%의 가구주가 유배우상태이고 그 다음이 사별의 경우로 11%이며 미혼이 9%로 그 뒤를 잇는다. 도시지역의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전국적인 수준의 가구주의 혼인상태와 거의 유사하다. 농촌지역과 비교해보면 농촌지역보다 미혼과 이혼상태의 가구주가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반대로 농촌지역에서는 미혼과 이혼상태인 가구주의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적음을 뜻한다. 도시지역에서 미혼의 가구주가 전체가구주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 11%인데 반해, 면부의 경우 미혼의 가구주는 약 4%에 불과하다. 반면에 도시지역에서 가구주가 사별인 경우는 약 9%이지만 면부의 경우는 20%를 넘고 있다.

<표III-8>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전 국	동 부	읍 부	면 부
성				
남 자	83.13	83.85	82.80	79.59
여 자	16.87	16.15	17.20	20.41
연령				
-19	0.74	0.80	0.92	0.33
20 - 24	3.09	3.61	1.96	1.06
25 - 29	8.28	9.39	6.64	3.49
30 - 34	14.46	15.92	13.88	7.27
35 - 39	16.08	17.54	14.72	9.27
40 - 44	12.84	13.85	10.97	8.63
45 - 49	10.61	11.07	9.29	8.93
50 - 54	9.13	8.90	9.06	10.36
55 - 59	8.43	7.35	9.71	13.32
60 - 64	6.68	5.19	8.52	13.41
65 +	9.65	6.39	14.33	23.92
교육수준				
무학	7.24	3.76	12.06	22.54
국교	16.38	11.82	23.58	35.97
중학교	14.62	14.32	16.74	15.02
고등학교	36.78	40.58	33.12	19.18
전문대	4.09	4.63	3.33	1.70
대학교이상	20.89	24.88	11.17	5.60
혼인상태				
미혼	9.40	10.86	6.06	3.68
유배우	77.51	78.00	78.18	74.63
사별	10.85	8.63	14.20	20.42
이혼	2.24	2.51	1.55	1.27
경제활동상태				
주로 일함	79.41	79.32	79.42	79.87
가사+일함	1.18	0.81	1.63	2.97
학교+일함	0.14	0.18	0.04	0.03
기타+일함	0.20	0.18	0.17	0.35
잠시 쉬	0.50	0.56	0.47	0.22
구직중	3.41	3.86	2.79	1.42
가사	6.27	6.47	6.02	5.34
학교	1.51	1.76	0.97	0.48
연료, 연소, 질	7.38	6.86	8.48	9.49
병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가구주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1인가구의 경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지 못하다면 다른 가구원에 의해 부양을 받아야 한다. <표 8>에 나타난 결과는 80%의 가구주는 1995년 현재 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의 7-10%는 연로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고 피 부양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가구주 가운데 약 17%를 점하고 있는 여성가구주 가운데 약 6%는 직접 일하지 않고 가사만을 전담한 채 다른 가구원의 돈벌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3. 1인가구의 특성

우리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한국 가족 및 가구의 성격변화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의미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1인가구는 동부에 71%, 읍부에 8.4%, 그리고 면부에 20%가 분포되어 있다.

<표III-9>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지 역	동 부	읍 부	면 부	합
구성비	71.24	8.36	20.40	100.00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 절에서 우리는 1인가구의 특성을 좀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1) 1인가구주의 특성

먼저 1인가구주의 특성을 분석해보자. 다음 <표10>은 1인가구주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1인가구주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전국적으로는 여자 1인가구주가 58%인데 반해 남자 1인가구주는 42%이다. 도시보다 농촌에서 여자 1인가구주의 비율이 더 높아 읍부는 66%, 면부는 무려 75%의 1인가구주가 여자이다.

연령별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60대 이상이 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대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1인가구주의 연령별 특성이 뚜렷하게 달

라지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20대 1인가구주의 비율이 약 40%에 육박하고 있고, 30대와 60대 1인가구주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 특히 면부에서는 60대이상 1인가구주가 압도적으로 많다. 면부의 경우 60대 이상이 66%, 50대가 17%인 반면 20대 1인가구주는 약 6%에 불과하다. 성과 연령을 함께 고려해볼 때 농촌지역에서 50-60대 여자들의 1인가구주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인가구주의 특성은 교육수준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도시지역의 경우 1인가구주들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및 그 이상인 비율이 63%인데 반해 읍부의 경우 약 60%, 그리고 면부의 경우 80% 이상이 국민학교 및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1인가구주의 특성은 혼인상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도시지역은 미혼의 1인가구주가 반절을 넘고 있고 사별인 경우는 23%이다. 그러나 읍부의 경우 55%, 면부의 경우 76%의 1인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사별이고 미혼인 경우는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비율로는 크지 않지만 도시지역에서 8%의 1인가구주가 이혼상태이고, 반면에 면부는 3%만이 이혼상태로 1인가구주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1인가구주의 지역별 특성은 경제활동상태에서도 잘 드러난다.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1인가구주는 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제활동상태에서 도시의 경우 학교에 다니거나 구직중인 비율이 15% 이상인데 반해, 읍부나 면부는 각각 8%와 3%에 그치고 있다.

<표 III-10> 1인가구주의 특성

(단위: %)

	전 국	동 부	읍 부	면 부
성				
남 자	42.06	47.87	33.92	25.13
여 자	57.94	52.13	66.08	74.87
연령				
10대	3.02	3.66	3.36	0.73
20대	29.49	38.22	15.44	5.68
30대	15.71	19.62	9.75	4.90
40대	8.92	9.72	8.46	6.39
50대	11.17	9.12	15.04	16.52
60대	31.69	19.66	47.95	65.78
교육수준				
무학	22.24	10.91	37.58	55.53
국교	16.70	13.72	21.62	25.11
중학교	10.60	12.26	8.87	5.50
고등학교	30.40	37.96	19.95	8.26
전문대	4.54	5.76	3.03	0.89
대학교	13.93	17.40	8.05	4.25
대학원이상	1.59	2.00	0.89	0.45
혼인상태				
미혼	45.40	57.67	26.56	10.30
유배우	11.28	10.99	13.76	11.29
사별	36.63	23.29	55.12	75.62
이혼	6.69	8.05	4.56	2.79
경제활동상태				
주로 일함	56.51	59.15	50.73	49.64
가사+일함	3.05	1.58	3.60	7.96
학교+일함	0.47	0.64	0.11	0.06
기타+일함	0.27	0.23	0.25	0.41
잠시 쉬	0.62	0.75	0.50	0.20
구직중	5.91	7.34	3.74	1.83
가사	14.47	12.95	18.89	17.98
학교	6.37	8.10	3.99	1.30
연로, 연소, 질	12.33	9.27	18.18	20.61
병중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 도시지역 20대 1인가구주의 특성

1인가구주의 특성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20대 1인가구주 및 60세이상 1인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도시지역의 20대 1인가구주의 특성을 분석해보자. 다음 <표11>은 도시지역의 20대 1인가구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11> 도시지역의 20대 1인가구주의 특성
(단위:%)

	남 자	여 자
교육수준		
무학	0.09	0.09
국교	0.68	0.62
중학교	4.33	4.12
고등학교	48.01	56.60
전문대	10.48	11.29
대학교	34.32	25.98
대학원이상	2.08	1.29
혼인상태		
미혼	76.19	55.71
유배우	23.65	43.97
사별	0.02	0.10
이혼	0.14	0.22
경제활동상태		
주요 일함	63.31	42.41
구직중	10.55	5.99
가사	0.67	35.86
학교	20.51	11.82
기타	4.96	3.92

출처: 1995 인구및주택총조사 2%표본자료

먼저 도시지역 남자 20대 1인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자. 교육수준을 보면 20대에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을 획득한 비율은 48%이다. 전문대학 및 대학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비율도 역시 47%에 이르러 남자 20대 1인 가구주의 학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대 1인가구주의 대부분(76%)은 미혼이고 결혼을 했으면서도 부부가 떨어져 살아 남자 혼자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24%에 달한다. 20대 남자 1인가구주의 63%가 현재 일하고 있고 그 다음 21%는 아직도 학생이며 11%는 구직중에 있다.

도시지역 여자 20대 1인가구주의 경우도 역시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57%가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고, 38%가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을 획득하고 있다. 여자 20대 1인가구주의 절반이상(56%)이 미혼이지만, 유배우 상태이면서도 1인가구주인 경우도 44%이다. 이점은 20대 남자 1인가구주와 뚜렷이 구분되는 점의 하나이다. 42%의 여성 20대 1인가구주는 일을 하고 있고, 36%는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 여성 20대 1인가구주도 12%에 달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도시지역에서 20대 미혼으로 고등학교나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남자 1인가구주가 대표적인 모습의 하나이고, 여성의 경우 미혼이거나 혹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역시 고등학교나 그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니고 일을 하거나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1인가구주가 대표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유배우상태이면서 1인가구주인 경우 각 가족의 독특한 가족전략에 따라 부부가 따로 가구를 형성하여 살고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배우상태로 가사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1인가구주인 경우 남편의 직장이나 주택문제 등 여러 가지 가족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전략에 따라 1인가구주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분명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3) 60세이상 1인가구주의 특성

이번에는 인구의 노령화현상을 감안하여 60세 이상 1인가구주의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다음 <표12>는 60세이상 1인가구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2> 60세이상 1인가구주의 특성

(단위: %)

	전 국	동 부	읍 부	면 부
성				
남 자	14.03	15.96	11.86	12.71
여 자	85.97	84.04	88.14	87.29
교육수준				
무학	63.28	48.27	73.11	75.54
국교	26.91	34.22	21.42	21.16
중학교 이상	9.81	17.51	5.47	3.30
혼인상태				
미혼	0.47	0.87	0.31	0.11
유배우	5.62	7.29	5.39	4.01
사별	91.83	88.61	92.84	94.79
이혼	2.07	3.23	1.46	1.09
경제활동상태				
주로 일함	27.00	15.31	27.04	38.80
가사+일함	5.89	2.85	5.93	8.95
가사	32.17	41.43	30.28	23.37
연로, 질병중	33.45	37.94	35.67	28.27
기타	1.49	2.47	1.08	0.61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먼저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을 불문하고 1인가구주의 성비는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동부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84%이고 읍부의 경우 88%로 가장 높다. 대체로 1인가구주의 84-88%정도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반 이상이 국교 혹은 중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농촌지역의 1인가구주는 거의 3/4에 이르는 많은 수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교육을 받았어도 국민학교 교육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로는 지역에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사별상태에 있다. 즉 도시나 농촌 모두 사별한 60대 여자들이 60대 이상 1인가구주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가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연로 혹은 질병중인 비율이 높고 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읍부만 해도 60대 1인가구주들이 연로 혹은 가사에 종사하는 비율이 주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지만, 면부에서는 거의 40%에 가까운 60대이상의 1인가구주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

다. 이는 농촌지역의 가족이 해체되고 농촌에 남아있는 60대이상의 사별한 여자들이 1인가구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이들의 경제적 처지가 도시지역의 동일한 상황에 있는 여자와 비교해보아도 매우 열악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4. 핵가족의 특성

산업화에 따라 가족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형태로 바뀐다는 근대화론 혹은 구조기능주의론적인 설명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보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되었다. 피터 라스렛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캠브리지그룹이 주로 영국의 인구 및 가족의 기록을 토대로 가족을 재구성한 결과 전통사회에서도 이미 핵가족이 주된 가족형태였음을 밝힌 이래 산업화로 인해 핵가족이 진전된다는 논의는 많이 부정되어 왔다 (Laslett, 1972).⁴⁾ 한국의 경우에도 전통시대에는 높은 사망률과 낮은 평균수명으로 인해 대가족은 이념으로만 존재했을뿐 실제로는 핵가족형태의 소가족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다. 가족의 형태면에서만 본다면 분명히 전통사회나 근대사회를 막론하고 소가족이 주를 이루었고, 가족의 주기면에서도 핵가족형태가 더 긴 시기를 점했을 것은 분명하다.

유럽 등 산업화를 경험한 사회에서 핵가족명제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근대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가족형태 및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변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양식에 가족이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가족의 모습이 바로 핵가족이라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Seccombe, 1992; Shorter 1975). 다소 길지만 핵가족에 관한 논의의 핵심의 한 예를 소개한다.

“핵가족은 어떤 특정한 가구구조나 가구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정신 상태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지 혹은 메어리 숙모가 다른 침실에서 자는 등과 핵가족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또한 친족구조의 그림표나 가족규모에 관한 수치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없다. 서구사회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을 다른 형태의 가족과 구분짓는 것은 가족을 둘러싼 커뮤니티로부터 한 가족의 사적인 가족생활을 분리시키는 연대감이다. 핵가족의 성원들은 핵가족 외부의 사람들과 보다는 핵가족 성원들 사이에 더 공감하는 측면이 많다고 느낀다. 그들은 사생활의 존중과 외부와의 격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간섭에서 꼭 보호되어야 하는 특권적인 감정을 즐기고 있다고 느낀다” (Shorter, 1975:205).

4 라스렛을 중심으로 한 캠브리지그룹의 가족연구도 한계가 많다. 특히 가족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파악함으로써 가족이 아니라 가구에 관한 분석이 된점이 가장 큰 한계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핵가족에 관한 논의는 지나치게 형태의 면에서만 논의되었다. 사실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핵가족에 관한 논의는 형태상의 논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횡단면적인 센서스에 나타난 결과는 가족성원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 실마리도 던져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태상의 핵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상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핵가족을 부부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편부모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 앞의 <표7>에서 핵가족의 비율을 재구성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핵가족의 구성

가족형태	(단위: %)			
	전 국	동 부	읍 부	면 부
부부가족	11.26	8.63	14.51	23.04
부부+미혼자녀	49.89	53.72	46.59	31.97
편부모+미혼자녀	7.56	7.97	6.78	5.86
합	68.71	70.32	67.88	60.87

핵가족형태가 전 가구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거의 70%이다. 동부와 면부의 핵가족비율 사이에 약 10% 포인트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핵가족이 1995년 현재 한국의 가구형태의 대표적인 형태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핵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위구성 가족형태는 그 의미가 다르다. 예컨대 부부가족은 부부+미혼자녀가족의 전단계일수도 있고, 미혼자녀가 모두 떠나고 남은 단계의 가족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핵가족을 하위가족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부부가족의 특성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부가족은 핵가족 중 1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동부, 읍부, 그리고 면부로 나누어보면, 각각 12.3%, 21.4%, 3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핵가족중 부부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 <표14>는 부부가족 성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Ⅲ-14> 부부가족의 특성

(단위: %)

	동부		읍부		면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19	0.20	0.66	0.10	0.29	0.00	0.12
20-24	3.34	12.11	1.76	5.29	0.51	1.56
25-29	20.30	23.14	8.50	9.80	2.14	2.36
30-34	16.02	7.93	6.70	3.27	1.93	1.70
35-39	6.38	4.96	2.84	3.07	1.63	1.78
40-44	3.65	4.31	2.58	3.79	2.03	3.90
45-49	4.24	6.09	3.79	7.81	3.91	7.89
50-54	5.96	8.09	9.22	13.53	8.80	14.20
55-59	9.06	11.80	14.67	17.39	17.46	21.51
60-64	11.49	10.61	17.81	17.06	21.63	21.55
65+	19.37	10.30	32.03	18.69	39.98	23.43
교육수준						
무학	4.59	7.30	16.54	24.25	24.98	36.42
국교	14.49	22.57	34.15	41.57	46.53	48.49
중학교	12.79	14.11	14.38	10.75	11.90	7.03
고교	36.32	37.61	23.10	17.81	11.65	6.33
전문대	4.71	4.62	2.12	1.76	0.99	0.58
대학	24.01	12.70	8.99	3.79	3.62	1.09
대학원	3.09	1.09	0.72	0.07	0.33	0.06
경제활동						
주로일함	71.82	26.37	76.34	31.11	84.04	41.50
가사+일함	0.36	5.60	0.82	20.29	0.98	32.22
학교+일함	0.17	0.07	0.00	0.00	0.00	0.02
기타+일함	0.23	0.08	0.26	0.10	0.25	0.11
잠시 쉬	0.57	0.14	0.49	0.10	0.11	0.04
구직중	4.23	1.07	2.75	0.36	0.98	0.21
가사	3.80	60.01	3.07	41.80	1.95	20.16
학교	0.61	0.43	0.10	0.07	0.03	0.02
연로, 질병	18.20	6.22	16.18	6.18	11.66	5.71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14>는 부부가족의 특성을 구성원의 성,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활동상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부부가족은 가족형성의 첫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고, 가족확장기를 지나 미혼자녀들이 결혼이나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곁을 떠난 뒤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표14>에서 연령구조에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부부가족의 비율이 높은 층이다. 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동부의 경우 20대와 30대초반, 그리고 50대 후반과 60대에 부부가족 성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외의 연령층에는 많지 않다. 반면에 읍부의 경우 20대와 30대초반에 약간 비율이 높고 대부분 50대와 60대에 집중되어 있다. 면부는 모두 50대와 60대에 집중되어 있

다. 부부가족 성원의 연령구조로 볼 때 도시지역은 가족형성기의 부부가족이 가족 쇠퇴기의 부부가족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형성되는 핵가족과 쇠퇴기의 핵가족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읍부와 면부로 갈수록 핵가족의 하위구성형태인 부부가족이 가족쇠퇴기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농촌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다른 한 편으로 도시나 혹은 산업지역이 농촌인력을 유인한 결과 젊은 층이 이동한 결과이다.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핵가족이 주된 가족형태이지만, 부부가족을 예로 들어보면 그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가족 성원들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인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지역의 부부가족 성원들의 교육수준이 농촌지역의 교육수준보다 높다. 그러나 경제활동상황은 다시 지역별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지역의 부부가족에서 남자는 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집에서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남자나 여자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농촌의 부부가족의 여자는 집에서 가사에 종사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가사를 돌보며 동시에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가족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부부가족 또한 나이들었으면서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을 해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핵가족이 도시나 농촌의 대표적인 가족유형이지만, 핵가족의 한 하위 가족유형인 부부가족을 지역별로 살펴볼 때 부부가족의 내용이 질적으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가족형성기와 가족쇠퇴기에서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서 부부가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가족형성기의 부부가족은 그 비율이 매우 낮고 대신 가족쇠퇴기의 부부가족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형태로서의 핵가족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내에서 정신상태의 측면에서 핵가족을 생각해본다면 도시와 농촌의 핵가족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2)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핵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가족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결혼연령, 출산력과 사망력, 출산시기 및 교육환경 등이 도

시와 농촌간에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들의 사회인구학적 차별성을 낳을 수 있는 요소들이다. 설혹 형태상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가족구성원들의 관계 등 질적인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가족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센서스자료는 질적인 측면을 알려주지 못한다. 대신 우리는 지역별로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15>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다.

부부 및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성원들의 연령구조는 도시와 농촌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10대 및 그 이하의 연령층이 대부분의 미혼자녀의 지위에 있고 30대가 부모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핵가족 중 부부가족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연령구조가 질적으로 달랐지만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은 도시와 농촌사이에 차별적인 연령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표15>에 제시된 연령구조로부터 결혼연령, 출산력, 출산시기 등 연령구조의 차이를 나눌 수 있는 요소들간에 도시와 농촌간 차별성이 별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연령구분	도시	농촌	비율	연령구분	도시	농촌	비율
0-9	1.2	1.1	1.15	20-29	12.5	11.8	11.65
10-19	15.8	15.2	15.5	30-39	28.3	27.5	27.9
20-29	22.1	21.5	21.8	40-49	25.7	24.9	25.3
30-39	21.5	20.8	21.15	50-59	18.2	17.5	17.85
40-49	18.7	18.0	18.35	60-69	10.5	10.2	10.35
50-59	12.3	11.8	12.05	70-79	5.2	5.0	5.1
60-69	6.8	6.5	6.65	80-89	2.1	2.0	2.05
70-79	3.5	3.2	3.35	90-99	0.8	0.7	0.75
80-89	1.8	1.6	1.7				
90-99	0.5	0.4	0.45				
합계	100.0	100.0	100.0				

표 15.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1995년)

<표Ⅲ-15>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특성

(단위: %)

	동	부	읍	부	면	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19	40.04	37.10	41.06	39.11	37.04	37.05
20-24	6.40	8.41	5.88	6.97	7.92	7.20
25-29	6.93	8.98	6.74	9.09	7.36	7.18
30-34	9.85	11.16	10.99	12.06	8.57	8.66
35-39	11.05	11.40	11.03	9.96	8.61	9.29
40-44	8.60	8.21	7.17	7.14	7.00	7.63
45-49	6.45	6.04	5.54	5.33	6.45	6.64
50-54	4.82	4.23	4.46	4.15	5.94	6.34
55-59	3.33	2.60	3.50	3.07	5.22	5.16
60-64	1.61	1.15	2.05	1.91	3.30	2.90
65+	0.94	0.74	1.58	1.21	2.60	1.96
교육수준						
무학	4.03	4.64	5.23	6.96	6.17	9.75
국교	17.30	20.65	23.36	28.24	28.36	34.74
중학교	16.44	20.00	19.63	21.44	21.33	20.71
고교	36.99	38.40	37.33	34.84	33.56	28.72
전문대	4.13	3.90	3.89	3.20	3.21	2.34
대학	18.75	11.80	9.70	5.18	6.78	3.59
대학원	2.36	0.61	0.87	0.13	0.59	0.15
경제활동						
주요일합	71.34	25.68	74.16	28.25	73.38	35.46
가사+일합	0.22	4.93	0.62	9.76	0.85	17.64
학교+일합	0.24	0.23	0.17	0.10	0.19	0.11
기타+일합	0.12	0.07	0.19	0.07	0.33	0.17
잠시 쉬	0.49	0.17	0.49	0.12	0.36	0.12
구직중	5.33	2.47	6.15	2.42	5.31	2.15
가사	0.98	50.55	1.01	44.59	0.66	28.56
학교	17.15	14.85	13.38	13.39	14.17	14.04
연로, 질병	4.13	1.06	3.85	1.31	4.34	1.75

출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도시의 가족성원들의 교육수준이 농촌보다 높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도시와 농촌인구의 교육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현재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10대와 20대의 경우 도시에 대학 등 고등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성원들의 교육수준이 높을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부부 및 미혼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특성은 경제활동상태, 특히 여자의 경제활동상태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남자들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에 경제활동상태구조가 아주 유사하다. 남자들은 주로 일하는 가장이거나 학교에 다니는 아들

들이다. 그러나 도시여자의 경우 50%가 가정주부로 집안일을 돌본다. 전적으로 일을 하거나 가사를 돌보면서 일을 하는 경우는 농촌지역에 비해 많지 않다. 반면에 농촌의 주부들은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도 병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마치 농촌의 핵가족의 여성들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이용하고 있거나 더 적극적으로 노동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농촌의 부부가족에 속한 여성들이나 1인가구의 여성들이 도시의 여성들에 비해 고연령층이면서도 일을 하였듯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여성들도 역시 생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부부 및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은 연령구조면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별다른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상태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가족내 관계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동일한 핵가족형태라 할지라도 도시와 농촌의 가족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제3절. 요약 및 결론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통해 가구 및 가족구성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5년사이에 전체가구수는 약 160만 가구가 늘어났다. 이 중 98%가 도시지역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가구수 증가가 전체가구수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구수의 변화를 가구형태 및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1인가구의 증가량이 전체가구수의 증가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고, 지난 5년사이에 1인가구의 증가율이 61%에 이를 정도로 1인가구의 증가가 가구의 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체 가구증가량중 1인가구의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혈연가구의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미약하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혈연가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1인가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전체가구수가 미약

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가 전체가구수의 현상유지 혹은 미약한 증가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농촌지역의 혈연가구가 해체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대별 가구구성의 양상도 도시와 농촌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한국의 전체 가구가운데 2세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특히 먼부의 경우 2세대가구가 세대별 전체가구 구성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1세대가구나 1인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의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세대가구의 내용도 도시의 경우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형태의 핵가족유형이 전체 2세대가구의 절반이 넘지만 농촌으로 갈수록 전형적인 핵가족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부부가족과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지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말할 때는 2세대가구, 즉 핵가족유형이 대표적인 가족 및 가구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시와 농촌간에는 핵가족의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2세대가구의 중요도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가구구성 및 변화의 주요한 모습의 하나인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인가구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1인 가구주의 특성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남성 1인가구주보다 여성 1인가구주가 더 많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에 관계없지만 도시보다도 농촌에서 여성 1인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1인가구주의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등 모든 면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도시의 경우 20대 1인가구주의 중요성이 60대이상 1인가구주 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농촌의 경우 50, 60대 및 그 이상 되는 1인가구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도시에서는 높은 학력의 미혼가구가 중요한 특성이지만, 농촌에서는 사별한 낮은 학력의 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주의 특성은 농촌에서 먼저 자녀들이 떠나 부부만 남은 부부가족유형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남성배우자를 잃은 여성만의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서론부분에서 밝힌 한국 가족변화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앞서 열거했던 농촌가족의 해체, 1인가구의 증가, 여성 및 노년가구의 증가는 지금까지 분석한대로 모두 서로 밀접하게 얽혀져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도시보다도 농촌에서 가구 및 가족의 변화가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촌에서의 가구 및 가족의 변화보다는 외형상 두드러지지 않지만 도시에서도 계속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가구의 증가량 가운데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미혼, 고학력자, 그리고 교육이나 직업을 이유로한 1인가구의 증가는 도시가구변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 1인가구수의 증가로 인해 전체가구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실상 농촌 1인가구의 증가는 2세대가구 혹은 3세대가구가 농촌에서 사라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가족쇠퇴기의 부부가족마저 한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1인가구로 귀결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핵가족이라고 부르는 2세대가구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주된 가구유형임은 수치상으로 확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핵가족이지만 도시와 농촌의 핵가족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여러 지표들을 우리는 발견한다. 도시의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핵가족유형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또 가족성장기와 가족쇠퇴기에 해당하는 핵가족이 존재한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유형 못지않게 부부가족이나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중요성이 크고, 가족성장기에 있는 핵가족은 거의 없는 반면 가족쇠퇴기에 있는 핵가족의 유형이 많다. 또한 가구주의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면에서도 농촌의 가구주 배우자는 가사에만 전념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거나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가족생활의 내용에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구나 농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그만큼 농촌의 어려운 가족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2세대가구의 비율이 외형적으로는 높다할지라도 도시와 농촌의 핵가족은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 권태환·박영진. 1995. "가구 및 가족유형" 권태환·김태현·최진호 공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서울: 일신사.
- 통계청. 1997. 1995 인구주택총조사 최종 전수집계결과. 서울: 통계청.
- Laslett, Peter. 1972. "Introduction: The History of the Family" in P. Laslett, ed., Household and Family in Past T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ccombe, Wally. 1992. A Millennium of Family Change. London: Verso.
- Shorter, Edward. 1975.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Books.

제4장. 노인 인구의 특성과 주거 현황

제1절.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출산율 및 사망률의 감소, 이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김익기, 1995). 또한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가족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가족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 사상의 증가와 함께 거주형태도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 노인의 거주형태는 과거에 비해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들으나 노부부, 노인 혼자 사는 세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Kim, 1995).

노인의 거주형태는 가족부양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서 노인의 심리적 안녕, 가족관계, 사회활동 등과 밀접히 연관된다.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노인에 대한 사회정책이 미비한 나라에서는 노인의 거주형태가 그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진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기능적으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서 노인의 거주형태 즉 “누구와 같이 사느냐”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지원, 정서적 지지,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Kim and Choe, 1992). 그러므로 주거형태는 노인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본 개념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거주형태에 따라 그들의 구체적인 특수성과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복지프로그램 및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최성재, 1995).

우리 나라에서 노인문제는 ‘선가정 후사회보장’ 원칙하에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함으로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1960년 후반부터 경제발전,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과거의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노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즉, 가족구조가 전통 농경사회의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하면서 현대 가족은 부부중심의 생활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의 절대적인 지위와 권한도 낮아졌고 가정내 역할도 주된 역할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향이다. 또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차이도 심하고 서구 개인주의 사상의 영향 등으로 젊은이들의 노인부양의식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가옥외, 1990).

우리 나라 인구는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머지않아 본격

화될 것이 분명하고 고령사회의 문제는 불원간에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와서 차츰 인식되어 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생활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노인의 거주형태가 변하고 다양해진 것이다(Kim and Choe, 1992).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는 장남 혹은 아들부부가 노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아들가족과의 동거가 줄어드는 반면 딸부부와 동거, 노부부끼리, 노인혼자, 기타 친척과 함께 혹은 양로/요양시설거주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거주형태의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 즉 산업화 및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부양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노인의 거주형태가 다양화되고 기존의 가족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던 노인부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어 앞으로 가족부양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가족부양을 대체할 사회적 부양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점점 다원화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그럴수록 각 부문간의 유기적 관련성 및 상호의존성이 높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의 문제는 가족이나 사회 어느 한 부문이 전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조정하고 통합하며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이가옥, 1995).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노인들의 주거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 노인인구의 주거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의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거주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소유형태별 분포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에 따른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자료에서 추출한 60세 이상의 인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2절. 인구변천과 인구고령화

1960년대이래 한국사회는 급속한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인구변천의 과정은 획기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과 전면적인 가족계획실시의 복합작용에 의해서 가속화되었다(Kim, I.K. 1987). 인구변천은 특정사회가

전 근대적이고 농업적인 상태에서 근대적이고, 산업화되는 상태로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변천으로 정의되고 있다(Coale, 1973). 이 정의에 따르면, 근대화가 인구변천을 초래하고 그것이 곧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를 가져다준다.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인구의 노령화를 재촉하게 된다. 인구의 노령화는 가족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부담이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근대화론자들은 산업화, 도시화 및 종합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가족구성이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Cowgill and Homes, 1978; Martin, 1989). 그들은 산업화의 단계에서는 핵가족이 새로운 생산양식에 기능적으로 더 잘 적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Kim, I.Y. 1993). 근대화론자들은 또한 노인의 지위나 복지가 그들의 동거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노인의 동거양상이 자녀들과의 동거형태에서 독신거주 또는 부부만의 동거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Cowgill 1986; Cowgill and Homes 1978). 여기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다.

사망률과 출생률의 감소로 나타나는 인구변천은 인구의 노령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의 인구변천은 사망률의 감소로 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은 1910년대에 첫번째 사망률 감소의 단계를 맞이하였다. 1910년대의 조사망율(CDR)은 천명당 34에 이르렀으나 이때부터 한국전쟁 기간중인 1950-53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사망자수가 16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기간에 사망률도 급격히 올라갔다(Lee, 1980). 1955년의 조사망율은 천명당 33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높았던 조사망율은 1960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했다.

<표1>은 1960-90년사이의 사망률과 출생률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60년의 조사망율은 16으로 떨어졌다. 이때부터 사망률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감소해 왔다. 1990년의 조사망율은 5.8까지 떨어졌다. 조사망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1960년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51.1년이고 여자가 57.3년이었다. 남자의 평균수명은 1970년에 57.2년으로 증가하였고 1980년에는 62.7년으로 다시 1990년에는 68.2년으로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도 같은 속도로 증가하여 1970년에는 75.0년으로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의 노령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다음은 출산력 변천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1960년의 조출생율은 인구 1,000명당 무려 45에 이르렀으며 1960년-1965년간에 조출생율은 천명당 3정도만 감소했다. 그러나, 1965년-1970년의 기간동안에는 출생률이 42에서 32로 무려 10이나 떨어졌다. 5년간의 출생률 감소로는 기록적인 수치이다. 이때 이후로 조출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1980년에는 조출생율이 23.4를 기록하였고, 1990년에는 15.6으로까지 떨어졌다.

<표Ⅳ-1> 한국의 사망율 및 출생률의 변화추세 1960-1990

연도	조사망율 ⁽¹⁾	평균수명 ⁽³⁾		조출생율 ⁽⁴⁾
		남자	여자	
1960	16	51.1	57.3	45
1965	15	54.9	61.0	42
1970	13	57.2	64.1	32
1975	7.3	59.8	66.7	24.6
1980	6.7	62.7	69.1	23.4
1985	6.2	67.1	73.6	19.7
1990 ⁽²⁾	5.8	68.2	75.0	15.6

자료: (1) Kim, I.K. 1992. p.52.

(2) 김태현외, 1993. p.6.

(3) Suh, M.K. 1992. p.109.

(4) 김익기, 1992. p.57.

한국에서의 급속한 인구변천과정은 노령인구수와 노령인구의 비율을 모두 증가시켰다. 60세 이상의 인구수가 1960년에는 150만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에는 33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99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지난 3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으나, 앞으로 30년후에는 1990년보다는 3배, 1960년보다는 6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im, I.K. 1995).

<표2>는 1966년이래로 나타난 노령인구비율의 증가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0세이상 인구의 비율이 1966년에 5.2%이었으며 이 비율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목할만한 증가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1990년에 이 비율은 7.8% 이었고 1995년에는 9.3%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20년에는 거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은 1966년에 3.3%에 머물렀으나 1980년에 3.9%를 나타낸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5.1%를 보였고 1995년에는 5.9%를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더욱 더 증가하여 2020년에는 1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IV-2> 연령별 인구비율, 1966-2020

연령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43.5	42.1	38.1	33.8	29.9	25.7	23.0	21.2	20.3	19.1	17.5	16.0
15-59	53.2	52.5	56.3	60.1	63.3	66.7	67.7	68.2	67.6	67.1	66.6	64.5
60-64	1.9	2.1	2.1	2.2	2.5	2.7	3.4	3.9	4.0	4.3	5.2	7.0
65-69	1.5	1.4	1.6	1.7	1.8	2.1	2.3	2.9	3.4	3.5	3.9	4.7
70-74	0.9	1.0	1.9	1.1	2.5	2.9	1.7	1.9	2.4	2.8	3.0	3.4
75-79	0.6	0.6	0.6	0.6	0.8	0.9	1.0	1.2	1.4	1.8	2.2	2.3
80+	0.3	0.4	0.4	0.5	0.5	0.7	0.9	0.9	1.1	1.3	1.7	2.1
60+	5.2	5.5	5.6	6.1	6.8	7.8	9.3	10.7	12.1	13.7	15.9	19.5
65+	3.3	3.4	3.5	3.9	4.3	5.1	5.9	6.8	8.2	9.4	10.7	12.5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각 연도 총인구및 주택 센서스). 1992.

2000년 이후의 추계자료는 이가옥외, 1993. p.48.

<표3>은 1966년이래로 한국에서의 노인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부양비도 노령인구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1966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60세 이상 노인의 부양비가 1966년에는 10.1이었으나 1990년에는 11.5로 늘어났고 1995년에는 13.7로 늘어났는데 2020년에는 거의 3배인 30.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노령화지수도 노인부양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속도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의 노령화 지수가 1966년에는 11.9에 지나지 않았고 1995년에는 40.4로 증가했으나 30년후인 2020년에는 무려 121.8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노령화지수는 2020년이 되면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수가 14세 미만의 인구수보다 무려 20%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IV-3> 60세 이상 노인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966-202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노인부양비 ¹⁾	10.1	10.3	10.0	10.1	10.8	11.5	13.7	15.6	17.9	20.5	23.9	30.2
노령화지수 ²⁾	11.9	12.9	14.7	17.9	22.8	29.8	40.4	50.3	59.6	71.8	91.1	121.8

1) 노인부양비 = 60세 이상의 인구 / 15-59세의 인구 x 100

2) 노령화지수 = 60세 이상의 인구 / 0-14세의 인구 x 100

자료: 1) 이 가옥외, 1993. p.52. 1995년 수치는 필자가 계산.

2) 이 가옥외, 1993. p.51. 1995년 수치는 필자가 계산.

기록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한국의 인구변천은 인구노령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미 출산율과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한국은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될 기제를 갖고 있다. 이 현상과 관련하여, 그릭스비(Grigsby, 1991)는 한국의 출산율과 사망률이 1985년의 수준으로 고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령인구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출산율과 사망율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가정해 본다면 한국에서의 인구노령화현상은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제3절.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 장에서는 노령화 과정에 따라서 나타났던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표4>는 1966년 이래로 나타난 노인들의 성비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어느 시점에서나 노인의 성비가 100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비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의 성비를 보면 1966년에 70.7%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5년에는 64.6으로 나타나고 있고 70세 이상 노인의 성비는 1966년에 59.6을 나타냈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에는 45.4를 기록하고 있다.

<표 IV-4> 한국노인의 성비, 1966 - 1995

연령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체	101.4	100.8	101.2	100.5	100.2	100.7	100.7
60+	70.7	69.8	68.9	67.3	65.7	64.8	64.6
65+	64.9	62.1	61.3	59.5	59.4	60.0	58.5
70+	59.6	55.8	52.5	51.0	50.7	52.6	45.4

자료: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표 5>는 1966년에서 1995년까지의 기간동안 노인들의 유배우율을 나타내고 있다. 남자나 여자의 경우 모두 이 기간 동안 유배우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유배우율이 1966년에는 반수가 약간 안되었으나 1990년에는 반수가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남녀간에 있어서 혼인상태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연령층이나 어떤 시기에서나 여자노인의 유배우율이 남자노인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의 경우보다 계속 높았다는 것과 관련이 되고 있다.

<표 IV-5> 60세이상 노인들의 유배우비율, 1966 - 1995

연령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체	48.0	50.3	52.0	53.0	55.9	54.9	57.2
남자	77.5	80.3	83.3	84.7	86.5	86.3	87.9
여자	28.7	29.4	31.0	31.6	35.2	34.5	36.8

자료: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표6>은 노인인구의 도시화율과 도시 및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비율 및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 매우 급속한 도시화율을 경험했다. 그런데, 노인인구의 도시화율은 전체인구의 도시화율보다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인구의 도시화율은 1966년에 33.5%를 나타냈으나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78.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도시거주율은 1966년에 23.3%를 나타내었고 1995년에는 58.5%를 기록하여 계속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인구의 도시화율보다는 항상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한편, 도시 및 농촌지역에 있어서 노인인구의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인구비율이 도시지역에서의 비율보다 항상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를 볼 때, 1966년에는 도시에서의 노인인구비율이 3.6%였으나 농촌에서는 6.0%를 나타내었고 1995년에는 도시에서의 노인인구비율이 6.9%였으나 그 격차가 더욱 심해져서 농촌에서는 이 비율이 17.9%를 나타내었다.

<표IV-6> 노인의 도시화율 및 지역별 노인비율, 1966 - 1995(단위:%)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체인구	33.5	41.1	48.3	57.2	65.4	74.4	78.7
60세 이상	23.3	27.2	33.1	39.1	46.5	54.7	58.5
노인인구비율							
도시	3.6	3.6	3.8	4.1	4.9	5.6	6.9
농촌	6.0	6.7	7.3	8.6	10.5	13.5	17.9

자료: 총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66, 1975, 1980, 1985, 1990, 1995.

지금까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화양상을 센서스기간별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와 2% 표본자료를 중심으로 노인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표7>은 1995년 센서스자료에서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60세 이상의 전체노인수는 4,135,28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남녀의 비율은 39.9 대 60.1로서 여자노인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 이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60-64세 사이에는 남자노인의 비율이 45.1%를 나타내고 있으나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남자노인의 비율이 26.4%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Ⅳ-7>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단위: 명(%)

연령	성		계
	남자	여자	
60-64	673,719(45.1)	821,363(54.9)	1,495,082(100.0)
65-69	420,873(40.3)	623,106(59.7)	1,043,979(100.0)
70-74	293,696(38.5)	468,848(61.5)	762,544(100.0)
75-79	160,498(35.2)	295,175(64.8)	455,673(100.0)
80+	99,637(26.4)	278,372(73.6)	378,009(100.0)
계	1,648,423(39.9)	2,486,864(60.1)	4,135,287(100.0)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필자가 재구성함.

<표8>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가운데 2%의 표본자료를 근거로 성, 연령 및 거주지역별 노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을 보면 60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여성이 60.1%로 남성(39.9%)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60-64세가 36.5%, 65-69세 25.2%, 70-74세 18.5%, 75-79세 10.9%, 80세 이상이 9.0%를 점하고 있다. 별도의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령별 분포는 성별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노인들이 기타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연령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Ⅳ-8> 성, 연령, 거주지역별 노인의 분포

단위: 명(%)

거주지역	도시	48,817(58.0)
	농촌	35,380(42.0)
성	남자	33,615(39.9)
	여자	50,582(60.1)
연령	60-64세	30,740(36.5)
	65-69세	21,177(25.2)
	70-74세	15,559(18.5)
	75-79세	9,174(10.9)
	80세이상	7,547(9.0)
계		84,197(100.0)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 9>는 종교별 인구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교를 갖지 않은 노인들이 41.2%, 불교 32.9%, 개신교 16.6%, 천주교 6.4%를 나타내었다. 전체 인구의 경우, 1995년 현재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49.3%로 나타나 대체로 60세이상에서 종교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인구가운데 3대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수치를 보면, 1995년 현재 불교 신자가 23.2%, 개신교 19.7%, 천주교 6.6%로 나타나 60세 이상 인구의 경우에는 전체인구에 비해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가 적은 반면, 불교 신자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9> 종교별 인구분포

단위: %(명)

종교	총인구	60세 이상 인구
불교	23.2	32.9
개신교	19.7	16.6
천주교	6.6	6.4
유교	0.5	1.6
원불교	0.2	0.4
천도교	0.1	0.1
대종교	0.03	0.03
대순진리회	0.1	0.1
기타	0.4	0.5
없음	49.3	41.2
계	100.0(44,553,710)	100.0(4,135,287)

자료: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는 필자가 계산함.

<표10>은 조사대상노인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60세이상 전체 응답노인의 반수 가량(51.1%)이 현재까지 가구주로 되어 있고 18.8%는 가구주의 배우자로 되어 있어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아직도 가구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26.5%는 가구주의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2.3%는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명(%)
가구주	43,012(51.1)
가구주의 배우자	15,799(18.8)
(조)부모	22,283(26.5)
배우자부모	1,971(2.3)
기타	1,132(1.3)
계	84,197(100.0)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11>은 성,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60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가 무려 42.9%에 달한다.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자가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21.3%에 불과해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다른 연령대의 교육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거주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준다. 우선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수준을 보면, 시부에 거주하는 노인들 가운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는 33.4%, 초등학교 교육이 36.7%, 중학교 이상 29.9%이고, 군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각각 56.0%, 34.7%, 9.3%로 나타나서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서울을 비롯한 도시 노인들보다 교육수준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성별 교육수준의 차이도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노인은 미취학이 23.6%에 지나지 않으나 여자노인은 무려 55.7%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대이상의 수준을 보면 남자가 11.3%이고 여자가 1.1%로서 역시 매우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을 살펴 보면, 70세 이상의 고연령자들 가운데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60% 이상이며, 75세 이상 인구에서는 이 비율이 70% 가량이었다. 반면에, 60대 노인들 가운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30% 가량에 불과했다. 고학력자의 경우에도 60대와 70대 이상의 교육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고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60-64세 집단 가운데 33.0%, 65-69세 가운데는 21.2% 인데 반해, 70-74세의 경우에는 13.3%, 75-79세는 8.8%로 나타나고 있으며 80세 이상의 노인가운데에는 5.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IV-11> 성,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수준

단위: %(명)

	거주지역		성		연령					계
	시부	군부	남자	여자	60-64	65-69	70-74	75-79	80세이상	
미취학	33.4	56.0	23.6	55.7	23.3	39.4	55.4	66.4	78.2	42.9
초등학교	36.7	34.7	37.8	34.5	43.8	39.5	31.4	24.8	16.1	35.9
중학교	11.2	4.6	13.6	5.0	12.4	8.8	5.7	3.8	2.4	8.4
고등학교	10.9	3.2	13.7	3.7	12.8	7.2	4.1	2.8	1.9	7.7
전문대 이상	7.86	1.5	11.3	1.1	7.8	5.2	3.5	2.2	1.5	5.2
계	100.0 (48,871)	100.0 (35,380)	100.0 (33,592)	100.0 (50,574)	100.0 (30,740)	100.0 (21,177)	100.0 (15,559)	100.0 (9,174)	100.0 (7,547)	100.0 (84,166)

$$\chi^2 = 6710 \quad p < 0.001$$

$$\chi^2 = 13404 \quad p < 0.001$$

$$\chi^2 = 12599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12>는 연령별로 노인의 결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57.2%, 사별한 경우가 42.1%였다. 미혼과 이혼은 0.2%, 0.5%에 불과하여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사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배우자의 생사는 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서 고령자일수록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많았다. 이 표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배우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사별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0-64세 노인의 경우에는 유배우율이 73.5%이나 이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관되게 낮아져서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유배우율이 21.4%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IV-12> 연령별 결혼상태

단위: %(명)

결혼상태	연령					계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세 이상	
미혼	0.3	0.2	0.2	0.2	0.3	0.2
유배우	73.5	60.4	49.3	37.7	21.4	57.2
사별	25.4	38.9	50.1	61.8	78.1	42.1
이혼	0.8	0.5	0.4	0.3	0.2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727)	(21,168)	(15,551)	(9,173)	(7,546)	(84,165)

$$\chi^2 = 9509,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 13>은 성별 및 거주지역별 결혼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여성들 가운데 사별한 사람들의 비율이 62.4%인 많은 반면에, 남성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11.4%에 불과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87.9%에 달했다. 여성에게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가 재혼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성이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별로 나타난 현격한 유배우자와 사별자 비율의 차이는 흥미있는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노인의 결혼상태가 성별로는 매우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거주지역별 즉, 도시와 농촌간에는 그 차이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3> 성 및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상태

단위: %(명)

결혼상태	성		거주지역	
	남자	여자	도시	농촌
미혼	0.2	0.3	0.3	0.2
유 배우자	87.9	36.8	54.5	57.2
사별	11.4	62.4	44.5	42.7
이혼	0.5	0.5	0.7	0.6
계	100.0(33,591)	100.0(50,574)	100.0(48,786)	100.0(35,379)
	$\chi^2 = 21735.4$ p < 0.001		$\chi^2 = 386.9$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제4절. 노인의 경제적 특성

다음으로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인 제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표14>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고 있다. 60세 이상의 직업을 가진 노인들 중 66.2%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상점, 시장판매 근로자 9.5%, 관리직, 사무직, 전문직 6.9%, 단순 노무직 9.2%, 기능직, 장치, 기계조작원 등이 8.3%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1994년 현재 전체 연령대의 취업중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가 27.5%, 서비스, 판매직 20.9%, 농·어업 13.2%,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원 27.3%이었고, 단순노무직은 11.0%였다(통계청, 1994). 전체 인구에 비해 60세 이상 인구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 인구에서는 관리·사무·전문직과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원,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각 10%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전체 인구에서는 각각 20%를 상회하였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나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직종은 단순 노무직 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인구의 직업분포가 전체 인구의 직업분포에 비해 다양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서 54.2%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무급가족종사자가 21.9%를 나타내고 있고, 임금불급근로자(20.2%) 및 고용원을 둔 사업주(3.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IV-14> 노인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

단위: 명(%)

직업	관리,사무,전문직	1,961(6.9)
	기술,기능,장치,기계	2,357(8.3)
	서비스,상점,시장판매	2,698(9.5)
	농,어업	18,819(66.2)
	단순노무직	2,606(9.2)
종사상 지위	임금불급근로자	5,743(20.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5,430(54.2)
	고용원을 둔 사업주	1,052(3.7)
	무급 가족종사자	6,223(21.9)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러한 직업의 편중성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15>는 성과 연령에 따른 직업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노인의 경우 직업 구성은 농어업(59.2%), 관리·사무·전문직 (14.7%), 단순노무직(10.6%), 기능·장치·기계 조직원(8.3%), 서비스직(7.5%)의 순이었고, 여자노인은 농어업(76.2%), 기능·장치·기계 조직원(11.4%), 단순노무직(7.1%), 서비스직(3.2%), 관리·사무·전문직(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 남녀 공히 농어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절반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여자의 농업 종사자 비율이 남자에 비해 2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교적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사무·전문직의 경우에는 남자가 14.7%인데 반해 여자는 2% 정도에 불과하고 있다. 다른 직업의 경우에도 농어업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남자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자노인들이 남자노인에 비해 편중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성별 직업 편중성은 여성연령의 고령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표15>에서 연령별 직업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반면 그 외의 직종 종사자 비율이 높다. 특히 60-64세의 연령 집단은 농어업 종사자가 약 60%를 점하고 있고 관리·사무·전문직, 기능·장치·기계,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이 각기 10%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직도 대략 8%정도를 점하고 있었다. 80세 이상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농어업 83.7%, 관리·사무·전문직 6.8%, 기능·장치·기계 기능원 5.2%, 단순노무직 3.0%, 서비스직 1.4%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8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직업 분포가 농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60세 이상의

다른 연령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바,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15> 성 및 연령에 따른 직업 분포

단위: %(명)

	성별		연령				
	남성	여성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관리·사무·전문직	14.7	2.0	12.2	7.1	5.3	5.3	6.8
기능·장치·기계	8.1	11.4	11.0	8.9	6.6	5.8	5.2
농어업	59.2	76.2	57.6	71.7	81.0	83.7	83.7
서비스·상점·시장판매	7.5	3.2	8.0	4.1	2.1	1.6	1.4
단순 노동직	10.6	7.1	11.4	8.3	5.1	3.6	3.0
계	100.0 (16,745)	100.0 (11,696)	100.0 (15,186)	100.0 (7,542)	100.0 (3,859)	100.0 (1,415)	100.0 (439)
$\chi^2 = 1854.960$ p < 0.001			$\chi^2 = 12599.715$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16>은 노인의 성 및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66.2%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노인의 28.2%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5.5%는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는 50.1%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반해 여자는 76.8%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반면에, 남자는 48.2%가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는 15.0%만이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노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연령별로도 두드러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고령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반대로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고령일수록 일관성있게 낮아지고 있다.

<표IV-16> 성과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경제활동상태	성		연령					계
	남자	여자	60-64	65-69	70-74	75-79	80세이상	
전일제근무 (full-time)	48.2	15.0	41.9	29.1	20.5	12.5	4.4	28.2
시간제 (part-time)	1.5	8.2	7.4	6.3	4.3	2.9	1.4	5.5
임시휴직	0.3	0.1	0.2	0.2	0.1	0.1	0.0	0.1
무직	50.1	76.8	50.6	75.1	75.1	84.5	94.2	66.2
계	100.0 (33,723)	100.0 (50,741)	100.0 (30,740)	100.0 (21,176)	100.0 (15,559)	100.0 (9,173)	100.0 (7,547)	100.0 (84,464)
$\chi^2 = 11815$ p < 0.001			$\chi^2 = 8027$ p < 0.001					

<표17>은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른 노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지역별로 보면 노인의 경제활동상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율이 80.4%이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노인의 비율이 17.5%이나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율은 4.3%에 지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43.1%에 이르고 있으며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도 10.5%나 되고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상태는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차이에 비하면 그렇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노인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일관성 있게 높아지고 있다. 미취학노인의 전일제 근무비율은 21.6%에 지나지 않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율은 44.5%로 나타나고 있다.

<표IV-17>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경제활동상태	지역			교육수준			
	시부	군부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전일제근무	17.5	43.1	21.6	30.9	32.7	37.0	44.5
시간제근무	1.9	10.5	7.3	5.6	2.4	1.7	1.6
임시휴직	0.2	0.1	0.1	0.1	0.3	0.2	0.4
무직	80.4	46.3	71.0	63.4	64.6	61.1	5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037)	(35,427)	(36,107)	(30,195)	(7,111)	(6,606)	(4,414)

$$\chi^2 = 11143 \quad p < 0.001 \quad \chi^2 = 2259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제5절. 노인의 주거 현황

다음은 노인의 주거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세대구성, 주택형태,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연한에 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1. 세대구성

<표18>은 노인의 성별 및 거주지역별로 세대구성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홀로 사는 노인이 12.9%이고, 1세대로 사는 노인이 25.9%, 2세대는 28.4%이고, 3세대 이상은 32.8%로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1/3가량인 32.8%가

대가족인 3세대 이상인 가구에 살고 있다. 그러나, 독신가구와 1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무려 38.8%에 달하고 있어 노인 주거가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거형태는 노인들의 부양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수단이다. 노인부양에 관한 한 가장 좋은 동거형태는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가족과 같이 살게 되면 노인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노인부양(재정적 부양, 정서적 부양, 이상활동에 있어서의 부양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독신 노인이라고 해서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신노인이거나 노인부부만의 가구일 경우에는 부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IV-18> 성별 및 거주지역별 세대 구성 단위: %(명)

	성		거주지역		계
	남자	여자	시부	군부	
독신가구	5.0	18.2	10.0	16.9	12.9
1세대	37.7	18.1	19.1	35.3	25.9
2세대	33.9	24.7	31.3	24.3	28.4
3세대 이상	23.4	39.1	39.6	23.5	32.8
계	100.0(33,576)	100.0(50,544)	100.0(48,746)	100.0(35,374)	100.0(84,120)
	$\chi^2 = 7812.282$ p < 0.001		$\chi^2 = 4786$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19>는 연령별로 세대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70대 노인의 경우에 독신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신가구와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를 합쳐 보면, 65-69세 연령층의 비율이 43.8%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70-74세 및 60-64세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3세대 이상의 가구구성비율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60-64세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22.6%에 지나지 않으나 80세이상의 경우에는 52.4%로 나타나고 있다.

<표IV-19> 연령별 세대 구성

단위: %(명)

	60세-64세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 이상
독신가구	9.9	14.3	16.1	15.7	11.7
1세대	29.3	29.5	25.7	19.6	10.0
2세대	38.2	25.9	19.4	18.5	26.0
3세대 이상	22.6	30.3	38.9	46.3	52.4
계	100.0(30,719)	100.0(21,163)	100.0(15,543)	100.0(9,164)	100.0(7,531)
	$\chi^2 = 6007$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20>은 노인의 교육수준별로 세대구성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독신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비율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취학노인의 독신율이 18.6%로서 고등학교(5.9%)나 전문대이상(6.8%)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의 독신율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이다. 1세대 가구와 2세대의 경우에는 큰 차이는 아니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거의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반면에 3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0 > 교육수준별 세대구성

단위: %(명)

세대구성	교육수준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독신	18.6	9.8	7.2	5.9	6.8
1세대	20.3	29.4	30.8	30.6	33.6
2세대	23.1	28.8	36.2	39.8	39.5
3세대이상	38.0	32.0	25.8	23.7	20.1
계	100.0(36,079)	100.0(30,168)	100.0(7,071)	100.0(6,462)	100.0(4,340)

$$\chi^2 = 4279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성별로 보면, 남자노인 가운데 5.0%와 여자노인 가운데 18.2%는 독신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자노인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자노인 가운데에서 1세대와 2세대를 이루고 사는 노인의 비율이 각각 37.7%, 33.9%를 점하고 있으나,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각각 18.1%와 24.7%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3세대 이상 가구에서 거주하는 노인비율을 보면 여자노인의 경우가 39.1%로 남자노인의 경우보다(23.4%)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인의 세대구성은 거주지역별로 매우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독신노인의 비율을 보면 도시노인의 경우에는 10.0%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노인의 경우에는 16.9%로 나타나고 있고 1세대가구도 시부의 19.1%에 비해 군부에서는 35.3%로 나타나 농촌의 경우가 세대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독신 내지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율이 도시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양과 관련해 볼 때 농촌노인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2. 노인의 주택형태

<표21>은 성별에 따른 거주주택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물리적 주거와 관련된 주택 형태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단독주택이 73.8%, 아파트 16.5%, 연립주택 4.7%, 다세대 주택이 1.5%이고 기타의 경우는 3.5%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 현재 전국의 단독주택 거주자는 56.9%, 아파트 29.2%, 연립주택 6.6%,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2.9%이고, 기타의 경우는 4.4%였다(통계청, 1995). 이같은 전체 인구의 거주 주택과 비교해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들이 타 연령층에 비해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보다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단독주택이 74.4%, 아파트 15.6%, 연립주택 4.7%, 다세대주택 1.6%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노인은 각각 73.4%, 17.1%, 4.6%, 1.5%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별로 거주 주택 형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1> 성별 거주 주택형태 단위: %(명)

	남자	여자	계
단독주택	74.4	73.4	73.8
아파트	15.64	17.1	16.5
연립주택	4.70	4.6	4.7
다세대주택	1.58	1.5	1.5
기타	3.70	3.3	3.5
계	100.0(33,615)	100.0(50,582)	100.0(84,197)

$$\chi^2 = 39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 22>는 연령별 거주 주택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단독주택의 경우에 60세-64세에서부터 80세 이상까지의 각 연령 집단별로 73.1%, 73.4%, 74.3%, 74.8%, 75.3%로 그 비율이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관되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파트 거주자를 연령집단별로 보면 60세-64세의 집단으로 부터 80세 이상의 연령집단까지 각각 16.6%, 17.1%, 16.4%, 16.1%, 16.1%로서 연령이 낮을수록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연립주택 거주자의 경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건대,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은 가운데 연령이 높은 노인들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2> 연령별 거주 주택형태

단위: %(명)

	60세-64세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 이상
단독주택	73.1	73.4	74.4	74.8	75.3
아파트	16.6	17.0	16.4	16.1	16.0
연립주택	5.1	4.6	4.4	4.4	4.2
다세대주택	1.7	1.6	1.4	1.4	1.1
기타	3.5	3.5	3.5	3.3	3.4
계	100.0(30,740)	100.0(21,177)	100.0(15,559)	100.0(9,174)	100.0(7,547)
$\chi^2 = 52.548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23>은 교육수준별로 노인의 거주주택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수준별로 거주주택의 형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관되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은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82.5%,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10.4%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대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각각 46.7%와 40.4%를 나타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IV-23> 교육수준별 거주 주택형태

단위: %(명)

주택 형태	교육수준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단독주택	82.5	73.7	63.3	55.1	46.7
아파트	10.4	15.9	23.1	30.7	40.4
연립주택	3.4	5.0	7.0	7.0	6.2
다세대주택	1.1	1.6	2.2	2.5	1.8
기타	2.6	3.8	4.4	4.7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6,099)	(30,176)	(7,077)	(6,466)	(4,348)
$\chi^2 = 5102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24>는 노인의 거주지역별로 거주 주택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의 거주주택형태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매우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독주택에 사

는 노인의 비율이 시부에서는 58.9%를 보이고 있어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군부에서는 94.5%로서 농촌에서는 노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부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27.0%이고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7.2%로 나타나고 있으나 군부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2.0%와 1.1%로서 도시와 농촌간에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V-24> 거주지역별 거주 주택형태

	단위: %(명)	
	시부	군부
단독주택	58.9	94.5
아파트	27.0	2.0
연립주택	7.2	1.1
다세대주택	2.5	0.2
기타	4.4	2.2
계	100.0(48,817)	100.0(35,380)

$$\chi^2 = 13902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3. 노인의 주택점유형태

<표25>는 노인의 성별 주택점유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인의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78.6%였고, 전세는 12.2%, 월세나 사글세 등은 9.2%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주택점유형태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81.8%, 전세 10.5%이고, 월세, 사글세 혹은 무상인 경우는 7.8%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자기집에 사는 비율이 76.4%, 전세 13.4%, 월세, 사글세, 무상으로 사는 사람이 10.2%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자기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월세, 사글세나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자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25> 성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명)		
	남자	여자	계
자기 집	81.8	76.4	78.6
전세	10.5	13.4	12.2
월세, 사글세, 무상	7.8	10.2	9.2
계	100.0(33,545)	100.0(50,504)	100.0(84,049)

$$\chi^2 = 340.748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다음으로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자. <표 26>을 보면, 7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자기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70-74세의 연령 집단에서는 오히려 60대에 비해 자기집에 사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월세, 사글세, 무상과 같이 주거가 불안정한 주택점유형태는 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6>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명)

	60세-64세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 이상
자기집	78.4	78.1	77.7	78.9	81.9
전세	12.6	12.6	12.5	11.4	9.9
월세,사글세,무상	9.0	9.3	9.8	9.7	8.2
계	100.0(30,692)	100.0(21,147)	100.0(15,529)	100.0(9,159)	100.0(7,522)

$$\chi^2 = 77.618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27>은 거주지역별로 노인의 주택점유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노인의 주택점유형태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시부에서는 자기집에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68.0%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군부에서는 93.1%의 노인이 자기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인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부에서는 전세에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19.5%, 월세·사글세등에서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12.5%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군부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2.2%와 4.7%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7> 거주지역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명)

	시부	군부
자기집	68.0	93.1
전세	19.5	2.2
월세,사글세,무상	12.5	4.7
계	100.0(48,690)	100.0(35,359)

$$\chi^2 = 7996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4. 노인의 현주택 거주기간

<표28>은 노인의 연령별로 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현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1년 미만인 7.8%, 1년-2년 미만인 7.4%, 2년-3년 미만 6.5%, 3년-5년 미만 7.7%, 5년-10년 미만은 16.1%, 10년-15년 미만 9.1%, 15년-20년 미만 6.5%, 20년-25년 미만 6.0%이고, 25년 이상이 32.9%로 나타나고 있어서 15년 이상 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현 주택 거주기간을 보면, 대체로 고연령층이 한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주거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64세의 연령층 가운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5년 미만을 거주한 사람들은 29.9%, 65-69세 가운데는 29.8%, 70-74세는 29.5%, 75-79세는 28.8%, 80세 이상 가운데는 26.5%였다. 이와 반면에,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60-64세 집단 가운데 29.9%, 65-69세 가운데 33.1%, 70-74세 35.7%, 75-79세 35.4%, 80세 이상 가운데는 36.4%를 나타내고 있다.

현주택 거주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물리적 거주가 안정적이라든가, 거주기간이 짧다고 해서 물리적 거주가 불안정하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70대의 노인들이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IV-28> 연령별 현주택 거주기간

단위: %(명)

	60세-64세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 이상	계
1년 미만	7.9	7.9	8.1	7.8	6.56	7.8
1년-2년 미만	7.6	7.4	7.5	7.1	6.6	7.4
2년-3년 미만	6.0	6.6	6.3	6.6	6.3	6.5
3년-5년 미만	7.9	8.0	7.7	7.3	7.1	7.7
5년-10년 미만	16.6	16.1	15.4	16.2	15.4	16.1
10년-15년 미만	9.9	8.5	8.4	8.7	9.8	9.1
15년-20년 미만	7.1	6.7	5.5	5.5	6.2	6.5
20년-25년 미만	6.5	6.0	5.4	5.4	5.7	6.0
25년 이상	29.9	33.1	35.7	35.4	36.4	32.9
계	100.0(30,692)	100.0(21,147)	100.0(15,529)	100.0(9,159)	100.0(7,522)	100.0(84,949)

$$\chi^2 = 349.532 \quad p < 0.001$$

<표29>는 거주지역별로 노인이 현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서 노인의 거주기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먼저, 시부에서는 현주택에서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11.5%이나 군부에서는 이 비율이 2.8%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주택에서 10년 미만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시부에서는 64.9%나 되고 있으나 군부에서는 18.8%에 지나지 않고 있는 반면에 25년 이상 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시부에서는 13.2%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군부에서는 60.2%를 나타내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V-29> 거주지역별 현주택 거주기간

단위: %(명)

	시부	군부
1년 미만	11.5	2.8
1년-2년 미만	10.8	2.7
2년-3년 미만	9.5	2.3
3년-5년 미만	11.4	2.6
5년-10년 미만	21.7	8.4
10년-15년 미만	11.1	6.4
15년-20년 미만	6.3	6.6
20년-25년 미만	4.5	8.0
25년 이상	13.2	60.2
계	100.0(48,690)	100.0(35,359)

$$\chi^2 = 24354 \quad p < 0.001$$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제6절. 결 론

지금까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와 2% 표본자료 가운데 60세 이상의 인구를 추출하여 노인인구의 제반특성 및 주거 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우선 인구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아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자노인들의 특성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다는 농촌 지역 거주자들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지역 거주노인들이 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농촌 지역 거주자들 가운데 일을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은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되고 있기

는 하지만 이들이 경제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인들이 타 연령층에 비해 직업 분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계를 위해 일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취업 확대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은 가족에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다. 노인들이 타 연령층에 비해 종교를 믿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타 연령층에 비해 의지할 만한 상대를 필요로 한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또한 노인들의 주거 현황과악을 통해서 노인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주택 조건에서 거주하는지와 세대구성상태는 어떠한가를 성과 연령, 거주지역 등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도시 노인들이 농촌 지역 거주노인들에 비해 물리적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7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거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구성에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독신으로 생활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에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가 기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상과 같은 60대 이상 인구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은 향후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더라도 통상 노인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들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노인에게 관련된 제반 특성을 분석한 근거위에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 따른 노인문제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1966, 1975, 1980, 1985.
- 김익기. 1992. "한국과 일본의 인구변천비교." 동국사회연구. 창간호: 43-78.
- 김익기. 1995. 한국인구의 노령화와 사회정책적과제. 광복50주년기념한미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
- 이가옥. 1995. "2000년대를 대비한 한국노인복지의 정책과제." 세계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 이가옥 외. 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1993.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재. 1995. "한국의 노령화와 사회정책."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동서양의 노령화: 인구학적 추세,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함의」 발표논문.
- 통계청. 1991.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1995.
- Coale, Ansley. 1973.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Vol. 1. Liege: IUSSP.
- Cowgill, Donald O. 1986. Aging Round the World. Belmont: Wadsworth.
- _____ and L. D. Holmes. 1978. "Aging and Modernization." in Carver, V. et al.(eds.), An Aging Population: The Open University Press.
- Grigsby, Jill S. 1991. "Paths for Future Population Aging."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31(2): 195-203.
- Kim, Ik Ki. 1987.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in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95. "Demographic Transition and Population Aging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ing in East and West: Demographic Trends, Sociocultural Contexts and Policy Implications.' Sept. 21-22.
- Kim, Ik Ki and E. Choe. 1992. "Support Exchange Patterns of the Elderly in Korea."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7(3): 89-104.
- Martin, Linda. 1989.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in Fiji,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Demography 26: 627-43.
- Suh, Mee Kyung. 1992.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Their Health Status and Kin-based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2): 175-196.

제5장. 교육부문의 변화

제1절. 지역별·성별·학력별 인구비율

1. 지역별·성별·학력별 인구비율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학자는 전체 인구의 7.6%이다. 이는 전집 조사처리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불취학 인구비율인 6.49%(불취학 인구수 2,627,896, 총인구수 40,487,449)보다 높다. 초등학교 졸업자 10.4%, 중학교 졸업자 9.4%, 고등학교 졸업자 26.5%이며, 재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8.9%, 중학교 5.6%, 고등학교 4.9%이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2.8%, 대학 졸업자는 8.9%, 대학원 졸업자는 1.0%이며, 재학생은 전문대학 0.6%, 대학 2.6%, 대학원 0.2%이다.

여성의 비율은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의 경우에는 인구의 성비와 같고, 무학자, 저학력자 및 고학력자의 경우에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다. 무학자의 경우 65% 이상이 여성이며, 초등학교 졸업자의 60% 정도, 중학교 졸업자의 55%, 고등학교 졸업자의 50% 정도가 여성이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0%, 대학 졸업자의 35%, 대학원은 15% 정도가 여성이다. 고등학교 학력에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한 것은 여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과거의 중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무학자의 분포는 전남 15.6%, 경북 14.2%, 충남 13.3%, 전북 12.6%, 충북 10.9% 그리고 강원도와 경북이 10.7% 정도이다. 이는 이 지역의 부모들이 과거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결과이다. 연령이 높아 갈수록 무학자의 비율이 높아 진다. 별첨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49세 1.62%, 50-54세 3.67%, 55-59세 7.12%, 60-64세 10.74% 그리고 65세 이상 43.3%이 무학자이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 수준은 무학자와 유사하고, 중학교 졸업자 비율은 대도시 보다 오히려 지방이 높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중학교 졸업자 비율이 높은 자역이 낮아 과거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졸업시켜준다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학교졸업 수준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남녀 비율이 동일한 수준에 이른 것은 이와 같은 자녀의 기본 학력이 중학교 졸업에서 아들·딸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아직도 딸에 대한 대우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 V-1> 지역별 · 성별 · 학력별 인구비율

지역	무학자[%] (여성)<%>	초 등 학 력			
		졸업자[%] (여성)<%>	재학생[%] (여성)<%>	휴 학[%] (여성)<%>	퇴 학[%] (여성)<%>
서울	[4.8] <66.2>	[7.2] <68.9>	[8.7] <47.8>	[0] <0>	[0.4] <71.5>
부 산	[5.7] <68.8>	[9.5] <68.5>	[9.5] <48.3>	[0] <0>	[0.5] <74.3>
대 구	[7.0] <68.5>	[9.7] <66.5>	[0.6] <45.0>	[0] <0>	[0.5] <67.5>
인 천	[6.6] <66.6>	[9.0] <66.1>	[11.0] <48.2>	[0] <0>	[0.5] <71.0>
광 주	[6.7] <67.1>	[8.7] <67.1>	[10.2] <49.0>	[0] <0>	[0.4] <64.3>
대 전	[6.7] <65.8>	[9.3] <64.7>	[10.1] <47.5>	[0] <0>	[0.6] <67.4>
경 기	[7.1] <64.1>	[9.5] <63.9>	[10.7] <48.6>	[0.0] <0.0>	[0.5] <69.4>
강 원	[10.7] <69.1>	[16.7] <59.7>	[9.5] <48.2>	[0] <0>	[1.0] <62.7>
충 북	[10.9] <66.6>	[16.6] <58.4>	[9.6] <47.1>	[0] <0>	[1.0] <63.0>
충 남	[13.3] <69.0>	[21.2] <56.2>	[9.6] <46.9>	[0.0] <66.7>	[0.9] <62.9>
전 북	[12.6] <70.6>	[16.2] <59.4>	[9.6] <50.3>	[0.0] <100.0>	[0.9] <65.3>
전 남	[15.6] <73.1>	[20.2] <57.8>	[9.8] <50.0>	[0] <0>	[0.9] <60.5>
경 북	[14.2] <68.0>	[18.0] <59.1>	[9.1] <46.8>	[0] <0>	[0.9] <65.2>
경 남	[10.7] <69.7>	[11.6] <61.5>	[10.5] <47.4>	[0.0] <0>	[0.6] <69.6>
제 주	[12.1] <77.4>	[11.2] <67.0>	[9.5] <49.1>	[0.0] <0>	[0.6] <78.6>
계	[7.6] [10.4]	[10.4]	[8.9]	[0.0]	[0.5]

주: []안의 숫자는 동일지역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 < >안의 숫자는 여성의 동일지역의 동일 학력에 대한 비율.

(계속)

지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졸업	재학	휴학	퇴학	졸업	재학	휴학	퇴학
서울	[9.3] <60.9> [12.3]	[5.8] <48.3> [6.6]	[0.0] <41.7> [0.0]	[0.5] <43.8> [0.6]	[31.2] <53.0> [30.3]	[5.4] <48.1> [6.1]	[0.0] <41.3> [0.0]	[0.6] <33.1> [0.9]
부산	<58.1> [11.1]	<48.4> [6.1]	<44.4> [0.0]	<43.1> [0.5]	<49.8> [28.4]	<49.2> [5.7]	<22.2> [0.0]	<32.2> [0.7]
대구	<58.8> [10.7]	<47.6> [5.8]	<100> [0.0]	<44.6> [0.7]	<50.2> [34.7]	<49.1> [4.7]	<14.3> [0.0]	<33.7> [0.7]
인천	<56.6> [9.3]	<48.1> [7.2]	<0> [0.0]	<36.1> [0.3]	<49.9> [27.0]	<48.2> [6.2]	<44.4> [0.0]	<30.9> [0.5]
광주	<60.1> [9.5]	<50.2> [6.3]	<100> [0.0]	<42.5> [0.5]	<51.5> [26.6]	<48.1> [5.7]	<16.7> [0.0]	<32.4> [0.7]
대전	<59.5> [10.1]	<46.2> [5.5]	<0> [0.0]	<48.4> [0.5]	<52.9> [34.0]	<49.8> [4.4]	<14.3> [0.0]	<28.7> [0.7]
경기	<56.2> [10.8]	<48.6> [6.7]	<40.0> [0]	(41.0) [0.7]	<50.7> [23.7]	<48.5> [5.9]	<37.9> [0.0]	<33.3> [0.8]
강원	<51.9> [9.7]	<47.3> [6.3]	<0> [0.0]	<31.3> [0.5]	<47.4> [24.7]	<49.4> [5.5]	<25.0> [0.0]	<33.5> [0.5]
충북	<53.4> [10.4]	<49.5> [6.4]	<50.0> [0.0]	<40.7> [0.3]	<49.1> [21.2]	<48.2> [5.7]	<60.0> [0.0]	<36.5> [0.5]
충남	<50.2> [9.8]	<50.6> [6.6]	<100> [0.0]	<31.3> [0.4]	<46.9> [22.2]	<53.0> [6.0]	<40.0> [0.0]	<28.1> [0.5]
전북	<52.4> [10.4]	<49.9> [6.8]	<75.0> [0.0]	<38.5> [0.4]	<48.0> [20.4]	<50.0> [5.5]	<0> [0.0]	<28.3> [0.5]
전남	<47.6> [10.5]	<49.1> [6.1]	<50.0> [0.0]	<26.1> [0.4]	<45.5> [22.9]	<50.9> [5.3]	<50.0> [0.0]	<27.2> [0.5]
경북	<51.1> [10.5]	<49.6> [6.3]	<100> [0.0]	<34.0> [0.3]	<46.7> [29.7]	<49.8> [5.3]	<11.1> [0.0]	<30.4> [0.5]
경남	<54.5> [10.1]	<47.4> [6.2]	<0> [0]	<41.4> [0.6]	<48.9> [26.8]	<49.6> [5.7]	<20.0> [0.0]	<27.2> [0.7]
제주	<50.5> [9.4]	<49.3> [5.6]	<0> [0]	<37.0> [0.04]	<47.6> [26.5]	<48.3> [4.9]	<100> [0.0]	<30.3> [0.6]
계								

(계속)

지역	전 문 대 학				대 학				대 학 원			
	졸업	재학	휴학	퇴학	졸업	재학	휴학	퇴학	졸업	재학	휴학	퇴학
서울	[3.3]	[0.6]	[0.1]	[0.1]	[14.5]	[3.8]	[0.3]	[0.9]	[1.9]	[0.4]	[0.0]	[0]
	<52.7>	<49.7>	<15.5>	<37.0>	<39.9>	<43.0>	<15.1>	<31.1>	<24.8>	<36.1>	<42.9>	<37.9>
부산	[3.4]	[0.8]	[0.1]	[0.1]	[9.0]	[3.0]	[0.3]	[0.6]	[0.7]	[0.1]	[0]	[0.0]
	<50.9>	<53.4>	<13.2>	<20.3>	<39.0>	<43.8>	<9.1>	<22.4>	<18.6>	<31.4>	<0>	<42.9>
대구	[3.8]	[1.1]	[0.1]	[0.1]	[9.8]	[3.7]	[0.3]	[0.7]	[0.9]	[0.2]	[0.0]	[0.0]
	<49.7>	<48.5>	<10.4>	<40.0>	<40.4>	<47.0>	<11.9>	<26.9>	<19.7>	<31.5>	<25.0>	<0.0>
인천	[34.7]	[0.5]	[0.1]	[0.1]	[8.1]	[1.7]	[0.2]	[0.7]	[0.7]	[0.1]	[0.0]	[0.0]
	<49.9>	<46.4>	<22.6>	<26.9>	<32.7>	<40.9>	<15.2>	<19.5>	<16.5>	<29.1>	<0>	<20.0>
광주	[3.1]	[1.1]	[0.1]	[0.1]	[12.2]	[5.0]	[0.3]	[0.5]	[1.1]	[0.2]	[0.0]	[0.0]
	<53.6>	<54.4>	<15.0>	<28.6>	<36.5>	<41.3>	<9.5>	<26.4>	<17.8>	<43.5>	<33.3>	<0>
대전	[3.5]	[1.0]	[0.0]	[0.1]	[11.8]	[4.4]	[0.3]	[0.7]	[1.8]	[0.4]	[0.0]	[0.0]
	<52.0>	<52.8>	<18.2>	<31.6>	<37.5>	<38.6>	<16.4>	<32.2>	<15.2>	<17.6>	<0>	<75.0>
경기	[3.2]	[0.4]	[0.0]	[0.1]	[10.3]	[1.8]	[0.2]	[0.6]	[1.1]	[0.2]	[0.0]	[0.0]
	<45.9>	<49.2>	<14.8>	<33.0>	<35.7>	<40.7>	<13.0>	<29.9>	<18.8>	<26.4>	<42.1>	<30.2>
강원	[2.4]	[0.8]	[0.1]	[0.1]	[6.4]	[2.6]	[0.2]	[0.5]	[0.5]	[0.1]	[0]	[0.0]
	<50.6>	<53.8>	<0>	<19.0>	<33.4>	<37.1>	<10.4>	<23.6>	<15.1>	<9.5>	<25.0>	<20.0>
충북	[2.3]	[0.5]	[0.1]	[0.1]	[6.8]	[3.6]	[0.2]	[0.5]	[0.6]	[0.2]	[0.0]	[0.0]
	<44.9>	<46.3>	<13.3>	<30.0>	<32.9>	<36.9>	<14.5>	<23.9>	<14.2>	<20.0>	<33.3>	<33.3>
충남	[2.3]	[0.5]	[0.0]	[0.1]	[4.9]	[1.7]	[0.2]	[0.3]	[0.5]	[0.1]	[0]	[0.0]
	<41.9>	<45.0>	<0>	<33.3>	<32.6>	<35.1>	<6.9>	<25.5>	<13.8>	<22.2>	<0>	<0.0>
전북	[1.8]	[0.7]	[0.0]	[0.1]	[7.2]	[3.7]	[0.2]	[0.4]	[0.7]	[1.1]	[0.0]	[0.0]
	<0.0>	<60.7>	<15.4>	<36.8>	<36.2>	<40.7>	<10.3>	<14.1>	<14.2>	<34.9>	<0.0>	<16.7>
전남	[1.9]	[0.7]	[0.1]	[0.1]	[4.7]	[1.4]	[0.2]	[0.2]	[0.3]	[0.0]	[0.0]	[0.0]
	<40.7>	<50.2>	<8.3>	<35.0>	<33.9>	<46.0>	<6.8>	<21.3>	<17.1>	<40.0>	<40.0>	<0.0>
경북	[3.1]	[0.9]	[0.1]	[0.1]	[5.4]	[1.0]	[0.2]	[0.3]	[0.5]	[0.1]	[0.0]	[0.0]
	<44.1>	<52.7>	<9.1>	<33.3>	<37.1>	<40.0>	<10.6>	<24.4>	<14.8>	<24.1>	<66.7>	<0.0>
경남	[3.1]	[0.4]	[0.1]	[0.1]	[7.2]	[1.8]	[0.2]	[0.4]	[0.6]	[0.1]	[0.0]	[0.0]
	<46.6>	<57.4>	<8.1>	<29.6>	<36.4>	<40.6>	<9.7>	<18.9>	<16.9>	<21.2>	<20.0>	<42.9>
제주	[3.6]	[1.2]	[0.1]	[0.1]	[7.3]	[2.5]	[0.3]	[0.5]	[0.8]	[0.2]	[0.0]	[0.0]
	<48.7>	<53.2>	<0.0>	<14.3>	<39.4>	<49.6>	<8.3>	<23.5>	<15.1>	<40.0>	<0.0>	<0.0>
계	[2.8]	[0.6]	[0.1]	[0.1]	[8.9]	[2.6]	[0.2]	[0.6]	[1.0]	[0.2]	[0.0]	[0.0]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가구주의 자녀교육의 기대 수준에서 아들과 딸의 학력 수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가구주가 “자녀를 어느 학교 단계까지 교육시키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에 반응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교육의 사회적 수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우리 사회에서의 높은 교육열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를 대학 수준까지 교육시키겠다는 가구주의 비율이 약 65%에 이른다. 자녀 교육의 기대 수준은 자녀의 성별 그리고 가구주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교육 기대 수준은 자녀의 성별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아들, 딸 모두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비율은 비슷하지만, 아들의 경우 ‘대학원 이상’ 21.9%, 고등학교 12.1%인데 비해 딸의 경우 ‘대학원 이상’ 14.6%, ‘고등학교’ 17.6%로서 아들에 대한 교육 기대 수준이 딸에 대한 교육 기대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자녀의 교육 기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 중졸 가구주와 고졸 가구주와의 자녀 교육 기대 수준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고, 초등졸 가구주와 중졸 가구주 그리고 고졸 가구주와 대졸 가구주 간에는 차이가 큰 편이다. 모든 가구주는 아들이든 딸이든 중학교 이상 교육시키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대졸 가구주의 경우 아들을 중학교까지만 교육시키겠다는 반응은 없었다.

제2절. 학력변화

1. 국민의 성별 학력구성비

국민의 학력 구성은 대학을 졸업한 연령을 25세로 보고 25세 이상의 인구 중 각 교육 단계별 졸업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및 교육발전의 기본 요소가 된다. 각급학교의 재학자와 중퇴자 및 휴학자는 해당급 학교의 아래 학교의 졸업자로 합산하였다. 국민의 학력 구성비율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국민의 학력구성비} = \frac{\text{교육단계별 졸업자수}}{\text{25세 이상의 성인인구수}} \times 100$$

<표 V - 2> 국민의 학력구성비

(단위; %)

년 도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70	73.4	61.2	84.7	11.5	15.1	8.2	10.2	15.2	5.5	4.9	8.5	1.6
1975	65.5	53.1	77.1	14.8	17.7	12.1	13.9	19.7	8.4	5.8	9.5	2.4
1980	55.3	42.8	67.0	18.1	19.8	16.5	18.9	25.4	12.9	7.7	12.0	3.6
1985	43.4	31.9	54.1	20.5	20.5	20.5	25.9	32.1	20.2	10.2	15.5	5.2
1990	33.4	23.3	43.0	19.0	17.6	20.3	33.5	38.9	28.4	14.1	20.1	8.3
1995	27.6	18.6	36.2	15.7	14.5	16.9	37.5	41.1	34.1	19.1	25.7	12.8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통계청, 총인구 및 주택보고, 전국편,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지난 20년간 한국 국민의 학력 구성비에 따르면, 초등졸 이하의 저학력 인구는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에, 고졸 및 대졸 인구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에 73.4%였던 초등졸 이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도에 27.6%로 줄었다. 이에 비해 고졸 인구는 1970년의 10.2%에서 1995년에 37.5%로 증가하였고, 대졸 이상 인구는 1970년의 4.9%에서 1995년에 19.1%로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고졸 이상 인구가 약 56.6%를 차지함으로써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고학력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고학력자의 경우 여전히 남성의 학력 증가율이 여성의 학력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에 비하여 고등교육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의 대학 진학율의 증가율이 향상되는 반면, 남성들의 대학학력 구성비율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2. 주요 외국과의 비교

<표 V- 3> 주요 외국과의 학력 구성비 비율 비교

국가명/기준년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한 국 1995	43.3	37.5	3.7	15.4
미 국 1994	15.0	53.0	8.0	24.0
영 국 1994	26.0	54.0	9.0	12.0
독 일 1994	16.0	62.0	10.0	13.0
프랑스 1994	33.0	50.0	8.0	9.0
OECD 1994	41.0	39.0	8.0	12.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6, 5쪽

주요국의 국민의 학력 구성비는 2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인구 중 최종 학력 졸업자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1990년경 우리 나라와 주요 국가간의 국민의 학력 구성비를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한국(1995, 25세 이상 전인구 대상)이 43.3%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프랑스(33.0%, 19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독일(1994)이 62.0%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영국(54.0%, 199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1994)으로 약 24.0%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는 한국(1995)으로, 약 16.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소로서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이는 국민전체의 교육수준 및 의식수준 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정책의 수립 및 수행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지표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국민의 평균 교육년수} = \frac{\text{국민의 총 교육년수}}{\text{만 6세 이상 인구} - \text{학생 인구}}$$

지난 20년간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로 젊은 연령층의 평균 교육년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1970년에 5.74년이었던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1995년에는 10.14년으로 증가하여 25년 사이에 약 1.8배 이상 가깝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이 중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970년에는 6.86년이었으나 1995년에는 11.09년으로 그간 4.23년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여자의 경우 1970년에는 4.72년이었으나 1995년에는 9.26년으로 그간 4.54년이 증가하여 남자보다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녀간 차이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에 남자는 6.86년이고, 여자는 4.72년으로 그 차이가 2.14년이었으나, 1995년에는 남자는 11.09년이고, 여자는 9.26년으로 그 차이가 1.83년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여자의 평균 교육년수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남녀간의 차이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 4>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

(단위: 년)

구 분		평 균	6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세 이상
1970	전체	5.74	5.33	8.32	7.15	4.83	1.98
	남	6.86	5.47	8.81	8.65	6.42	3.06
	여	4.72	5.21	7.48	5.64	3.36	1.09
1975	전체	6.62	6.16	8.83	8.12	6.26	2.74
	남	7.61	6.26	9.25	9.33	7.90	4.02
	녀	5.70	6.08	8.41	6.88	4.75	1.72
1980	전체	7.61	6.53	9.88	9.17	7.52	4.16
	남	8.67	6.60	10.33	10.19	9.01	5.03
	여	6.63	6.10	9.44	8.10	5.95	2.25
1985	전체	8.58	6.71	10.96	10.12	8.52	4.55
	남	9.66	6.71	11.34	10.93	9.88	6.49
	여	7.58	6.71	10.61	9.28	7.14	3.08
1990	전체	9.54	7.74	12.03	11.09	9.52	5.53
	남	10.55	7.70	12.26	11.78	19.64	7.56
	여	8.58	7.79	11.81	10.37	8.35	3.92
1995	전체	10.14	6.81	12.66	12.06	10.41	6.38
	남	11.09	6.61	12.65	12.62	11.31	8.45
	여	9.26	7.01	12.67	11.49	9.47	4.72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주: 국민의 총 교육 연수는 각급학교 졸업자수 x 각급학교 재학년수(6, 9, 12, 14, 16년)의 총수 +
 각급학교 중퇴자수 x (초등 3, 중학 7.5, 고등 10.5, 초급대 13, 대학 14년)의 총수

제3절. 학령인구변화

1. 학령인구의 변화

학령 인구는 교육인구수를 가늠할 수 있는 일차적 요인이다. 이러한 학령 인구는 한 국가의 교육제도와 밀접히 관련된다. 한국에서의 학령 인구는 교육법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까지의 인구를 말한다. 즉 만 6세~11세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구이고 만 12세~17세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만 18~21세는 고등교육인구에 해당된다.

$$\text{학령인구수} = \text{해당학령인구수}$$

한국의 학령인구는 대체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 6~11세의 경우 1970년에는 5,710,825명이던 것이 1985년에는 4,862,906명, 1995년에는 3,824,982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만 12~14세의 경우에는 1970년에는 2,574,146명이던 것이 1985년에는 2,780,22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2,414,491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만 15~17세의 경우에도 1970년에는 2,101,164명이던 것이 1985년에는 2,708,94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2,371,503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만 18~21세의 경우에도 1970년에는 2,217,953명이던 것이 1985년에는 3,394,665명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3,070,349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1996년 현재 한국의 학령 인구는 총 11,848,518명이며, 이 중 여자가 5,705,618명으로 약 48.2%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된다. 학령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6~11세가 3,914,706명, 만 12세~14세가 2,312,164명, 만 15~17세가 2,497,547명, 그리고 만 18~21세가 3,124,101명이다. 증가 현황 및 비율은 다음표와 같다.

<표 V - 5> 학령인구증가현황

년 도	6 - 11 세		12 - 14 세		15 - 17 세		18 - 21 세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5,710,825	2,748,890	2,574,146	1,239,900	2,101,164	1,014,644	2,217,953	1,077,783
1975	5,330,929	2,571,697	2,819,329	1,357,063	2,737,755	1,319,319	2,994,594	1,453,693
1980	5,499,265	2,646,349	2,599,386	1,255,111	2,670,705	1,285,237	3,631,634	1,753,973
1985	4,862,906	2,353,645	2,780,223	1,347,679	2,708,942	1,313,893	3,394,665	1,640,240
1990	4,876,801	2,358,682	2,312,263	1,123,644	2,618,360	1,280,426	3,690,170	1,780,091
1995	3,824,982	1,829,759	2,414,491	1,166,369	2,371,503	1,150,797	3,070,349	1,476,01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 학교급별 취학인구변화 비율

이 지표는 취학 적령(만 4~21세) 인구 가운데 유치원(만 4~5세),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그리고 고등교육기관(만 18~21세)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국민의 교육 기회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취학률을 산출할 때 '각급 학교 학생수'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취학률이 100% 이상일 경우도 발생

한다.

각급 학교 학생수

$$\text{취학률(\%)} = \frac{\text{각급 학교 취학자령 인구}}{\text{각급 학교 학생수}} \times 100$$

각급 학교 취학자령 인구

유치원(만 4~5세)의 취학률은 1970년 1.3%, 1990년 30.9%에서 1996년 41.9%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오래 전부터 완전 취학을 이루고 있었으나 1990년 이후 취학률이 100%이하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수의 감소보다 초등학교 학생수의 감소가 현저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학교 취학률은 1970년 54.1%, 1990년 98.4% 이던 것이 1995년에는 102.8%, 1996년에는 102.9%를 나타냄으로써 중학교도 완전 취학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초등학교의 취학률이 낮아지고 중학교의 취학률이 높아진 것은 1994년도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및 학생수의 추이로 볼 때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 29.3%, 1990년 87.2%에서 1996년에는 89.8%에 이르고 있으며 고등교육 취학률은 1970년 9.0%, 1980년 17.0%, 1995년 57.9%에서 1996년에는 61.8%로 전체의 약 60%를 넘어 섰다.

<표 V- 6> 학교급별 취학률

(단위 : %)

년 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1970	1.3	102.8	54.1	29.3	9.0
1975	1.7	106.1	72.6	41.8	9.7
1980	4.3	103.1	96.0	66.2	17.0
1985	18.6	102.0	99.7	78.3	37.2
1990	30.9	99.8	98.4	87.2	37.4
1995	40.1	102.1	102.8	91.0	57.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6, 32쪽

3. 연령별·성별 불취학 인구비율

취학을만을 보면 미취학 또는 불취학 인구는 거의 없어야 하는데 교육통계연보상의 불취학 인구수는 상당수에 이른다.

<표 V- 7> 연령별·성별 불취학 인구비율

(단위:%)

연 령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19.5	13.7	25.3	14.3	9.7	18.8	11.8	7.8	15.8	9.4	5.7	13.1	7.8	4.5	11.0	6.5	3.5	9.4
6-9	17.4	16.3	18.6	15.0	14.5	15.5	15.5	15.2	15.8	16.8	16.6	17.1	14.5	14.5	14.4	16.3	16.5	16.1
10-14	1.2	0.9	1.6	0.7	0.6	0.8	0.4	0.4	0.4	0.1	0.1	0.1	0.1	0.2	0.1	0.09	0.1	0.08
15-19	1.6	1.2	2.0	0.9	0.8	0.9	0.5	0.5	0.5	0.2	0.2	0.2	0.2	0.2	0.2	0.1	0.1	0.1
20-24	2.6	1.7	3.6	1.2	1.1	1.4	0.7	0.6	0.7	0.3	0.3	0.3	0.2	0.2	0.2	0.2	0.2	0.1
25-29	5.7	3.1	8.3	2.2	1.5	2.9	1.1	0.8	1.3	0.5	0.4	0.6	0.3	0.3	0.3	0.2	0.2	0.2
30-34	10.4	4.7	16.1	4.7	2.5	6.9	2.1	1.2	3.0	0.8	0.6	1.0	0.5	0.4	0.6	0.3	0.3	0.3
35-39	18.4	8.4	28.1	8.7	4.0	13.5	4.6	2.4	6.9	1.8	0.9	2.7	0.9	0.6	1.3	0.5	0.4	0.6
40-44	31.0	16.7	43.9	16.5	7.5	25.2	8.9	4.2	13.8	4.4	2.1	6.9	2.1	1.1	3.1	0.9	0.6	1.2
45-49	44.2	29.5	58.4	28.8	15.3	40.4	17.1	8.0	25.8	8.7	3.6	13.8	5.1	2.3	8.0	2.1	1.1	3.2
50-54	57.2	43.2	70.9	43.0	28.5	56.3	30.9	16.7	43.0	17.7	7.3	27.2	10.7	4.4	16.9	5.5	2.4	8.7
55-59	66.9	53.9	78.8	56.2	42.3	68.9	46.0	30.6	59.4	31.8	15.5	44.7	20.7	8.8	31.2	11.9	4.7	18.5
60이상	84.6	74.5	91.2	76.6	64.5	84.9	72.2	57.5	82.0	63.5	45.3	75.5	54.2	34.9	66.7	42.3	23.2	55.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주: 산출방식은 해당 연령의 미취학 인구수를 해당연령 총 인구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였음.

4. 학교급별 진학률

학교급별 진학률은 졸업생 대비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상급 학교 진학 경쟁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진학률의 산출은 여러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상급 학교 입학생수를 하급 학교 졸업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입학생수’에는 전년도 졸업생인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다.

상급학교 입학생수(재수생 포함)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입학생수(재수생 포함)}}{\text{졸업생수}} \times 100$$

중학교 입학 단계에서의 진학률은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의 도입으로 사실상 진학 희망률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1970년 63.2%, 1980년 93.7%, 1990년 99.4% 그리고 1996년에는 99.0%이다.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의 진학률은 1970년 70.2%, 1980년 84.6%, 1990년 91.4% 그리고 1996년 98.7%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고등교육 입학 단계에서 진학률을 산출할 때, 재수생을 입학 생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 지표는 당해년도 졸업생의 진학 기회와는 차이가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재수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해년도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그 만큼 낮아진다. 고등교육의 경우 1970년 33.9%, 1980년 43.0%, 1990년 43.3%를 나타냈고, 1996년은 78.9%로 나타나 1995년 이후에는 약 50% 이상의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고등교육 입학생에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의 입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표 V- 8> 학교급별 진학률

년 도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교
1970	63.2	70.2	33.9
1975	76.8	75.5	30.4
1980	93.7	84.6	43.0
1985	98.9	88.8	48.8
1990	99.4	91.4	43.3
1995	99.4	96.5	78.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6, 34쪽

제4절. 학생인구이동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 대도시의 경우 과대학교(학교당 학생수 2,000명 이상)와 과밀학급(학급당 35명 이상)에 의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학교의 신·증축을 통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나가야 하나 학생 인구의 유동폭이 매우 넓어 지역별로 학생 수용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처럼 학생들의 이동 즉, 전출과 전입 현상은 지역에 따라 예측을 불가능하게하여 적정한 학교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3-4년씩 걸린다.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학생 인구 이동은 다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에 지장이 없는 저학년에서 전학을 가야 한다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전학비율은 1970년에 6.89%였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11.34%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 경우 전입 비율이 전출 비율보다 낮아 그 수만큼의 학생들이 대도시 또는 수도권으로 전학했음을 알 수 있다. 고학년 보다 저학년에서 높은 이동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5년의 경우 서울과 부산으로 전입된 비율은 전출 비율보다 낮으며, 나머지 대도시의 전입 비율은 전출 보다 높다. 경기도의 경우 1980년까지는 전출 비율이 높다가 1985년 이후부터 전입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 근교에 위성도시가 건설되면서 타지역으로부터 전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대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전입 비율은 전출 비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에서 약 4.35%, 3학년에서는 1.54%의 전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출과 전입의 불균형은 중학교에서도 여전하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경기 지역으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의 학생인구 이동 역시 초·중학교와 유사하게 1970년부터 증가하여왔다. 1학년에 전출입이 많고 3학년으로 갈수록 낮은 것은 초·중학교와 같다. 전출입의 불균형 역시 초·중학교와 유사하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경기도로 유입되었다. 서울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출이 전입 비율보다 높은 이유는 수도권의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신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민간행물 제148호

<표 V- 9> 재학생 전출·입 비율(초등학교)

구분	출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체	전출	6.19 (2.87)	6.71 (3.17)	7.82 (3.72)	8.58 (4.12)	9.92 (4.78)	11.34 (5.48)
	전입	5.59 (2.56)	6.09 (2.84)	7.41 (3.53)	8.50 (4.07)	9.86 (4.74)	11.01 (5.30)
1학년	전출	5.87 (2.76)	6.82 (3.22)	9.63 (4.66)	10.61 (5.13)	12.97 (6.29)	12.46 (6.05)
	전입	5.17 (2.42)	5.73 (2.72)	8.45 (4.13)	9.95 (4.84)	12.45 (6.00)	11.58 (5.58)
2학년	전출	6.72 (3.14)	7.84 (3.72)	9.51 (4.58)	10.07 (4.85)	12.42 (6.05)	13.64 (6.58)
	전입	6.03 (2.82)	7.08 (3.39)	9.04 (4.36)	9.79 (4.73)	12.39 (6.04)	13.22 (6.41)
3학년	전출	6.31 (2.98)	6.88 (3.30)	7.91 (3.81)	9.97 (4.880)	10.73 (5.19)	13.00 (6.27)
	전입	5.95 (2.68)	6.56 (3.11)	7.63 (3.37)	9.82 (4.76)	10.75 (5.16)	12.60 (6.05)
4학년	전출	5.72 (2.67)	6.87 (3.31)	7.50 (3.57)	8.82 (4.21)	9.72 (4.67)	11.47 (5.54)
	전입	5.45 (2.50)	6.39 (3.00)	7.21 (3.47)	8.77 (4.19)	9.71 (4.67)	11.22 (5.37)
5학년	전출	6.94 (3.18)	7.06 (3.27)	7.59 (3.50)	7.68 (3.64)	7.92 (3.78)	11.23 (5.44)
	전입	6.21 (2.78)	6.55 (2.98)	7.24 (3.35)	7.72 (3.67)	7.83 (3.72)	11.05 (5.32)
6학년	전출	5.58 (2.47)	4.89 (2.22)	4.79 (2.17)	5.12 (2.39)	6.53 (3.08)	8.01 (3.86)
	전입	4.71 (2.15)	4.33 (1.90)	4.88 (2.19)	5.59 (2.58)	6.80 (3.24)	8.09 (3.89)
서울	전출	9.57 (4.48)	10.09 (4.87)	10.47 (5.10)	10.98 (5.28)	10.23 (4.96)	11.95 (5.78)
	전입	12.71 (5.72)	11.20 (5.20)	11.63 (5.49)	12.19 (5.75)	11.38 (5.41)	10.38 (4.96)
부산	전출	8.06 (3.88)	11.40 (5.44)	9.00 (4.43)	8.30 (4.06)	9.58 (4.65)	11.76 (5.64)
	전입	10.03 (4.73)	12.84 (5.94)	10.60 (5.08)	8.59 (4.22)	9.76 (4.71)	10.41 (4.97)
대구	전출				9.60 (4.62)	9.94 (4.81)	13.33 (6.30)
	전입				11.98 (5.63)	12.38 (5.88)	14.06 (6.55)
인천	전출				8.74 (4.25)	10.38 (5.06)	12.87 (6.33)
	전입				10.57 (5.08)	12.62 (6.07)	13.06 (6.34)
광주	전출					10.13 (4.93)	15.05 (7.28)
	전입					11.92 (5.63)	16.50 (7.99)
대전	전출					10.52 (5.06)	14.38 (6.91)
	전입					14.49 (6.84)	14.57 (7.07)
경기	전출	6.47 (2.99)	7.01 (3.34)	11.09 (5.25)	10.26 (4.93)	11.86 (5.75)	11.72 (5.72)
	전입	5.72 (2.16)	6.55 (3.13)	6.55 (3.13)	11.95 (5.81)	11.36 (5.56)	13.66 (6.64)
강원	전출	8.37 (3.90)	8.32 (3.88)	9.30 (4.40)	7.84 (3.80)	11.71 (5.60)	10.54 (5.08)
	전입	6.30 (2.88)	6.21 (2.95)	6.26 (3.04)	6.62 (3.22)	8.67 (4.27)	10.02 (4.87)
충북	전출	6.16 (2.76)	5.98 (2.77)	7.04 (3.25)	8.33 (3.95)	9.12 (4.38)	9.99 (4.95)
	전입	4.05 (1.85)	4.49 (2.09)	5.00 (2.34)	6.88 (3.34)	8.65 (4.15)	9.81 (4.73)
충남	전출	5.34 (2.43)	4.70 (2.21)	5.43 (2.54)	6.95 (3.33)	8.14 (3.86)	8.58 (4.17)
	전입	3.76 (1.770)	3.50 (1.62)	5.09 (2.41)	7.12 (3.47)	6.31 (3.03)	8.34 (4.06)
전북	전출	4.54 (2.09)	4.96 (2.29)	6.51 (3.02)	6.66 (3.18)	9.48 (4.50)	9.22 (4.38)
	전입	2.96 (1.32)	4.11 (1.89)	4.76 (2.28)	5.15 (2.50)	7.90 (3.80)	8.86 (4.21)
전남	전출	3.37 (1.51)	4.32 (2.02)	6.08 (2.85)	6.80 (3.24)	8.55 (4.00)	9.99 (4.77)
	전입	2.48 (1.12)	2.83 (1.33)	4.45 (2.12)	5.88 (2.77)	5.55 (2.62)	7.39 (3.59)
경북	전출	6.15 (2.85)	6.02 (2.80)	8.11 (3.76)	6.44 (2.94)	9.34 (4.39)	8.77 (4.11)
	전입	5.15 (2.38)	5.03 (2.33)	7.17 (3.36)	4.31 (2.06)	6.85 (3.28)	7.81 (3.77)
경남	전출	5.73 (2.68)	5.32 (2.46)	7.18 (3.35)	6.73 (3.27)	8.52 (4.18)	9.95 (4.86)
	전입	3.62 (1.66)	4.12 (1.94)	5.78 (2.80)	5.90 (2.89)	8.39 (4.18)	8.83 (4.26)
제주	전출	3.34 (1.60)	4.45 (2.10)	4.80 (2.28)	6.88 (3.35)	6.10 (2.98)	8.59 (4.11)
	전입	3.04 (1.46)	3.98 (1.80)	5.10 (2.49)	5.89 (2.77)	5.83 (2.83)	7.68 (3.80)

주: 전체비율= 전출입학생수/총학생수 x 100; 지역별 비율= 지역전출입학생수/지역총학생수x100

학년별 비율= 학년별전출입학생수/학년별총학생수 x 100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 연도, 이하 같음

<표 V- 10> 재학생 전출·입 비율(중학교)

구 분	전출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체	전출	1.04 (0.430)	1.55 (0.60)	1.75 (0.74)	2.07 (0.92)	2.27 (1.08)	3.03 (1.49)
	전입	1.07 (0.40)	1.68 (0.64)	1.75 (0.75)	2.09 (0.94)	2.26 (1.07)	3.02 (1.47)
1학년	전출	1.34 (0.53)	1.63 (0.68)	2.11 (0.94)	2.71 (1.21)	2.76 (1.30)	4.35 (2.06)
	전입	1.01 (0.42)	1.44 (0.60)	1.89 (0.85)	2.47 (1.11)	2.54 (1.20)	4.08 (1.96)
2학년	전출	1.22 (0.46)	1.78 (0.67)	1.96 (0.82)	2.34 (1.05)	2.79 (1.33)	3.20 (1.60)
	전입	1.41 (0.52)	2.03 (0.76)	1.99 (0.84)	2.37 (1.08)	2.81 (1.33)	3.28 (1.63)
3학년	전출	0.43 (0.16)	1.21 (0.44)	1.14 (0.44)	1.12 (0.49)	1.31 (0.63)	1.54 (0.80)
	전입	0.75 (0.22)	1.55 (0.57)	1.36 (0.55)	1.38 (0.62)	1.48 (0.70)	1.73 (0.90)
서울	전출	1.22 (0.53)	1.03 (0.46)	1.09 (0.52)	2.06 (0.92)	1.67 (0.80)	3.91 (1.96)
	전입	1.30 (0.56)	2.72 (1.15)	2.25 (0.97)	2.88 (1.26)	1.61 (1.23)	3.17 (1.60)
부산	전출	0.83 (0.30)	1.37 (0.61)	1.11 (0.50)	2.03 (0.93)	1.82 (0.90)	2.99 (1.46)
	전입	0.90 (0.34)	3.21 (1.00)	3.07 (1.19)	2.28 (1.10)	2.30 (1.12)	2.65 (1.28)
대구	전출				1.04 (0.46)	0.95 (0.44)	2.17 (1.06)
	전입				2.22 (0.89)	2.07 (0.96)	2.53 (1.22)
인천	전출				1.16 (0.53)	1.60 (0.80)	2.58 (1.32)
	전입				2.66 (1.21)	2.45 (1.19)	3.01 (1.52)
광주	전출					1.44 (0.62)	1.66 (0.81)
	전입					2.74 (1.31)	2.48 (1.17)
대전	전출					1.81 (0.78)	4.26 (1.97)
	전입					3.80 (1.79)	5.40 (2.53)
경기	전출	0.69 (0.28)	1.61 (0.63)	1.73 (0.73)	2.42 (1.13)	2.73 (1.34)	3.27 (1.64)
	전입	0.80 (0.28)	1.38 (0.52)	2.13 (0.96)	2.86 (1.33)	2.99 (1.44)	5.16 (2.58)
강원	전출	1.92 (0.75)	2.74 (1.04)	3.22 (1.38)	3.10 (1.37)	4.09 (1.99)	3.66 (1.79)
	전입	1.43 (0.56)	1.65 (0.64)	1.77 (0.73)	2.13 (0.91)	2.32 (1.12)	2.79 (1.35)
충북	전출	1.16 (0.40)	1.78 (0.65)	2.28 (0.91)	2.83 (1.29)	2.78 (1.29)	2.40 (1.12)
	전입	1.30 (0.40)	1.28 (0.42)	1.41 (0.60)	2.05 (0.96)	2.25 (1.04)	2.40 (1.15)
충남	전출	1.02 (0.36)	1.54 (0.58)	1.63 (0.65)	1.91 (0.84)	3.00 (1.40)	2.68 (1.31)
	전입	1.06 (0.41)	1.21 (0.44)	1.19 (0.51)	1.63 (0.86)	1.62 (0.82)	2.14 (1.04)
전북	전출	0.87 (0.32)	1.45 (0.53)	1.76 (0.72)	2.06 (0.92)	2.67 (1.25)	2.32 (1.11)
	전입	0.95 (0.29)	1.03 (0.39)	1.13 (0.48)	1.29 (0.56)	1.56 (0.72)	1.94 (1.02)
전남	전출	1.01 (0.37)	1.42 (0.57)	1.77 (0.72)	2.04 (0.91)	3.42 (1.55)	2.94 (1.41)
	전입	1.12 (0.38)	1.23 (0.55)	1.17 (0.47)	1.43 (0.65)	1.42 (0.67)	1.87 (0.85)
경북	전출	0.94 (0.35)	1.61 (0.63)	1.97 (0.84)	2.28 (0.95)	3.01 (1.42)	2.50 (1.22)
	전입	0.91 (0.31)	1.44 (0.52)	1.67 (0.77)	1.20 (0.53)	1.66 (0.72)	1.89 (0.92)
경남	전출	1.00 (0.34)	2.05 (0.69)	2.36 (0.99)	1.90 (0.82)	2.30 (1.07)	2.34 (1.12)
	전입	0.90 (0.30)	1.02 (0.35)	1.50 (0.64)	1.55 (0.66)	1.83 (0.84)	2.18 (1.07)
제주	전출	1.28 (0.43)	1.33 (0.61)	1.97 (0.68)	1.57 (0.76)	1.44 (0.76)	1.86 (0.91)
	전입	1.59 (0.60)	1.31 (0.71)	1.82 (0.62)	1.28 (0.56)	1.48 (0.70)	1.81 (0.91)

<표 V-11> 재학생 전·출입 비율(고등학교)

구 분	전출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체	전출	0.43 (0.15)	0.88 (0.28)	0.87 (0.31)	0.82 (0.39)	0.72 (0.32)	0.73 (0.37)
	전입	0.54 (0.17)	1.13 (0.32)	1.01 (0.33)	0.82 (0.36)	0.75 (0.32)	0.77 (0.38)
1학년	전출	0.49 (0.19)	1.31 (0.43)	1.32 (0.47)	1.39 (0.62)	1.36 (0.57)	1.39 (0.68)
	전입	0.55 (0.18)	1.54 (0.42)	1.43 (0.46)	1.34 (0.56)	1.33 (0.54)	1.38 (0.66)
2학년	전출	0.51 (0.17)	0.93 (0.29)	0.98 (0.36)	0.78 (0.39)	0.70 (0.34)	0.62 (0.32)
	전입	0.74 (0.23)	1.32 (0.39)	1.22 (0.42)	0.88 (0.42)	0.79 (0.36)	0.71 (0.37)
3학년	전출	0.19 (0.06)	0.20 (0.06)	0.11 (0.03)	0.21 (0.13)	0.10 (0.05)	0.08 (0.04)
	전입	0.30 (0.30)	0.35 (0.11)	0.26 (0.08)	0.17 (0.07)	0.12 (0.06)	0.11 (0.05)
서울	전출	0.33 (0.12)	0.51 (0.16)	0.48	0.49	0.40 (0.18)	0.90 (0.44)
	전입	0.57 (0.19)	1.21 (0.29)	1.05	0.96	0.88 (0.37)	0.82 (0.40)
부산	전출	0.47 (0.09)	0.71 (0.10)	0.62	0.64	0.49 (0.21)	0.64 (0.32)
	전입	0.65 (0.12)	1.04 (0.11)	1.05	0.85	0.63 (0.27)	0.59 (0.29)
대구	전출				0.41	0.28 (0.14)	0.34 (0.15)
	전입				0.49	0.55 (0.27)	0.43 (0.19)
인천	전출				0.32	0.32 (0.16)	0.47 (0.25)
	전입				0.73	0.90 (0.46)	0.73 (0.40)
광주	전출					0.70 (0.28)	0.50 (0.22)
	전입					0.67 (0.33)	0.68 (0.33)
대전	전출					0.53 (0.18)	0.66 (0.27)
	전입					1.02 (0.43)	1.09 (0.56)
경기	전출	0.47 (0.08)	0.97 (0.15)	0.69	1.53	0.79 (0.34)	0.67 (0.36)
	전입	0.40 (0.11)	0.95 (0.15)	0.92	1.08	0.89 (0.40)	1.30 (0.77)
강원	전출	0.49 (0.15)	1.69 (0.28)	1.77	1.95	2.15 (1.01)	1.64 (0.82)
	전입	0.41 (0.12)	1.61 (0.25)	1.42	1.31	1.28 (0.56)	1.15 (0.56)
충북	전출	0.27 (0.16)	0.97 (0.28)	1.09	1.46	1.23 (0.49)	0.74 (0.39)
	전입	0.30 (0.16)	1.18 (0.23)	1.01	1.20	1.05 (0.41)	0.77 (0.35)
충남	전출	0.50 (0.22)	0.89 (0.25)	1.01	0.88	1.09 (0.51)	0.64 (0.33)
	전입	0.61 (0.23)	0.93 (0.21)	0.96	1.08	0.66 (0.29)	0.55 (0.27)
전북	전출	0.64 (0.21)	1.12 (0.17)	1.15	0.88	1.02 (0.40)	0.80 (0.37)
	전입	0.64 (0.20)	1.20 (0.26)	1.13	0.71	0.65 (0.27)	0.75 (0.32)
전남	전출	0.26 (0.13)	0.73 (0.19)	1.13	0.75	1.03 (0.49)	0.77 (0.41)
	전입	0.38 (0.11)	1.24 (0.22)	1.05	0.50	0.42 (0.19)	0.44 (0.19)
경북	전출	0.53 (0.16)	0.82 (0.13)	0.92	0.70	0.77 (0.33)	0.62 (0.32)
	전입	0.58 (0.19)	0.88 (0.13)	0.92	0.51	0.52 (0.18)	0.45 (0.22)
경남	전출	0.40 (0.19)	1.43 (0.27)	0.94	0.76	0.73 (0.33)	0.62 (0.31)
	전입	0.58 (0.19)	1.21 (0.19)	0.89	0.56	0.51 (0.22)	0.45 (0.19)
제주	전출	0.70 (0.21)	2.01 (0.39)	1.22	0.85	0.93 (0.36)	0.95 (0.46)
	전입	0.59 (0.19)	2.10 (0.54)	1.12	0.69	0.66 (0.29)	0.72 (0.40)

주: 1970년도 여학생의 전입비율은 인문고등학교의 여학생 비율임. 실업교교의 여학생은 자료가 없음.

1975년도 지역별 여학생의 전출·입 비율은 인문고등학교의 여학생 비율임.

1980년 및 1985년도의 지역별 자료중 여학생란이 없는 것은 자료가 없어 산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임.

제5절. 지역별/성별/직업적 지위별 평균학력

인구주택 2% 표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취업 인구의 평균 학력은 다음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1.0716년으로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력이란 사실적으로 보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의미한다.

취업자의 직업적 지위로 표시된 4가지 직업군의 평균 학력중에서는 고용원을 둔 사업자의 학력이 13.0416년으로서 가장 높으며, 이는 전문대학 졸업수준을 의미한다. 모든 직종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의 평균 학력이 타지역 보다 높으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평균 학력이 가장 낮다.

<표 V - 12> 학력별·지역별 직업적 지위

지 역	직업적 지 위							
	1		2		3		4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12.5138	11.7190	9.9849	9.5431	13.0416	11.9298	11.1842	8.6564
서울	13.1106	12.2709	11.5160	10.9326	13.4731	12.4471	12.5212	10.5306
부산	12.1577	11.4887	11.0975	9.9410	12.9845	11.7643	11.7585	10.1497
대구	12.3359	11.6348	11.0549	10.1624	12.8987	11.7711	12.0444	9.9034
인천	12.2060	11.3873	11.0325	10.2927	12.8605	11.9275	11.4508	10.0046
광주	12.9329	12.3172	11.1250	10.2915	13.4929	12.1743	11.7647	9.9783
대전	12.9331	11.8824	10.9638	10.6179	13.1981	12.0780	12.5818	10.2494
경기	12.5239	11.4961	10.6326	10.3071	13.0685	12.0225	11.5137	9.5432
강원	11.8355	11.2276	9.1601	8.8986	12.3788	10.6678	10.4978	8.1244
충북	12.0275	11.0238	9.0555	8.7424	12.7023	11.0225	10.7266	7.8816
충남	12.0084	10.9876	8.3548	7.9372	11.8940	10.9318	10.6927	7.5947
전북	12.4318	11.6796	8.8881	8.4050	12.6099	11.9487	10.7030	7.7835
전남	11.9261	11.3691	8.3641	7.7242	11.8878	10.5127	10.7906	7.4263
경북	12.0599	11.1461	8.7186	8.2688	12.4359	11.7730	10.8323	7.6361
경남	12.2383	11.5641	9.4795	9.1301	12.7933	11.6964	11.2107	8.3294
제주	12.4336	11.9748	10.1430	8.5389	12.6052	12.0448	12.2360	8.7670

주: 지위: 1: 임금불급 근로자;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고용원을 둔 사업자;

4: 무급 가족 종사자

지위별 응답자 수 및 평균학력: 임금불급 근로자 209,922명, 12.2654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0,395명, 9.8844년; 고용원을 둔 사업주 25,684명, 12.8715년; 무급 가족 종사자 32,520명, 8.9777년.

유효응답자총수: 338,521명의 평균학력은 11.5004년 임.

자료: 인구주택조사 2% 표본 조사 결과

교육 외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인은 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하고 있는 가이다. 즉, 국가의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 교육체제의 기능이 요구된다. 취업률은 이러한 교육효과 외적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취업률은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

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대상자의 기준은 당해년도 졸업자수에서 상급학교 진학자 수를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자수

$$\text{취업률(\%)} = \frac{\text{취업자수}}{\text{졸업자수} - \text{진학자수}} \times 100$$

졸업자수 - 진학자

고등학교 중 일반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1970년에는 17.1%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1980년에는 15.6%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약간씩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1996년에는 24.7%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중 실업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1970년에는 55.6%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1996년에는 91.6%에 이르고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70년에는 78.5%였으나 1975년도에 36.8%로 급격히 감소한 후,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1996년에 이르러서는 72.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970년에는 61.3%였으나 그 이후에 계속 증가하여 1980년에는 65.0%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5년도에 45.7%로 하락한 후 1990년대에는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등학교의 경우에 일반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증감률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반면에 실업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한편, 고등교육 단계에서 전문대학은 197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인 반면, 대학(교)의 경우에는 1970년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1985년에 49.9%로 급격히 하락한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13> 학력별 취업

(단위: %)

년 도	일 반 고 졸		실 업 고 졸		전 문 대 학 졸		대 학 졸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17.1	17.9	55.6	55.2	78.5	78.4	61.3	50.5
1975	16.7	18.7	55.1	53.5	36.8	35.6	62.5	55.4
1980	15.6	21.3	57.7	62.8	40.8	50.6	65.0	55.2
1985	16.1	24.2	59.8	65.6	44.2	49.9	45.7	31.7
1990	18.5	27.1	83.6	86.7	58.6	68.2	53.6	42.6
1995	26.2	28.5	90.8	91.4	66.7	70.9	59.6	47.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 지표, 1996, 141쪽

제6절. 재학생의 통학 상황

1. 통학수단별 학생비율

한국의 12세 이상의 학생들중 약 절반 수준인 49.5%가 시내버스로 통학하고 있다.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이 33.6% 정도이며 그중에서 여학생중 약 47%가 걸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2.1%정도이고 자가용 승용차로 통학하는 학생은 2.4%가량 된다. 지하철과 전철을 이용하는 학생은 3.6%, 기차를 이용하는 학생은 0.3% 정도이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7%, 학교버스나 마을 버스 혹은 학교에서 대여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6% 정도이다.

지역적으로 볼때, 광주광역시의 학생들이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63.8%), 그 다음에 대구(61.8%), 인천(57.7%), 제주도(54.9%), 강원도(52.1%), 전북(52.0%), 대전(51.0%) 순이다.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9.9%), 대전(37.2%), 충북과 충남(34.4%), 경기(34.2%) 순이다.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7.3%), 충북(4.5%), 전북(4.1%) 순이다. 승용차로 통학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3.9%), 대구(3.7%), 대전(3.6%), 광주와 경북(3.0%)순이다. 기차로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지역은 경기와 경북(0.6%), 충북과 충남(0.5%), 전남과 경남(0.3%) 순으로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2	2.10	2.51	2.55	2.38	2.28	2.71	2.71	2.50
1.22	2.02	2.25	2.02	2.22	1.33	1.81	1.31	1.91
2.25	0.72	2.02	2.01	2.12	1.72	2.12	2.01	2.01
1.11	1.71	2.02	2.11	2.22	2.02	2.12	1.81	2.01
0.51	2.02	2.22	2.02	1.82	2.22	1.72	2.01	2.01
2.12	2.02	2.02	1.82	1.82	2.02	2.12	2.02	2.01

<표 V-14> 재학생 통학수단별 학생비율

(단위: %)

지역	통학수단										학생인구(여)
	0	1	2	3	4	5	6	7	8	9	
서울	0.3 (0.1)	41.2 (20.3)	1.5 (0.7)	4.7 (2.3)	10.0 (4.6)	0.3 (0.1)	1.7 (0.6)	0.0 (0.0)	0.4 (0.0)	39.9 (18.0)	31,583 (14,747)
부산	1.0(0.5)	57.1 (27.5)	0.5 (0.3)	3.4 (2.0)	3.2 (1.5)	0.1 (0.0)	1.6 (0.6)	0.0 (0.0)	0.2 (0.0)	33.0 (15.5)	12,400 (5,949)
대구	0.4(0.1)	61.8 (30.5)	2.9 (1.6)	1.5 (0.6)	- (-)	0.1 (0.0)	3.7 (1.2)	0.0 (-)	1.1 (0.1)	28.5 (13.9)	8,019 (3,847)
인천	0.3(0.2)	57.7 (27.8)	0.7 (0.5)	5.1 (2.3)	4.6 (2.2)	0.1 (0.1)	1.9 (0.7)	0.1 (-)	0.4 (0.0)	29.1 (13.1)	5,822 (2,729)
광주	0.3(0.1)	63.8 (30.2)	0.4 (0.2)	4.9 (2.7)	- (-)	0.0 (-)	3.0 (1.2)	0.0 (0.0)	0.7 (0.1)	26.8 (12.9)	4,731 (2,238)
대전	1.1(0.7)	51.0 (24.2)	2.1 (0.8)	3.6 (2.5)	0.0 (0.0)	0.2 (0.1)	3.6 (0.8)	0.2 (0.1)	1.2 (0.1)	37.2 (16.2)	4,252 (1,933)
경기	0.8(0.4)	45.5 (22.2)	4.1 (1.9)	6.4 (3.1)	4.6 (2.0)	0.6 (0.3)	2.9 (1.0)	0.0 (-)	1.0 (0.1)	34.2 (16.2)	18,213 (8,580)
강원	0.6(0.2)	52.1 (26.5)	2.1 (0.9)	3.0 (1.1)	0.0 (0.0)	0.0 (-)	3.9 (1.6)	0.2 (0.1)	2.0 (0.1)	36.0 (16.4)	4,637 (2,177)
충북	1.3(0.5)	47.5 (24.5)	2.5 (1.1)	5.4 (2.5)	0.0 (-)	0.5 (0.2)	2.4 (0.7)	0.0 (0.0)	4.5 (0.9)	34.4 (17.3)	4,319 (1,988)
충남	0.6(0.3)	50.8 (26.5)	2.3 (1.2)	4.5 (2.3)	- (-)	0.5 (0.2)	2.4 (0.7)	0.0 (0.0)	4.5 (0.9)	34.4 (17.3)	4,911 (2,423)
전북	0.6(0.3)	52.0 (26.2)	1.6 (0.8)	13.1 (7.0)	- (-)	0.3 (0.1)	2.3 (0.8)	0.1 (0.0)	4.1 (0.9)	25.9 (12.0)	6,331 (3,040)
전남	0.7(0.3)	51.3 (26.2)	2.2 (1.1)	8.0 (4.2)	- (-)	0.3 (0.2)	2.1 (0.7)	0.0 (-)	4.3 (1.1)	31.0 (15.8)	5,789 (2,873)
경북	0.9(0.3)	46.2 (23.9)	2.5 (1.1)	8.9 (4.7)	- (-)	0.6 (0.3)	3.0 (1.1)	0.1 (-)	7.3 (1.3)	30.6 (16.1)	7,136 (3,480)
경남	1.1(0.5)	49.6 (23.9)	2.3 (1.1)	11.1 (5.9)	0.0 (-)	0.3 (0.1)	2.4 (0.7)	0.1 (0.0)	2.7 (0.5)	30.5 (14.7)	10,368 (4,917)
제주	0.4(0.1)	54.9 (26.6)	3.7 (2.1)	17.0 (8.3)	- (-)	- (-)	2.4 (0.6)	0.1 (-)	1.5 (0.1)	20.0 (11.1)	1,603 (782)

주: 교통수단: 1: 시내버스; 2: 좌석버스; 3: 기타버스; 4: 전철, 지하철; 5: 기차; 6: 승용차; 7: 택시; 8: 자전거; 9: 도로로만 0: 기타

()은 여학생 비율.

소수 두자리에서 반올림. 따라서 0.0은 비율이 있음을 의미함.

(-)는 반응자 없음.

자료: 인구주택조사 2% 표본 조사 결과 처리

2. 통학소요시간/지역별/성별 비율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평준화 제도에 의하여 학군을 정하여 거주지 학군내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특수목적 학교인 체육중고등학교, 예술중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과학고등학교 등은 학군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서울의 경우 도심의 일부 고등학교 역시 학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의 도시 및 지역은 역시 거주지에 관계없이 진학할 수 있으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지역의 범위내의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통학 시간은 약 28분으로 통학에 걸리는 시간대 별로 보면, 15분 미만이 21.8%, 15분 이상 30분 미만이 22.2%, 30분 이상 45분 미만이 10.1%이다. 학생의 82.7% 정도가 45분 미만의 통학시간을 필요로하고 있다. 45분 이상 60분 미만이 6.1%, 60분 이상 90분이 소요되는 학생이 3.5%이며, 1.5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모하는 학생도 1.7%에 달하고 있다. 대구(32분)와 서울(31분) 지역의 여학생들이 비교적 오랜 통학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 등하교중의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오래 걸리는 지역은 역시 대구와 인천(32분)이며, 서울(31분)이 그 다음이며, 가장 짧게 걸리는 지역은 강원도(21분)이다. 1시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경기도 4.8%, 서울 4.5%, 인천(4.2%), 대구(2.8%)이다. 부산(1.7%), 충남(1.6%), 경북(1.5%)로 이어지며, 제주도에서는 2시간 이상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없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제주
15분 미만	21.8	21.8	21.8	21.8	21.8	21.8	21.8	21.8	21.8	21.8	21.8	21.8
15분 이상 30분 미만	22.2	22.2	22.2	22.2	22.2	22.2	22.2	22.2	22.2	22.2	22.2	22.2
30분 이상 45분 미만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10.1
45분 이상 60분 미만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60분 이상 90분 미만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90분 이상 1시간 미만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시간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V-15> 재학생의 지역별·성별·통학소요 시간별 비율

지역	통학소요 시간별 비율								학생수 (여학생)
	15분미만	15-30분 미만	30-45분 미만	45-60분 미만	60-90분 미만	90-120분 미만	120분 이상	지역평균 소요시간	
서울	35.1 (33.3)	27.9 (30.0)	13.2 (14.1)	11.1 (11.3)	8.2 (8.1)	2.6 (2.1)	1.9 (1.2)	30.50 (30.14)	31,583 (14,747)
부산	30.4 (30.2)	33.5 (34.7)	15.2 (16.2)	12.5 (11.7)	6.8 (5.8)	1.2 (1.1)	0.5 (0.3)	28.59 (28.18)	12,400 (5,949)
대구	27.1 (26.9)	31.3 (32.8)	18.3 (16.7)	12.2 (12.0)	8.2 (8.2)	1.9 (2.4)	0.9 (1.0)	31.78 (31.87)	8,019 (3,847)
인천	26.9 (25.2)	32.8 (34.2)	19.7 (20.0)	10.5 (10.4)	5.8 (5.9)	2.2 (2.4)	2.1 (1.9)	31.60 (31.73)	5,822 (2,729)
광주	26.9 (27.5)	35.9 (37.8)	21.5 (20.0)	11.5 (10.9)	3.8 (3.2)	0.2 (0.3)	0.2 (0.3)	27.20 (26.88)	4,731 (2,238)
대전	37.8 (34.1)	33.1 (33.3)	17.2 (18.5)	9.0 (10.2)	2.2 (3.1)	0.3 (0.5)	0.4 (0.4)	24.68 (25.55)	4,252 (1,933)
경기	33.3 (34.8)	31.1 (32.1)	14.7 (14.5)	9.0 (7.9)	7.1 (6.4)	2.8 (2.5)	2.0 (1.90)	29.80 (29.04)	18,213 (8,580)
강원	43.0 (39.7)	38.9 (40.7)	11.7 (13.8)	4.3 (4.3)	1.2 (0.9)	0.3 (0.3)	0.4 (0.4)	20.68 (20.95)	4,637 (2,177)
충북	39.4 (34.4)	35.4 (40.8)	14.9 (16.6)	6.6 (6.0)	2.8 (1.7)	0.1 (0.3)	0.8 (0.2)	23.07 (22.98)	4,319 (1,988)
충남	37.4 (36.5)	36.9 (39.5)	15.2 (14.1)	5.7 (6.3)	3.2 (2.3)	1.0 (0.8)	0.6 (0.5)	23.69 (23.44)	4,911 (2,423)
전북	31.3 (27.2)	387 (415)	17.4 (19.0)	8.2 (8.8)	3.6 (3.0)	0.6 (0.4)	0.1 (0.2)	25.66 (25.98)	6,331 (3,040)
전남	32.2 (29.7)	41.2 (44.6)	18.5 (17.9)	6.1 (5.7)	1.4 (1.6)	0.3 (0.2)	0.2 (0.2)	23.66 (23.75)	5,789 (2,873)
경북	42.3 (37.7)	34.9 (39.1)	11.6 (13.8)	6.9 (6.0)	3.0 (2.4)	0.7 (0.4)	0.6 (0.5)	22.75 (22.83)	7,136 (3,480)
경남	37.2 (35.1)	35.7 (37.4)	14.4 (14.9)	7.7 (8.1)	3.7 (3.3)	0.9 (0.7)	0.5 (0.4)	24.58 (24.64)	10,368 (4,917)
제주	29.6 (35.2)	37.6 (37.0)	18.6 (16.9)	11.1 (7.9)	2.8 (2.9)	0.2 (0.1)	- (-)	24.84 (23.79)	1,603 (782)

주: ()은 여학생 비율

제7절. 학력별 종교인구 비율

학력별 종교 인구분포율을 보면 무학자의 경우 무종교에 51.7%, 불교 25.6%, 개신교 15.9%, 천주교 4.9%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무학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신론자임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무종교에 44.7%, 불교 33.8%, 개신교 14.5%, 천주교 4.6%, 유교 1.2% 등이다. 무학자 집단에 비하여 무종교 비율이 줄었고 불교 인구가 증가하였다. 중학교 졸업학력 인구중에서는 무종교에 44.4%, 불교 33.1%, 개신교 15.3%, 천주교 4.7%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인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종교분포는 무종교에 48.8%, 불교 25.1%, 개신교 18.7%, 천주교 6.4%를 보이고 있다. 중졸인구에 비하면 무종교 인구가 많고 불교 인구가 적으며,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무종교 46.9%, 불교 22.3%, 개신교 21.7%, 천주교 8.1% 이며, 대학교 졸업 인구중에는 무종교 42.4%, 불교 20.8%, 개신교 24.9%, 천주교 11.0% 등이다.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는 무종교 34.1%, 불교 17.6%, 개신교 33.6%, 천주교 13.5%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무종교와 불교는 대학졸업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학력별 종교인구 분포를 분석하여 보면, 학력이 높아갈수록 무종교인구보다 종교인구 비율이 높으며, 종교인구중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예수교인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국민중 예수교 가정의 자녀들의 지적 수준이 무신론자 또는 타종교 가정의 자녀보다 높다는 한 연구논문(김제한, 1984)의 주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제8절. 교육분야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대책

1. 성별 학력차의 균형유지를 위한 대책

성별 학력인구 비율에 따라 나타나는 남녀간의 학력 격차는 한국이 여전히 남성 우위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들이 아들보다 딸의 교육에 대하여 등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현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보아 성취사회가 되어 있어 성에 관계없이 능력중심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에 의하여 자질계발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여성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 국가사회의 손실로 보아 여성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2. 학력구성비의 선진국형화 추진

학력 구성 인구의 비율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고등학교 인구 비율이 선진국의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특히 생산 인력의 중심인 전문대학의 인구 비율이 3분

의 1 내지는 2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고, 고학력자의 양산을 알 수 있다. 대학교학력의 구성비율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보다 2% 정도 많은 것으로 보아 이미 고등교육의 일반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아 고급 인력의 수요를 창출해야 고학력자의 사회적 유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의 상향 추진

고등학교 졸업 12년이 평균 학력이 되도록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완성교육 단계화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평균 교육 년수는 현재 20-29세 연령층의 경우 12.67년이나 이를 13.5년까지 되도록 중도 탈락자를 줄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행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의무교육을 12학년으로 해야 한다.

4. 학생인구 이동의 문제와 도서벽지의 공동화(空洞化) 해결

국가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에 관한 현상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으나,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주택 마련에 따른 인구 이동의 현상만을 보더라도 지나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 인구의 심한 이동 현상은 학생 본인의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의 어려움도 야기 시키며, 특히 학생인구 수용계획이 불가능하여 학교규모 및 학급당 학생수의 추정과 이에 따른 교원 배치 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 학교 정책 수행을 위한 많은 난제를 안겨주게 된다. 도서 벽지 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의 결과이며, 이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의 존폐와도 관계된다.

인구 이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제어할 수는 없으나,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면, 학생 인구의 심한 이동현상과 도서 벽지 지역의 개발도 함께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5. 통학거리와 통학 수단의 개선

통학 거리는 짧을수록 좋고 수단을 이용하는 것 보다 걸어서 다니는 것이 가장

좋다. 걷기에 약간 먼 거리의 학교는 운동삼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통행로이다.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45분 이상이면 이는 이미 학교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통 지옥에 빠지는 것이 되며, 그것도 이용수단을 한 번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2번 내지 4-5번씩 갈아 타야 한다면 학생들이 하루에 통학으로 소모하는 시간이 120-180분이 되는 것이며, 이는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학교엘 가게 되며, 소요되는 교통비는 전액 시에서 지급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대도시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통학이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는 학교가 멀어서 기차를 이용하고서도 다시 버스를 타야 하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다니기를 힘들지 않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6. 종교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또는 종교가 있고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볼 때 종교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것이며, 삶의 필수 불가결한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되어 정신적으로는 물론 영혼의 구제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된다. 신앙을 지니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윤리 도덕과 같은 사회적 상위 가치는 물론 일반적인 질서 의식도 자연스럽게 내면화 된다.

성장 세대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으나 신의 존재를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은 부모 또는 성인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종교간의 갈등을 교육을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문제의 종교적 귀속으로 문제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선진국들이 종교를 국교화하는 이유를 잘 알아 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제한. 기독교 가정 자녀의 학력 성취도에 관한 연구, 1984.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6

제6장. 인구 및 학력구조의 변화와 노동력 수급전망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과거 30여년동안 고속경제성장과 급속한 인지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의 수요는 적어도 1990년까지는 높은 상태에 머물러 왔다. 반면 급속한 인구변천의 결과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3%수준에서 1%이하로 저하되었고 노동력인구의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연평균)도 1963-73년간 3.76%, 1973-83년간 2.86%, 1983-93년간 3.16%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¹⁾. 이와 같이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된 결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계층별로 엇갈린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초과수요, 즉 인력부족문제에 봉착하였고 해외인력의 수입, 자본의 대외진출, 노동절약적 산업구조의 개편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야기된 노동력 공급의 증가둔화추세는 경제활동에 다소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전시킬 수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 공급의 증가둔화세는 어느 정도의 산업구조개편(노동절약)을 가정하여도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율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예컨대 노동의 양적공급측면에 한정하여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노동공급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2%수준, 2000년대 1%수준, 2010년대에는 0.5%수준으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용흡수력이 1990년대의 0.31에서 2010년대에는 0.26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하된다고 하여도 한국경제의 연평균 잠재성장율은 1990년대 6%, 2000년대 3% 2010년대 2%등으로 저하될 전망이다.²⁾

그렇다면 그간의 급속한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귀결된 것인가? 경제학자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은 인구변천과정이 사회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자원부존상태가 열악한 경우에는 인구증가의 역제가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임은 제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론적 혹은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된 바 있다³⁾.

1.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12.

2. 구성열, “우리나라 인력수급의 과제와 전망”, 윤기중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준비위원회 편, 「윤기중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7.2., pp.151-168.

3. 인구증가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1970년대이전부터 수익비용분석, 인구함정모형, 시뮬레이션모형등의 형태로 계량분석된 바 있다.

인구의 양적증가둔화는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노동력의 공급증가둔화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저축율과 투자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만일 양적증가둔화가 질적증가제고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술발전과 연계됨으로서 노동의 생산성을 상승시키게 된다. 따라서 인구의 양적증가둔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효과보다 큰가 작은가에 좌우된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자본과 기술수준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자본과 기술수준아래서도 노동의 질적 수준에 의하여 달라진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인구변천과정을 인구증가율의 둔화과정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인구의 양적증가둔화가 질적향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인구의 질은 1인당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뜻하며 이는 건강, 교육, 직업훈련, 인구의 동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행위를 통하여 제고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은 원래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⁵⁾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출산력과 연계되고⁶⁾ 최근에는 소위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출산력과 더불어 내생적으로 취급되어 경제성장모형의 현실설명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⁷⁾ 특히 교육수준의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i)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는 질적(교육수준)으로 얼마나 달라졌는가?

4. Robert Willis,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2, Part II, March-April 1973, pp.514-569,

Gary S. Becker,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5. Theodore W. Schultz, "Capital Formation by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8, December 1960, pp.571-83.

6. Gary S. Becker,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Thri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7. Robert J. Barro and Xavier Sala-i-Martin, *Economic Growth*, McGrow Hill, 1995.

8. Zvi Griliches, "Education, Human Capital and Growth: A personal Perspective."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1945, January, 1996.

Robert J. Barro and Jong-Hwa Le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duc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93, pp.363-394.

홍성덕,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1963-92)",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3호, 1994, pp.147-178.

(ii) 노동공급을 질을 포함하는 인적자본의 개념으로 파악한다고 할 때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노동공급은 질적요인에 의하여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그리고 경제성장과정에서 인적자본흡수력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iii) 인적자본으로 파악된 노동공급은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본고의 목적은 위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인력양성에 대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론에 앞서 우선 분석방법을 논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제1절. 분석방법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고용증가율의 함수로 나타낼수 있다.

$$\dot{Y} = \varepsilon_{YL}(E, K, T) \cdot \dot{L}$$

Y =GNP, L =고용량, E =노동의 질, $\dot{\sim}$ =성장율, $\varepsilon_{YL}(E, K, T)$ =GNP의 고용탄력도로서 E, K, T 의 함수임.

위의 식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생산요소별로 분해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이때 ε_{YL} 은 양적노동(고용량) 이외의 생산요소, 즉 노동의 질, 자본과 기술수준의 함수가 된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ε_{YL} 이 주어진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dot{L} = \frac{\dot{Y}}{\varepsilon_{YL}(E, K, T)} = \varepsilon_{LY}(E, K, T) \cdot \dot{Y}$$

ε_{LY} 는 ε_{YL} 의 역수로서 고용의 경제성장탄력도로 정의되며 통상적으로 성장의 고용흡수력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한편 노동공급은 다음과 같이 경제활동을, 인구의 연령구조 및 인구규모의 함수로 정의된다.

$$L = \sum_a L_a = \sum_a l_a \frac{P_a}{P} F$$

L=경제활동인구, P=인구규모, l=경제활동을, a=나이

위의 식에서 $\bar{Y}$ 및 ϵ_{YZ} 에 대한 값이 주어지면 노동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고 P, P_a , l_a 의 값이 주어지면 노동공급량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노동수급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지식정보산업등으로 연성화되고 노동의 공급측면이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으로 이행됨에 따라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인적자본이론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의 질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노동력의 수급전망을 분석하려 한다면 위의 분석체계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져야 할 것이다.

우선 노동의 수요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이 고용량에 대하여 갖는 관계를 고용량 대신 노동의 질을 내포하는 인적자본의 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즉

$$\hat{H} = \epsilon_{HY}(K, T) \cdot \bar{Y}$$

H=인적자본량, ϵ_{HY} =인적자본의 경제성장탄력도, 또는 성장의 인적자본 흡수력으로서 K, T의 함수임.

노동의 공급측면 또한 인적자본의 공급량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H = \sum_a \sum_e w_{ae} \frac{L_{ae}}{L_a} \cdot L_a$$

w = 노동의 질(생산성 또는 임금)지수, e=교육수준.

따라서 인적자본의 공급변화는 연령별 학력별 질(생산성 또는 임금)지수가 시간에 걸쳐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성분으로 나누어 진다.

$$\delta H = \sum_a \sum_e \delta(w_{ae} \frac{L_{ae}}{L_a}) \cdot L_a + \sum_a \sum_e (w_{ae} \frac{L_{ae}}{L_a}) \cdot \delta L_a$$

위의 식 우변의 첫번째항은 인적자본의 질적변화에 기인한 변화분이며 두번째항은 인적자본의 양적인 변화에 기인한 변화분이 된다.

본연구는 이러한 분석체계아래서 우리나라의 1965-1995년간 인적자본의 수급추이를 분석하고 1995-2020년간 전망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제2절. 인구의 학력구조변화와 인적자본의 공급추이: 1965-1995

1. 추정방법과 자료

새로운 분석체계에서 노동력수급을 분석하려면 분석기간별로 노동수요측면에서 ϵ_{HY} , 노동공급측면에서 (L_{ae}/L_a) , W_{ae}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L_{ae}/L_a) 및 W_{ae} 에 대한 연도별 추정은 불가능하므로⁹⁾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순화가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i) W_{ae} : 모든 시점에 대하여 동일하다.

(ii) $\frac{L_{ae}}{L_a} = \frac{E_{ae}}{E_a} = \frac{P_{ae}}{P_a}$, 단 E =취업인구수.

즉 모든 연령계층에 대하여

경제활동인구의 학력구조=취업인구의 학력구조=인구의 학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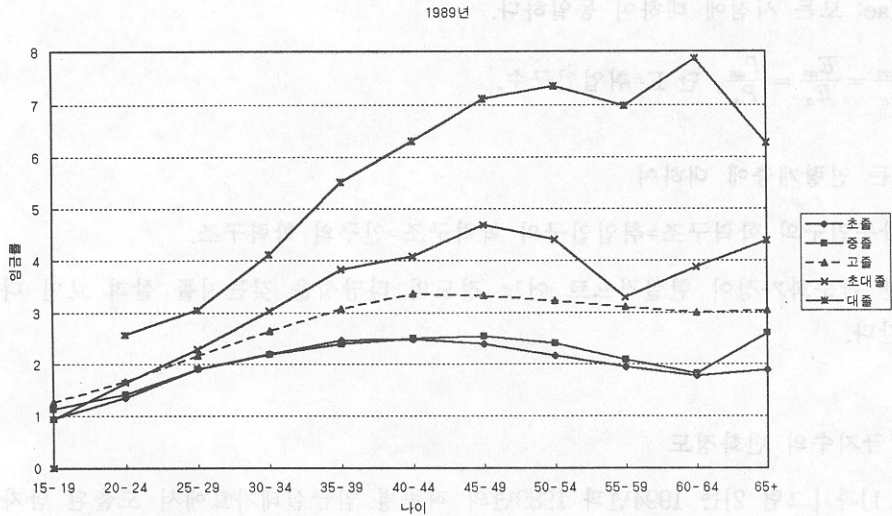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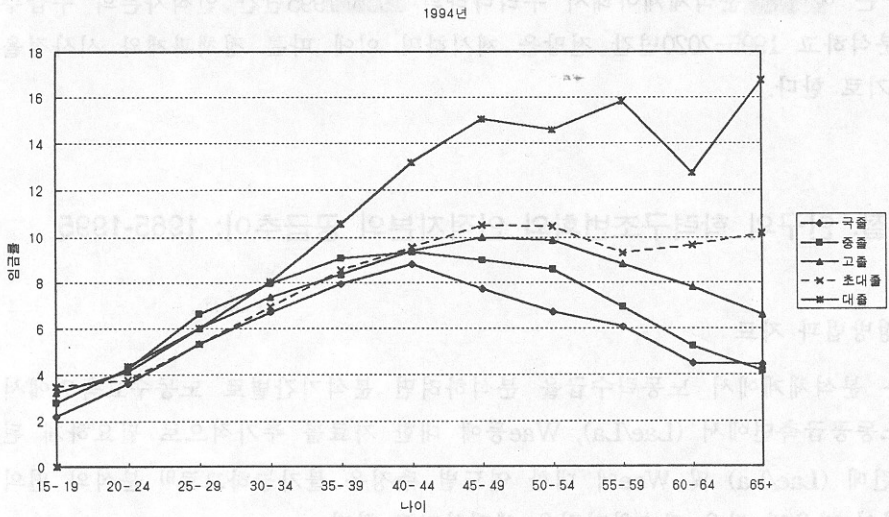
이러한 단순화가정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임금지수의 변화정도

[그림 1]과 [그림 2]는 1994년과 1989년의 직종별 임금실태자료에서 도출된 남자와 여자의 인구특성(나이, 학력)별 시간당 임금률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시간당임금률은 연간급여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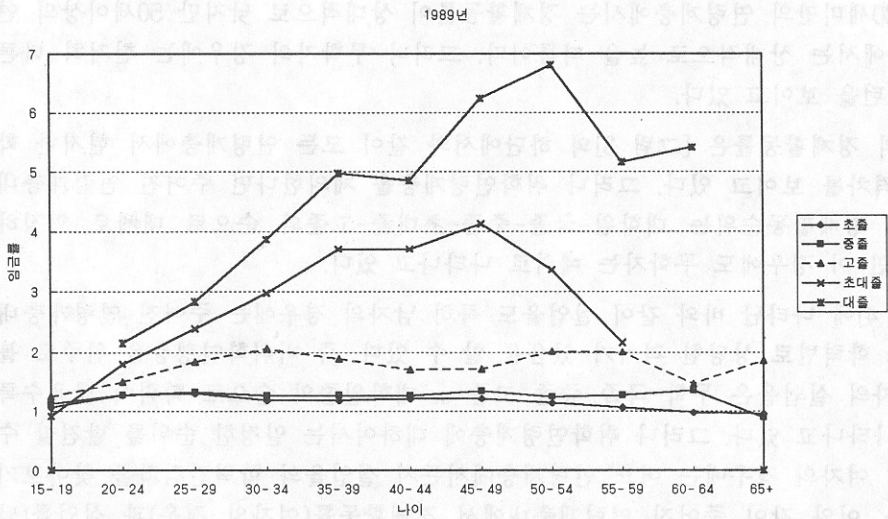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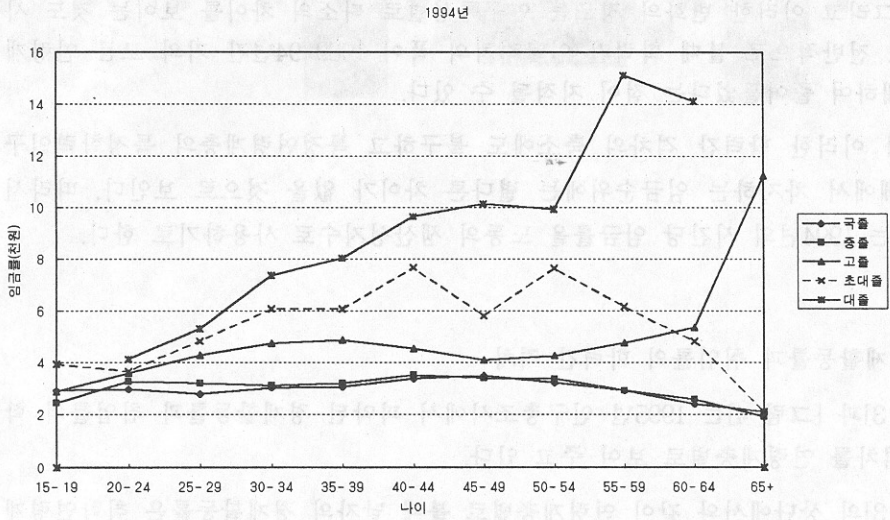
9. 이에 대한 추정은 인구총조사와 직종별임금조사의 원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림 VI-1] 인구특성별 시간당 임금률



자료: 부표 1.

[그림 VI-2] 인구특성별 시간당 임금률(여자)



자료: 부표 1.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률은 1989년과 1994년 사이에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인구특성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볼때 학력간 임금격차의 폭이 1989-94년간 거의 모든 연령계층에 대하여 줄어들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력간 격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특정연령계층의 특정학력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임금순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1994년의 시간당 임금률을 노동의 생산성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경제활동률과 취업률의 학력간 격차

[그림 3]과 [그림 4]는 1995년 인구총조사에서 파악된 경제활동률과 취업률의 학력간 격차를 연령계층별로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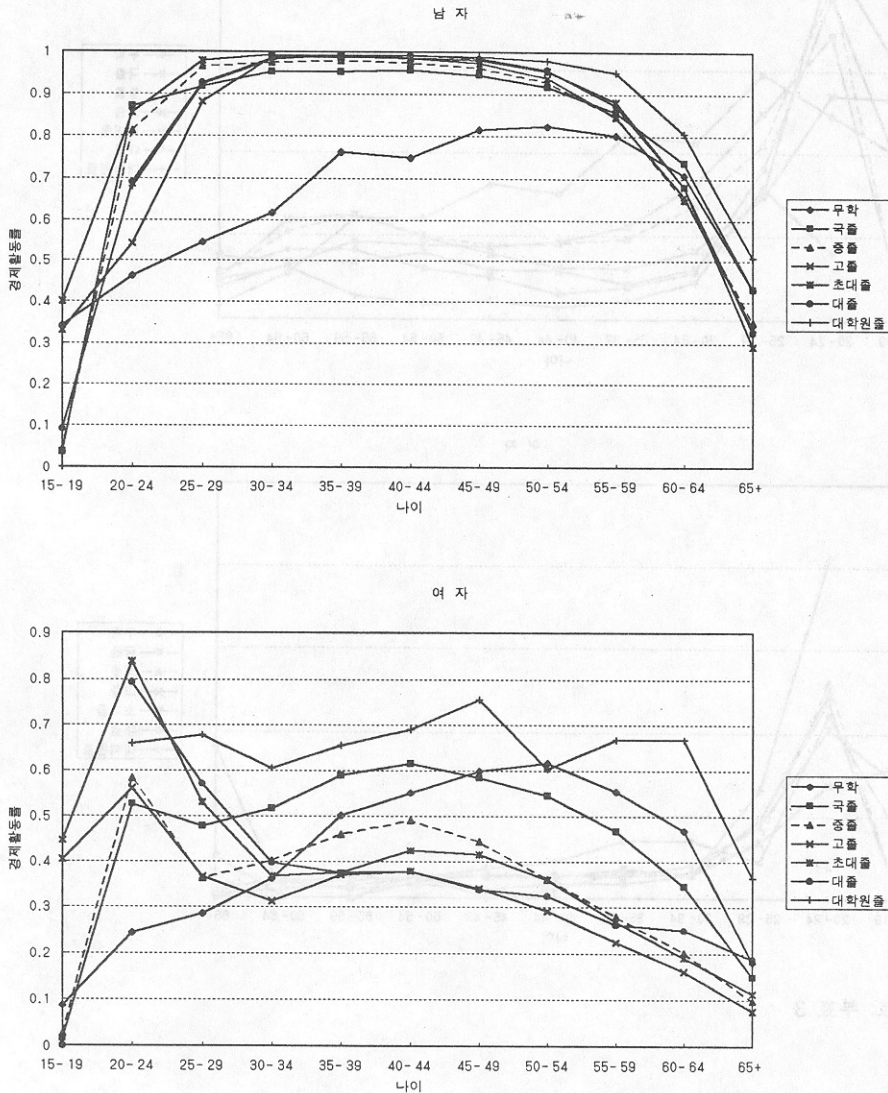
[그림 3]의 상단에서와 같이 연령계층별로 볼때 남자의 경제활동률은 취학연령계층을 제외하고는 학력간 격차가 별로 없다. 다만 고학력계층일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늦은 만큼 노동시장의 퇴출도 그만큼 늦어져 예컨대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30세미만의 연령계층에서는 경제활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50세이상의 연령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따름이다. 그러나 무학자의 경우에는 현저히 다른 연령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자의 경제활동률은 [그림 3]의 하단에서와 같이 모든 연령계층에서 현저한 학력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계층을 제외한다면 주어진 연령계층내에서의 경제활동수위는 대학원-국졸-중졸-초대졸-고졸의 순으로 대체로 일정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학자는 예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율도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주어진 연령계층내에서도 학력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취학연령층을 위주로 볼때 남자의 실업율은 무학-국졸-중졸-고졸-...-대학원졸의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층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순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어느 연령계층에서든지 실업율의 학력간격차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주어진 연령계층내에서 경제활동률(여자의 경우)과 실업률(남자의 경우)은 상당한 학력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률과 실업률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학력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률과 취업률이 높은 학력계층, 즉 여자의 경우 대학원과 국졸자, 남자의 경우 대학원-대학-초대등 고학력자의 인적자본 기여분을 과소평가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인구의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면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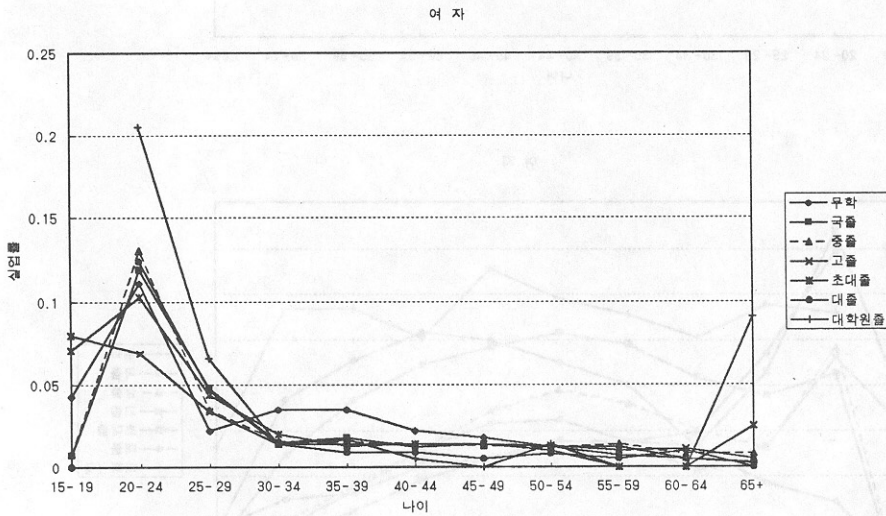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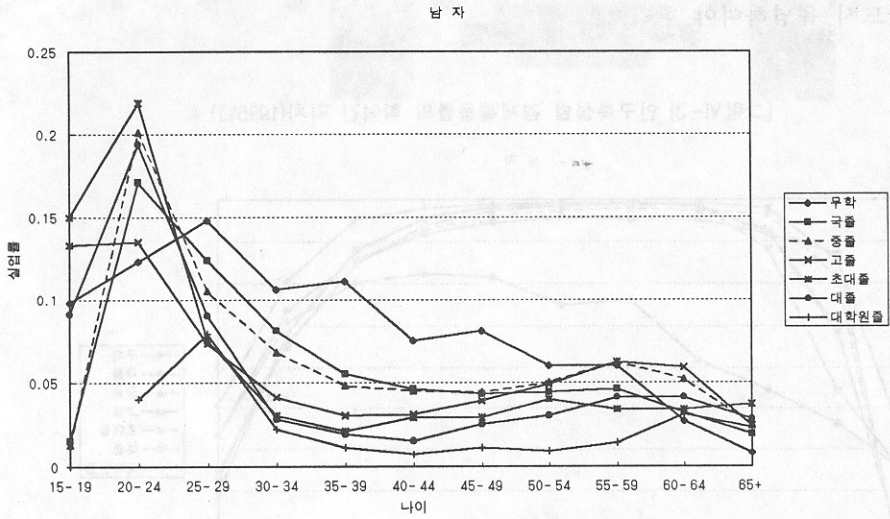
심해 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그림 VI-3] 인구특성별 경제활동률의 학력간 격차(1995년)



자료: 부표 2

[그림 VI-4] 인구특성별 실업률의 학력간 격차(1995년)



자료: 부표 3

2. 인구의 학력구조 변화추이

연령계층별 인구의 학력구조는 인구총조사의 보고서에서 매 5년 간격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총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인구의 학력구조자료를 5년 간격별로 1965-95년간에 걸쳐 파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자료입력의 노력도 문제이지만 인구총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학력구조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접연도의 인구총조사보고서를 비교하여 보면 학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도(5년제)하의 중학졸업학력의 처리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취학연령계층에 속하는 인구의 경우에도 생산율의 학력간 격차를 초과하는 정도로 학력이 상승하는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나타난 1995년 인구총조사의 2%표본에서 관찰된 연령계층별 인구의 학력구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과거의 학력구조 추이를 파악하였다.

가. 비취학 연령인구의 학력구조 추이

<표 1>을 보면 남자의 경우 고학력자의 구성비가 극대가 되는 연령계층은 초대졸은 25-29세, 대졸은 30-34세, 대학원졸은 35-39세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학력에 속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이 한계연령에 이르게 되면 졸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하의 연령계층은 아직도 상당수가 재학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학력자의 비취학 연령은 이러한 한계연령, 즉 초대 25세, 대학 30세, 대학원 35세 이상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졸이하의 저학력자의 구성비가 최소가 되는 연령계층은 무학은 15-19세, 국졸은 20-24세, 중졸은 25-29세가 된다.

따라서 저학력자의 비취학 연령은 이러한 한계연령, 즉 무학 15세, 국졸 20세, 중졸 25세 이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비취학기에 이르는 한계연령이 남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고학력자의 비취학 한계연령은 초대 20-24세, 대학과 대학원은 25-29세가 된다. 또한 저학력자의 비취학 한계연령도 무학, 국졸, 중졸 모두 20-24세가 된다.

비취학 연령, 즉 한계연령이상에 해당하는 인구의 학력구조 추이는 <표 1>의 학력구조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단 고졸자의 경우에는 여타학력계층의 구성비가 산출된 다음 잔여로 산출하게 된다.

$$E_{a,g,T-t} = E_{a+t,g,T}$$

E=학력별 인구구성비, a=나이, t=년도, g=학력수준, T=1995년.

[그림 5]는 <표 1>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위에서 도출될 인구의 학력구조가 어떠한 추이를 보일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VI-1> 연령계층별 인구의 학력구조(1995년 인구총조사 2% 표본)

남자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 학원졸
0-4		1	0	0	0	0	0
5-9		1	0	0	0	0	0
10-14	0.482639	0.510478	0.006883		0	0	0
15-19	0.001125	0.155007	0.619835	0.222634	0.001097	0.000302	0
20-24	0.002147	0.011197	0.062062	0.832045	0.047001	0.044722	0.000826
25-29	0.002225	0.013476	0.057925	0.571035	0.092994	0.246998	0.015347
30-34	0.004373	0.031611	0.089484	0.483938	0.071271	0.288316	0.031006
35-39	0.006187	0.061968	0.146244	0.470403	0.056136	0.22189	0.037171
40-44	0.010602	0.112081	0.196039	0.439468	0.031996	0.174994	0.034821
45-49	0.015862	0.168002	0.222835	0.397842	0.016426	0.152623	0.02641
50-54	0.035665	0.247162	0.225978	0.323777	0.008513	0.131164	0.02774
55-59	0.061923	0.319664	0.199858	0.270354	0.006444	0.118386	0.023371
60-64	0.119693	0.374004	0.161861	0.210839	0.008405	0.108752	0.016447
65-69	0.21688	0.407899	0.141413	0.132009	0.012108	0.079817	0.009874
70-74	0.376848	0.367381	0.104468	0.080219	0.012955	0.053313	0.004816
75-79	0.492949	0.324034	0.076947	0.056714	0.011649	0.034028	0.003679
80-84	0.599053	0.261663	0.060852	0.043949	0.010142	0.023665	0.000676
85-89	0.627078	0.213777	0.047506	0.047506	0.026128	0.033254	0.004751
90-94	0.686869	0.171717	0.050505	0.040404	0.010101	0.040404	0
95+	0.807692	0.076923	0	0.038462	0	0.076923	0
합계	0.235014	0.142948	0.143144	0.318205	0.029445	0.115776	0.015468
여자							
0-4		1	0	0	0	0	0
5-9		1	0	0	0	0	0
10-14	0.478621	0.513264	0.008115		0	0	0
15-19	0.001285	0.150588	0.600704	0.245774	0.001565	8.38E-05	0
20-24	0.001139	0.006783	0.035535	0.747684	0.092685	0.115059	0.001114
25-29	0.002221	0.01364	0.069276	0.610795	0.086894	0.206071	0.011103
30-34	0.00403	0.04853	0.161312	0.552219	0.054753	0.16902	0.010135
35-39	0.008269	0.116792	0.26105	0.471387	0.032662	0.101351	0.008489
40-44	0.017789	0.224971	0.302311	0.354081	0.016692	0.077938	0.006218
45-49	0.044424	0.3481	0.279213	0.254292	0.00921	0.060677	0.004084
50-54	0.11567	0.468895	0.206809	0.160235	0.004782	0.040119	0.003491
55-59	0.231344	0.494555	0.142871	0.104632	0.00261	0.02203	0.001957
60-64	0.380387	0.456488	0.083776	0.063762	0.002775	0.011572	0.00124
65-69	0.561405	0.346172	0.045777	0.037727	0.002605	0.005841	0.000474
70-74	0.706857	0.244181	0.023275	0.019186	0.002307	0.003879	0.000315
75-79	0.791103	0.176421	0.014208	0.013024	0.002199	0.002706	0.000338
80-84	0.843526	0.128912	0.01292	0.009762	0.002297	0.002584	0
85-89	0.883489	0.095872	0.009321	0.008655	0.001997	0.000666	0
90-94	0.933025	0.046189	0.002309	0.013857	0	0.004619	0
95+	0.953704	0.027778	0.018519	0	0	0	0
합계	0.268072	0.185838	0.155174	0.293224	0.026894	0.066951	0.003847

나. 취학연령인구의 학력구조 추이

원칙적으로 취학연령인구의 학력구조는 과거의 인구총조사자료에서 따 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취학연령인구의 학력구조가 취학한계연령인구의 학력구조와 일정한 비례관계를 가진다고 단순화하여 1995년에 관찰된 비례상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단 고졸자의 경우에는 여타학력계층의 구성비가 산출된 다음 잔여로 산출하였다.

$$E_{a',g,t} = k_{a',g,T} \cdot E_{A,g,T}$$

a' =취학 연령으로서 $a' < A$, A =취학 한계연령

$k_{a',g,T}$ =1995년 인구 총조사에 나타난 $E_{a',g,T}/E_{A,g,T}$ 비율.

3. 인적자본의 공급추이와 변동요인: 1965-1995

위에서 제시된 전제아래서 우리나라의 1965-95년간 인적자본의 공급추이와 그 변동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적자본의 변동추이

<표 2>는 1965-95년간 인적자본의 규모와 기간별 변동율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인적자본은 인구 1000명당 시간당 임금률(1000원/시), 즉 100만원/시를 단위로 한 것이다. 이러한 측정단위를 전제로 할때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규모는 1965년의 432억원/시에서 30년후인 1995년에는 1301억원/시로 거의 4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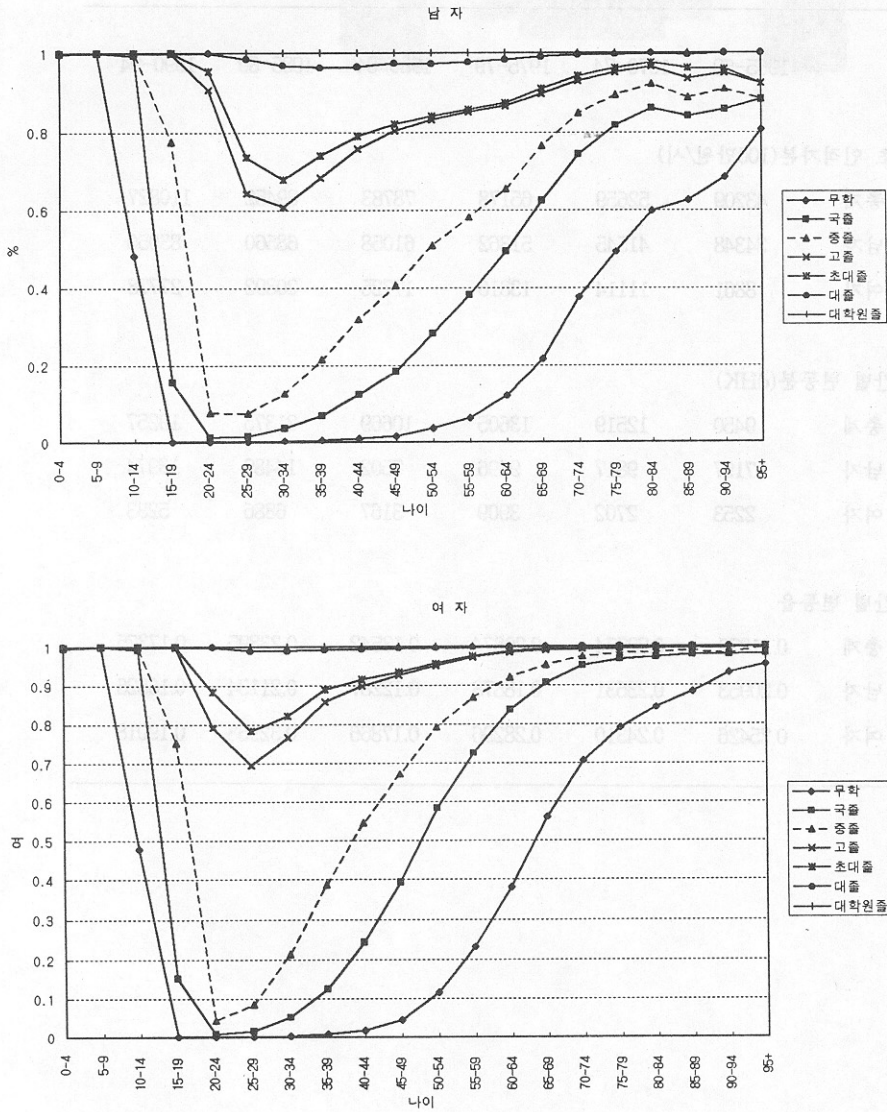
인적자본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이 매 5년간 20%내외의 성장을 지속하여 왔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기간별로 보면 1980년대초반과 1990년대초반에는 13.5%와 17.4%로 저조하였던 반면 그 외의 기간동안은 매 5년간 거의 21-24%의 안정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인적자본증가율이 언제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인적자본중 여성의 구성비는 1965년의 20.5%에서 1995년에는 25.4%로 증가하였다.

<표Ⅳ-2> 우리나라 인적자본공급의 변동추이: 1965-1995년

	1965-69	1970-74	1975-79	1980-84	1985-89	1990-94
기초 인적자본(100만원/시)						
총계	43209	52659	65178	78783	89452	110827
남자	34348	41545	51362	61058	68560	83050
여자	8861	11114	13816	17725	20892	27778
기간별 변동분(dHK)						
총계	9450	12519	13605	10669	21375	19257
남자	7197	9817	9696	7502	14489	13974
여자	2253	2702	3909	3167	6886	5283
기간별 변동율						
총계	0.21870	0.23774	0.20874	0.13542	0.23895	0.17375
남자	0.20953	0.23631	0.18878	0.12287	0.21134	0.16826
여자	0.25426	0.24310	0.28296	0.17866	0.32958	0.19018

[그림 VI-5] 연령계층별 인구의 학력구조(1995년)



나. 인적자본의 변동요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의 변동은 질적 변화에 기인한 변동분과 양적 변화에 기인한 변동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1965-95년간 우리 나라 인적자본공급의 변동분과 그 요인을 인구특성별로 요약하면 그 개요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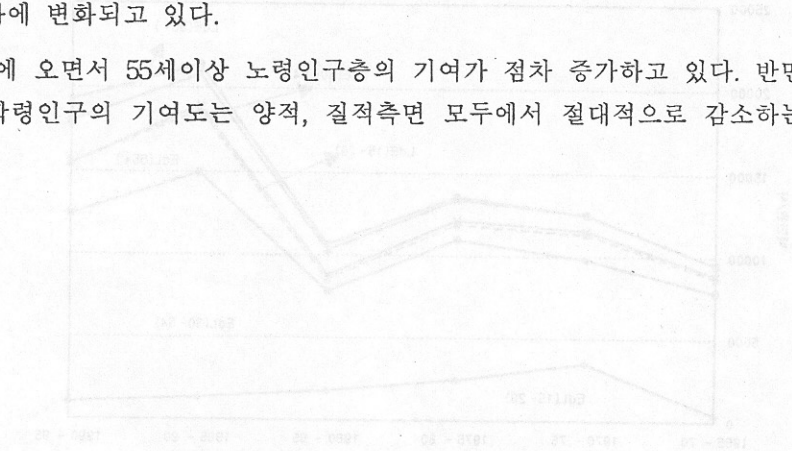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인적자본의 주된 변동요인은 질적변화보다는 양적변화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질적변화요인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적자본의 변동요인을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그림의 상반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은 남자인구의 주도하에 변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오면서 여성인구의 기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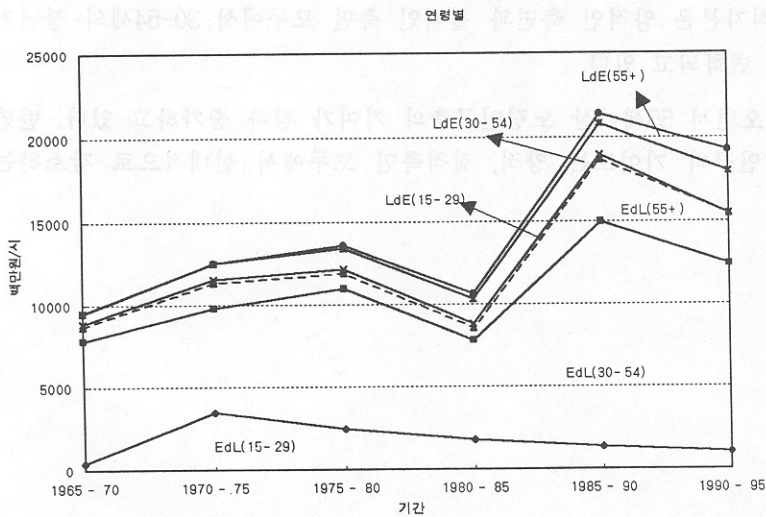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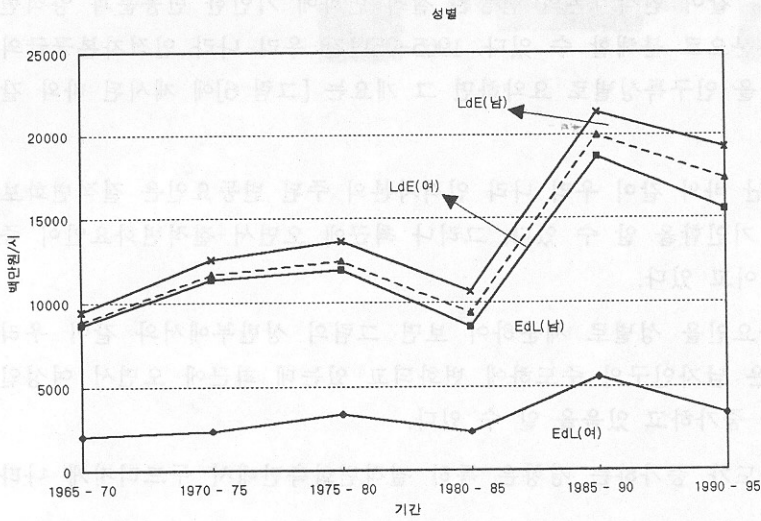
여성인구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특히 질적변화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적자본의 변동요인을 나이에계층별로 세분하여 보면 그림의 하반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30-54세의 장년기인구의 주도하에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55세이상 노령인구층의 기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30세미만의 학령인구의 기여도는 양적, 질적측면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VI-6] 인적자본스톡 변동요인과 인구특성별 구성분



자료: 부표 4.

4.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수요 추이

<표 3>은 1965년 이후 1995년까지 매 5년간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GNP탄력도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7]은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인적자본의 GNP탄력도는 인적자본의 증가율 $\hat{H}$ 를 경제성장을 $\hat{Y}$ 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이는 인적자본의 질이 GNP에 대하여 갖는 탄력도 $\hat{E}/\hat{Y}$ 와 인적자본의 양이 GNP에 대하여 갖는 탄력도 $\hat{L}/\hat{Y}$ 의 합으로 나타난다.

인적자본의 질적증가율은 1965년이후 매 5년간 1.8-3.4%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인적자본의 양적증가율은 20%를 중심으로 하여 변동이 심한 가운데 다소 저하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인적자본의 GNP탄력도 $\hat{H}/\hat{Y}$ 는 0.4내외에서 변동하는 가운데 약간의 저하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인적자본의 양이 GNP에 대하여 갖는 탄력도 $\hat{L}/\hat{Y}$ 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의 질이 GNP에 대하여 갖는 탄력도 $\hat{E}/\hat{Y}$ 는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분명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간의 경제성장이 점차 양적노동투입에서 질적노동투입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의 정도는 의외로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간 한국경제의 성장이 인적자본의 질보다는 양에 의존한 것이었음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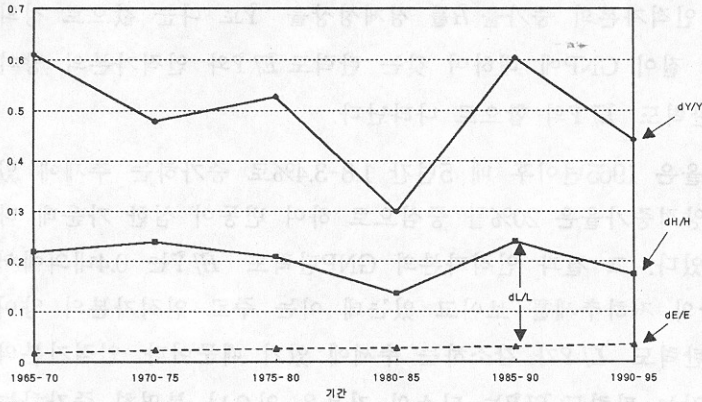
<표 IV-3>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탄력도 추이: 1965-1995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85-90	1990-95
$\hat{Y}$	0.609919	0.478188	0.527289	0.299191	0.603846	0.442637
$\hat{H}$	0.2187	0.23774	0.20874	0.13542	0.23895	0.17375
$\hat{E}$	0.017935	0.022674	0.026082	0.026680	0.029948	0.033943
$\hat{L}$	0.200764	0.215065	0.182657	0.108739	0.209001	0.139806
$\hat{H}/\hat{Y}$	0.358571	0.497167	0.395873	0.452619	0.395713	0.392533
$\hat{E}/\hat{Y}$	0.029406	0.047417	0.049466	0.089174	0.049596	0.076684
$\hat{L}/\hat{Y}$	0.329165	0.449750	0.346407	0.363445	0.346117	0.315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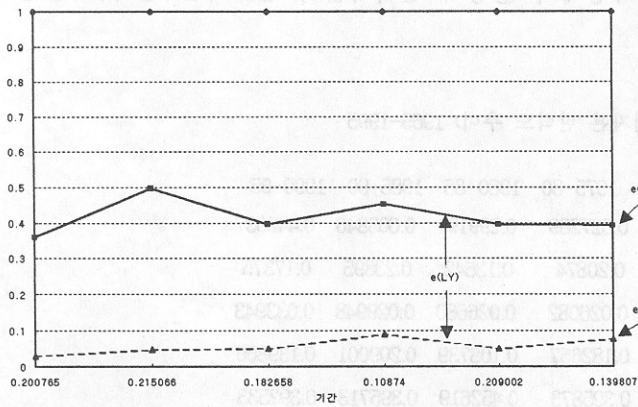
주: $\hat{Y}$ =경제성장율, $\hat{H}$ =인적자본 증가율, $\hat{E}$ =인적자본의 질적증가율, $\hat{L}$ =인적자본의 양적증가율

[그림 VI-7] 경제성장률과 인적자본의 GNP 탄력도 추이(5년간)

경제성장률(dY/Y)과 인적자본 증가율(dH/H)



인적자본의 GNP 탄력도($e(HY)$)



(주) $e(HY) = e(LY) + e(EY)$

제3절.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와 노동력 공급전망: 1995-2020

1. 인구 및 학력의 구조변화 전망

성별연령별 인구규모에 대한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¹⁰⁾에 따랐으며 인구의 학력구조전망을 추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급대학이상의 고학력자인구수는 최근 교육부의 대학정원이 어떻게 조정되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는 초대이상의 대학생인구가 향후 다음의 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1995-2000년간: 20%

2000-2005년간: 15%

2005-2010년간: 10%

2010년이후 매5년간: 5%

그리고 취학연령에 속하는 각급 대학생인구(초대, 대학, 대학원)의 연령분포는 단순화를 위하여 1995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취학연령대의 대학생인구는 모든 연령에 대하여 동일률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채택한 것이다.

비취학연령, 즉 한계연령¹¹⁾을 초과한 인구의 학력구조전망은 <표 1>의 학력구조를 외삽(extrapolation)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단 고졸자의 경우에는 여타학력계층의 구성비가 산출된 다음 잔여로 산출하였다.

$$E_{a+t, g, T+t} = E_{a, g, T}$$

E=학력별 인구구성비, a=나이, t=년도, g=학력수준, T=1995년.

2. 경제활동률의 변동과 민간 경제활동인구 전망

향후의 경제활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취학을, 출산력, 퇴직제도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출산력과 취학률은 거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경제활동률에 미칠 한계적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의 경제활동률은 공급측

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11. 남자의 경우 대학원 35-39세, 대학 30-34, 초대 25-29, 중학 25-29세, 초등 20-24세, 무학 15-19세, 여자의 경우 대학원 및 대학 25-29세, 초대 20-24, 중학-무학 20-24세.

면보다는 그 밖의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와 수요측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특히 학령인구와 가임기 여성인구 및 노령인구등 지금까지 한계노동력으로 간주되어 온 인구계층의 경제활동률에 민감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별 경제활동률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인구와 가임기여성인구의 경제활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55세이상 노령인구의 경제활동률은 상대적으로 높다¹²⁾.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률은 앞으로 사회.경제구조가 선진화됨에 따라 선진국의 패턴을 따를 것으로 전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경제지표나 인구지표면에서 한국보다 30년정도 선행하고 있는 일본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성별나이별 경제활동률이 2020년에 일본의 1992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고 1995-2020년간 1992년에 관찰된 한일간 성별나이별 경제활동률 격차가 매년 일정하게 줄어든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결과는 <부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위에서 예측된 경제활동률을 민간인구규모에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단, 민간인구는 총인구에서 군인,전경등 비민간집단인구를 제외한 인구로 정의된다. 여기서는 비민간 집단인구의 규모를 남자 15-29세 계층에 한하여 적용하였다¹³⁾. 즉,

$$L_{a,s,t} = I_{a,s,t} \cdot (P_{a,s,t} - I_{a,s,d})$$

L=경제활동인구, I=경제활동률, P=인구, I=비민간 집단인구, 하첨자 a,s,t=나이, 성, 연도.

3. 인적자본의 공급전망과 변동요인: 1995-2020

위에서 제시된 전제아래서 우리나라의 1995-2020년간 인적자본의 공급전망과 그 변동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 구성열, “우리나라 인력수급의 과제와 전망”, 윤기중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준비위원회 편, 『윤기중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5, pp.151-168.

13. 1995-2020년간 비민간 집단인구의 규모가 남자 15-19세 14.7만명, 20-24세 64.5만명, 25-29세 9만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비민간 집단인구의 총규모 88.2만명은 1995 인구센서스 2%표본자료와 1995 인구센서스 전수조사보고서 인구의 차이로서 여기서는 이를 남자 15-29세인구에 안분한 것이다.

<표 VI-4> 우리나라 인적자본의 공급전망 : 1995 - 2020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
기초 인적자본의 공급전망(100만원/시)					
총계	132297	151447	170844	187999	203404
남자	98734	112302	125885	138065	148502
여자	33553	39145	44959	49935	54901
기간별 변동분(dHK)					
총계	19150	19398	17155	15404	11377
남자	13558	13583	12180	10438	7397
여자	5592	5815	4975	4966	3980
기간별 변동율(dHK/HK)					
총계	0.14475	0.12808	0.10041	0.08194	0.05593
남자	0.1373	0.12095	0.09675	0.0756	0.04981
여자	0.16665	0.14855	0.11066	0.09946	0.0725

가. 인적자본의 변동전망

1995-2020년간 인적자본의 규모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5년의 1323억원/시에서 2020년에는 2148억원/시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⁴⁾. 이는 1965-95년간의 4배증가에 비할때 현저히 둔화된 것이다.

인적자본의 변동을 기간별로 보면 1995-2000년간 14.5%에서 출발하여 거의 매 5년간 2%포인트씩 감소하여 2015-2000년간은 5.6%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표 4>에 의하면 인적자본의 이러한 공급둔화는 여성인구보다는 남자인구의 경우 시기적으로 앞설 것으로 보이지만 둔화추세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인적자본 공급증가의 둔화요인

[그림 8]은 우리 나라 인적자본공급의 변동요인을 질적변화와 양적변화로 나누고 이를 인구특성별로 나누어 그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의 공급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된 이유는 질적측면(LdE)보다는 양적측면(EdL)의 감소때문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자본의 증가폭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하여 양적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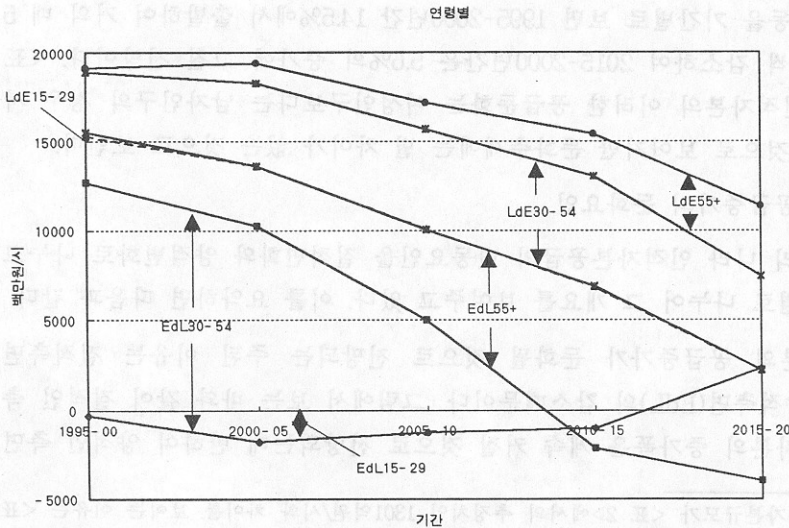
14. 1995년의 인적자본규모가 <표 2>에서의 추정치인 1301억원/시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표 2>의 경우에는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데 비하여 <표 4>은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표 4>의 경우 1995년의 경제활동인구는 실제치가 아니라 <부표 5>의 전망치에 근거한 것이다.

에서의 인적자본의 증가폭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자본에 있어서 공급증가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여성인구보다는 남자인구의 인적자본 공급둔화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연령계층면에서 보면 30-54세계층의 장년인구계층의 인적자본 공급둔화에 기인한다. 즉 [그림 8]의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54세계층의 인적자본공급은 그 증가폭이 1995-2005년간은 거의 일정하면서 공급증가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2010-2020년간은 (-)요인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55세 이상계층은 공급증가폭이 차츰 커져 2010-2020년간은 양적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러나 30세미만 계층은 1995-2015년간 계속 (-)요인이 되고 2015-2020년간 (+)요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가 노령화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노동력의 노령화현상은 2010년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질적측면에서의 인적자본은 공급이 증가일로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남녀, 나이계층을 불문하고 비교적 모든 인구계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단 연령계층별로 볼때 15-29세계층이 이러한 질적 공급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VI-8] 인적자본스톡 변동요인과 인구특성별 구성분 전망



자료: 부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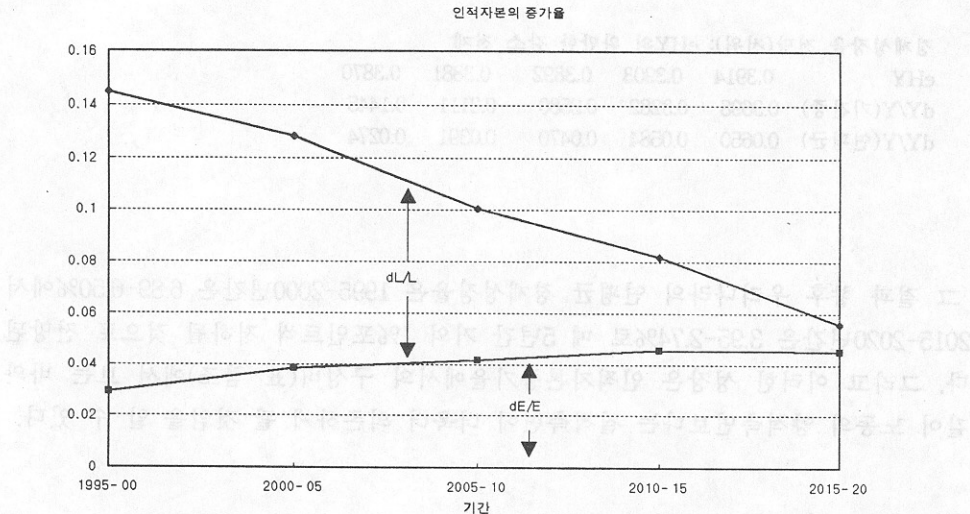
4. $\epsilon_{HY}(K, T)$ 의 가정에 따른 대안적 경제성장률 전망

1995-2000년간 우리나라 인적자본 공급의 증가율을 양적요인(dL/L)과 질적요인(dE/E)으로 나누어 보면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인적자본의 증가율(dH/H)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질적요인이 증가되는 데 비하여 양적요인이 감소되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2010년 이후 부터는 우리나라 인적자본 공급의 주된 증가요인은 질적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자본 공급증가율이 이와 같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경제성장률도 둔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인적자본 공급증가율 둔화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지는 탄력도 ϵ_{HY} 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좌우된다. 여기서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ϵ_{HY} 의 향후추세에 대한 두가지 대안적 전망에 따라 앞으로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해 보았다.

ϵ_{HY} 에 대한 전망은 [그림 7]의 추세치를 두가지 방법으로 연장함으로서 구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1970-75년간의 정점과 1990-95년간의 저점을 선형외삽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1975-80년간의 저점과 1990-95년간의 저점을 선형외삽하는

[그림 IV-9] 인적자본의 요인별 증가율 전망



것이다. 전자는 eHY가 감소할 수 있는 최대한이 될 것이며 후자는 최소한이 될 것이다¹⁵⁾. 표에서 경제성장율에 대한 고위전망은 전자에 따른 것이며 저위전망은 후자에 따른 것이다.

<표IV-5> $\varepsilon_{HY}(K, T)$ 의 가정에 따른 대안적 경제성장율 전망

	1995-2000	2000-05	2005-10	2010-15	2015-20
인적자본 증가율:					
dH/H	0.1448	0.1281	0.1004	0.0819	0.0559
dE/E	0.0291	0.0382	0.0416	0.0456	0.0452
dL/L	0.1156	0.0899	0.0588	0.0363	0.0107
구성비:					
H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	0.2011	0.2984	0.4141	0.5565	0.8089
L	0.7989	0.7015	0.5859	0.4435	0.1912
경제성장율 전망(고위): eHY의 급속한 감소 전제					
eHY	0.3664	0.3402	0.3141	0.2879	0.2617
dY/Y(기간중)	0.3951	0.3765	0.3197	0.2846	0.2137
dY/Y(연평균)	0.0689	0.0660	0.0571	0.0514	0.0395
경제성장율 전망(저위): eHY의 완만한 감소 전제					
eHY	0.3914	0.3903	0.3892	0.3881	0.3870
dY/Y(기간중)	0.3698	0.3282	0.2580	0.2111	0.1445
dY/Y(연평균)	0.0650	0.0584	0.0470	0.0391	0.0274

그 결과 향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1995-2000년간은 6.89-6.50%에서 2015-2020년간은 3.95-2.74%로 매 5년간 거의 1%포인트씩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인적자본증가율에서의 구성비(표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의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에 더욱더 의존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15. 물론 1965-70년간의 저점과 1990-95년간의 저점을 선형외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ε_{HY} 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추세(저하)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4절. 정책과제와 시사점

잠재성장율은 결국 공급측면에서 노동의 양과 질, 수요측면에서 성장의 고용흡수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향후의 저성장전망을 어떻게 극복 내지 개선할 수 있는가를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전망은 노동의 공급측면에서 볼때 양적공급의 둔화때문이다. 양적공급은 인구증가율과 경제활동율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인구증가율을 정책변수로 하지 않는 한 경제활동율만이 정책변수로 남는다¹⁶⁾.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 인구의 경제활동율이 장기적으로 일본의 페턴에 접근할 것으로 가정하고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활동율 페턴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50세이상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율은 높지만 학령인구와 25-40세의 가임기여성인구의 활동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의 양적노동공급은 학령인구와 가임기여성인구의 경제활동율을 현재의 일본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만 있다면 그만큼 본고의 전망치보다 높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인구와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잠재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향후 양적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가 되며 이에 따라 잠재성장율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고에서는 성장의 고용흡수력, 즉 ε_{HY} 에 대한 가변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잠재성장율을 전망하였다. 과연 ε_{HY} 는 본고에서 제시한 범위내에 머물 것인가? 머문다고 하더라도 보다 바람직한 변화(저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ε_{HY} 가 저하된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뜻하므로 이 문제는 결국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직결된다.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자본과 그에 체화된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기술의 모방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 산업구조면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노동절약적)인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일정산업부문내에서도 보다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을 지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노동생산성상승이 주로 하드웨어적 유형자본을 통한 생산기술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한다면 향후의 그것은 소프트웨어적 무형자본을 통한 생산기술의 변화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한다거나 자체개발을 하는데는 가중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선진국이 우리 나라에 기술이전을 기피하거

16. 근로시간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긴 편이므로 연장할 여지가 없는 편이다.

나 이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단가가 누적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자체개발을 하려고 하여도 반도체산업의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친 엄청난 투자규모가 소요된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요컨대 향후의 노동생산성향상, 즉 ϵ_{HY} 의 저하는 과거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노동생산성저하가 유형의 자본보다는 무형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기술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방향도 기업단위보다는 산업체원에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구조와 생산기술의 이러한 변화전망에 비추어 볼때 우리 나라 인구의 고학력화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임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의력함양과는 거리가 있고 대학교육도 산업생산성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도 기업고유의 기술과 관련된 부문이 아니라면 투자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속성상 고급인력의 직업훈련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의 학력향상을 생산성의 향상, 나아가서는 잠재성장율의 상승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서는 교육제도와 직업훈련등 인력양성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표 1>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율

	1994년					1989년				
	초등	중등	고등	초대	대학	초등	중등	고등	초대	대학
남자										
15-19	2.19	2.80	3.23	3.50	3.23	0.95	1.13	1.26	0.94	1.26
20-24	3.61	4.26	4.14	3.77	4.38	1.35	1.42	1.66	1.64	2.57
25-29	5.34	6.62	5.99	5.31	5.99	1.90	1.90	2.16	2.28	3.05
30-34	6.71	7.96	7.38	6.95	8.04	2.20	2.19	2.64	3.03	4.12
35-39	7.96	9.07	8.38	8.56	10.55	2.46	2.39	3.07	3.83	5.52
40-44	8.83	9.37	9.41	9.57	13.15	2.48	2.49	3.36	4.09	6.31
45-49	7.73	8.99	9.98	10.50	15.04	2.39	2.54	3.33	4.69	7.11
50-54	6.72	8.58	9.85	10.45	14.58	2.16	2.40	3.23	4.40	7.35
55-59	6.07	6.94	8.81	9.31	15.82	1.94	2.08	3.11	3.29	6.99
60+	4.51	5.22	7.81	9.66	12.71	1.77	1.82	3.00	3.88	7.87
여자										
15-19	2.91	2.43	2.86	3.93	2.86	1.06	1.12	1.25	0.91	1.25
20-24	2.96	3.26	3.58	3.66	4.14	1.28	1.28	1.50	1.80	2.15
25-29	2.78	3.19	4.27	4.83	5.30	1.30	1.32	1.84	2.39	2.83
30-34	3.02	3.10	4.73	6.07	7.35	1.18	1.27	2.06	2.97	3.86
35-39	3.06	3.20	4.87	6.06	8.03	1.18	1.28	1.89	3.70	4.97
40-44	3.37	3.51	4.53	7.66	9.64	1.21	1.27	1.71	3.70	4.85
45-49	3.49	3.40	4.10	5.81	10.15	1.22	1.34	1.72	4.13	6.24
50-54	3.22	3.37	4.26	7.64	9.94	1.14	1.25	2.01	3.36	6.81
55-59	2.91	2.91	4.77	6.16	15.12	1.06	1.28	2.00	2.16	5.16
60+	2.40	2.59	5.36	4.82	14.11	0.98	1.35	1.47	5.34	5.41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조사 1994, 1989

<부표 2> 인구특성별 경제활동률의 학력간 격차 (1995년)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초대	대학	대학원
남자							
15-19	0.341	0.036	0.042	0.330	0.400	0.091	0.000
20-24	0.462	0.870	0.812	0.542	0.855	0.691	0.680
25-29	0.545	0.917	0.965	0.881	0.979	0.926	0.923
30-34	0.617	0.953	0.974	0.987	0.992	0.984	0.982
35-39	0.762	0.953	0.979	0.989	0.991	0.991	0.992
40-44	0.749	0.957	0.974	0.984	0.985	0.992	0.991
45-49	0.815	0.945	0.962	0.973	0.980	0.984	0.989
50-54	0.823	0.917	0.928	0.938	0.954	0.957	0.979
55-59	0.802	0.857	0.847	0.845	0.881	0.873	0.951
60+	0.709	0.737	0.650	0.658	0.681	0.682	0.806
여자							
15-19	0.087	0.016	0.027	0.404	0.446	0.000	0.000
20-24	0.244	0.526	0.583	0.560	0.838	0.793	0.659
25-29	0.286	0.478	0.363	0.366	0.530	0.570	0.677
30-34	0.363	0.516	0.402	0.313	0.368	0.398	0.605
35-39	0.501	0.589	0.460	0.371	0.375	0.375	0.655
40-44	0.551	0.614	0.491	0.379	0.424	0.379	0.690
45-49	0.598	0.584	0.444	0.341	0.416	0.338	0.755
50-54	0.616	0.545	0.362	0.292	0.360	0.324	0.603
55-59	0.554	0.467	0.280	0.224	0.269	0.262	0.667
60+	0.469	0.346	0.202	0.161	0.191	0.250	0.667

<부표 3> 인구특성별 실업률의 학력간 격차 (1995년)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초대	대학	대학원
남자							
15-19	0.087	0.016	0.027	0.404	0.446	0.000	0.000
20-24	0.244	0.526	0.583	0.560	0.838	0.793	0.659
25-29	0.286	0.478	0.363	0.366	0.530	0.570	0.677
30-34	0.363	0.516	0.402	0.313	0.368	0.398	0.605
35-39	0.501	0.589	0.460	0.371	0.375	0.375	0.655
40-44	0.551	0.614	0.491	0.379	0.424	0.379	0.690
45-49	0.598	0.584	0.444	0.341	0.416	0.338	0.755
50-54	0.616	0.545	0.362	0.292	0.360	0.324	0.603
55-59	0.554	0.467	0.280	0.224	0.269	0.262	0.667
60+	0.469	0.346	0.202	0.161	0.191	0.250	0.667
여자							
15-19	0.043	0.007	0.008	0.080	0.071	0.000	0.000
20-24	0.111	0.119	0.130	0.069	0.103	0.124	0.205
25-29	0.022	0.048	0.035	0.034	0.044	0.047	0.066
30-34	0.035	0.015	0.016	0.014	0.020	0.014	0.014
35-39	0.035	0.018	0.015	0.014	0.013	0.009	0.017
40-44	0.022	0.012	0.014	0.014	0.014	0.009	0.005
45-49	0.018	0.014	0.013	0.014	0.014	0.005	0.000
50-54	0.012	0.012	0.012	0.013	0.010	0.008	0.014
55-59	0.012	0.007	0.014	0.010	0.000	0.005	0.000
60+	0.005	0.005	0.008	0.011	0.000	0.010	0.000

<부표 4> 인적자본공급의 변동요인: 1965-1995년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85-90	1990-95
기간별 변동분(dHK)						
총계	9450	12519	13605	10669	21375	19257
15-29	583	3688	2711	2067	1664	994
30-54	8068	7266	9781	7545	15403	13939
55+	798	1566	1113	1057	4308	4325
남자	7197	9817	9696	7502	14489	13974
15-29	-248	2808	1611	1238	54	164
30-54	6867	5796	7306	5614	11178	10472
55+	577	1214	778	649	3257	3339
여자	2253	2702	3909	3167	6886	5283
15-29	831	879	1100	828	1611	830
30-54	1201	1470	2474	1932	4223	3467
55+	220	352	335	407	1051	986
질적변화에 기인한 변동분(LdE)						
총계	775	1194	1700	2102	2679	3762
15-29	196	225	243	269	295	-34
30-54	624	942	1286	1503	1826	2531
55+	-45	27	170	330	559	1264
남자	598	877	1181	1277	1385	1904
15-29	115	101	89	45	-37	-262
30-54	530	755	931	927	935	1165
55+	-46	22	160	304	487	1001
여자	177	317	519	826	1294	1858
15-29	81	124	155	224	332	229
30-54	96	189	355	577	889	1367
55+	1	4	10	26	72	263
양적변화에 기인한 변동분(EdL)						
총계	8675	11325	11905	8567	18696	15495
15-29	387	3463	2467	1798	1368	1027
30-54	7445	6323	8494	6042	13578	11407
55+	843	1539	943	727	3749	3061
남자	6599	8941	8515	6225	13104	12070
15-29	-363	2708	1522	1193	89	426
30-54	6338	5040	6376	4687	10244	9305
55+	624	1192	618	346	2771	2338
여자	2076	2384	3391	2341	5592	3425
15-29	750	755	946	606	1279	601
30-54	1105	1281	2119	1355	3334	2101
55+	220	348	325	381	979	724

<부표 5> 경제활동을 전망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	0.111	0.168	0.127	0.169	0.143	0.171	0.159	0.172	0.175	0.174	0.191	0.176
20-24	0.578	0.653	0.610	0.673	0.642	0.693	0.674	0.712	0.706	0.732	0.739	0.752
25-29	0.911	0.459	0.921	0.494	0.931	0.529	0.942	0.563	0.952	0.598	0.962	0.633
30-34	0.973	0.478	0.974	0.487	0.975	0.497	0.977	0.506	0.978	0.516	0.980	0.525
35-39	0.971	0.595	0.973	0.601	0.975	0.606	0.977	0.612	0.979	0.617	0.981	0.623
40-44	0.967	0.634	0.970	0.647	0.973	0.661	0.976	0.675	0.979	0.689	0.981	0.702
45-49	0.950	0.617	0.956	0.637	0.962	0.657	0.967	0.676	0.973	0.696	0.979	0.716
50-54	0.918	0.583	0.928	0.601	0.938	0.619	0.949	0.637	0.959	0.655	0.969	0.672
55-59	0.854	0.536	0.870	0.540	0.886	0.544	0.901	0.548	0.917	0.552	0.933	0.556
60+	0.523	0.266	0.523	0.262	0.522	0.258	0.522	0.255	0.521	0.251	0.521	0.248

<부표 6> 인적자본공급의 변동요인: 1995-2020년

	1995-00	2000-05	2005-10	2010-15	2015-20
기간별 변동분(dHK)					
총계	19150	19398	17155	15404	11377
15-29	-75	-1782	-1227	-969	2312
30-54	16380	16667	11813	5031	-1021
55+	2845	4512	6568	11343	10087
남자	13558	13583	12180	10438	7397
15-29	-188	-1365	-731	-823	1508
30-54	11501	11460	7886	2689	-1284
55+	2246	3488	5024	8572	7172
여자	5592	5815	4975	4966	3980
15-29	113	-417	-496	-146	803
30-54	4879	5207	3928	2342	263
55+	599	1024	1544	2771	2914
질적변화에 기인한 변동분(LdE)					
총계	3852	5789	7104	8572	9202
15-29	205	-17	-2	37	5
30-54	3412	4687	5635	6157	5260
55+	234	1120	1471	2379	3938
남자	1697	3111	4221	5296	5667
15-29	-20	-26	-49	14	0
30-54	1648	2420	3341	3787	3463
55+	69	715	929	1496	2205
여자	2155	2679	2883	3276	3535
15-29	226	10	46	23	6
30-54	1764	2265	2294	2369	1797
55+	165	403	543	884	1732
양적변화에 기인한 변동분(EdL)					
총계	15298	13608	10051	6832	2175
15-29	-283	-1765	-1224	-1006	2306
30-54	12967	11981	6178	-1125	-6281
55+	2611	3393	5096	8964	6150
남자	11861	10472	7959	5142	1730
15-29	-168	-1340	-682	-837	1508
30-54	9853	9040	4545	-1098	-4746
55+	2177	2771	4095	7077	4968
여자	3436	3136	2092	1691	445
15-29	-113	-426	-542	-169	798
30-54	3115	2941	1634	-27	-1534
55+	434	621	1001	1887	1182

<참고문헌>

- 구성열, “우리나라 인력수급의 과제와 전망”, 윤기중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준비위원회 편, 「윤기중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7.2., pp.151-168.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1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 홍성덕,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1963-92)”,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3호, 1994, pp.147-178.
- Barro, Robert J. and Jong-Hwa Le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duc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93, pp.363-394.
-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Economic Growth*, McGraw Hill, 1995.
- Becker, Gary S.,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Becker, Gary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Thri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Griliches, Zvi, “Education, Human Capital and Growth: A personal Perspective.”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1945, January, 1996.
- Schultz, Theodore W., “Capital Formation by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8, December 1960, pp.571-83.
- Willis, Robert,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2, Part II, March-April 1973, pp.514-569,